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7 Vol.223



부산바다축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금난새와 함께하는

큰래식은 내친구



지휘 및 해설 금난새

2010. **8. 24** (화) ~ **25** (수)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균일 10,000원**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607-3111~4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부산은행 전지점

Symphony Series I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usan Symphony Orchestra 교향곡 시리즈 I

Program > BRAHMS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번호 77
> BEETHOVEN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번호 67 '운명'



협연 임지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지휘 오충근
(고신대학교 교수)

2010. 7. 20. [화] pm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 YEONGDO CULTURE & ARTS CENTER 주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관람료 10,000원(정기회원, 학생 50%할인) 문의 051) 419-5561~5

* 본 공연은 2010년 BSCF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시행됩니다.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차기공연안내

공연명	일시	장소	지휘	협연
제26회 정기연주회 교향곡 시리즈 I	7월 20일 (화) pm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충근 (수석지휘자)	Vn. 임지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제11회 청소년교과서음악회	8월 17일 (화) ~ 18일 (수) 3시, 5시 (총4회)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오충근 (수석지휘자)	
BN그룹과 함께하는 제3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9월 2일 (목) pm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오충근 (수석지휘자)	Sop. 유미숙 (명지대 교수) Ten. 박현재 (서울대 교수) Fl. 박지은 (서울시향 수석) Harp 박라나 (서울시향 단원)
제27회 정기연주회 교향곡 시리즈 II	9월 14일 (화) pm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이기균 (경성대 교수)	Vc. 양욱진 (인제대 교수)
영도문화회관 기획공연 I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1주년 기념음악회	10월 12일 (화) pm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충근 (수석지휘자)	Tpt.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부산시향 수석)
제2회 다이나믹부산 그랜드콘서트	10월 18일 (월) pm7:30 10월 19일 (화) pm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을숙도문화회관 대극장	오충근 (수석지휘자)	Tpt.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부산시향 수석)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합동공연	12월 7일 (화) pm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충근 (수석지휘자)	
영도문화회관 기획공연 II 송년음악회	12월 14일 (화) pm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8회 정기연주회	12월 28일 (화) pm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이현세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영도문화예술회관이 2010년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의 총5회 공연 및 청소년 음악교육프로그램(무료)을 개최합니다.



제5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Busan International Kids'film Festival 2010

Once Upon a Time in My Universe

이야기
속의 우주

2010년 8월 11일(수) ~ 15일(일)

MBC 롯데아트홀, 민주공원, 카톨릭 센터, 동명대학교

주최. (사)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조직위원회
문의. 051)743-7652

Contents



08 커버스토리

축제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부산 제 15회 부산바다축제

10 프리뷰

16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장편영화 '영도다리' 개봉하는 전수일 감독

18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⑦

시를 제 몸에 담고 흐르는 물처럼 | 정일근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우리가 진정 부러운 것,
미국 시골의 행복한 음악문화 | 김원명

24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⑦

영화 '스윙걸스' | 이동신

26 불멸의 거장, 쇼팽 ⑤

피아노 명곡에 남겨진 작품 성향 | 노경원

27 나의 애청음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 김의호

28 그곳에 가면

고래문화특구 장생포

31 헬로우 부산, 원더풀 코리아

'우리'를 일깨워주는 한국의 음식문화 | 다이앤 스틸명크스

32 리뷰

제 5회 부산국제무용제 | 조봉권

승화된 망각의 시간 <시> | 김희진

34 우리는 문화가족

실버벨노인복지관 실버연극단 '콩깍지'

36 프로그램 가이드

52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58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60 100자 토크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예술의 초대 2010 + 07 Vol. 223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6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07

July 2010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

MON

TUE

4

5

6

중 | 부산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 12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장은정(627-8088, 017-842-6688)

중 | 제 5회 노엘합창단 정기연주회
'재미 이해중 교수 초청 연주회' 19:30
초대/김성만(010-4183-2293)

중 |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소 |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11

12

13

중 |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소 | 제 4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최인화(627-4758, 010-4845-4758)

소 |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소 | 극단 마술이야기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공연
10:00
균일 7천원/신상우(010-9093-8277)

18

19

20

25

26

27

전시

- ▶ 제 16회 부산서예대전 -대·중전시실
7월 12일(월)~7월 17일(토)
※ 시상식 오후 2:00 국제회의장
문의 : 이정근(246-6042, 010-7599-6044)

강습

-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7기 시민 국악강습
7월 26일(월)~8월 6일(금) 10:00~12:00
· 단소반 -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장구반 -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2121~2)
- ▶ 부산시립무용단
제 23기 어린이 한국춤교실
7월 26일(월)~7월 30일(금) 국제회의장
· 10:00~11:00 꼭두각시춤
· 11:00~12:00 어린이탈춤
- ▶ 부산시립무용단 제 34기 시민무용교실
7월 26일(월)~7월 30일(금) 국제회의장
· 13:00~15:00 태평무
· 15:00~17:00 합죽선산조춤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은 야외광장, ●은 중극장, 소는 소극장 입니다.

WED	THU	FRI	SAT
	1	2	3
	●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7	8	9	10
●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1회 정기연주회 BBB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9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부산시립무용단 2010 풍류(風流) 제1회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영원한 DJ 도병찬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POP합창'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소 토요일상설무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연주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1~6)
14	15	16	17
● 2010 제 19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 2010 제 19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소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악기 가족 이야기 '휘릭 휘릭, 피리 가족이야기' 10: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수상자 축하공연 19:00 부산문화방송(760-1121)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11 국카스텐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5108)	● 제6회 한국청소년 합창 콩쿠르 예선 11:00, 시상식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 (622-0534) 소 토요일상설무대 - 무일무용단공연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1~6)
21	22	23	24
소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악기 가족 이야기 '휘릭 휘릭, 피리 가족이야기' 10: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립무용단 2010 여름마당춤판 무용극 '평강과 온달'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우천시 국제회의장	★ 부산시립무용단 2010 여름마당춤판 무용극 '평강과 온달'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우천시 국제회의장	
		소 김은희 피아노 스튜디오 정기연주회 18:00 무료/김은희(010-9269-5567)	소 토요일상설무대 - 한국전통예술진흥회공연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1~6)
28	29	30	31
	소 ● 부산시립극단 38회 정기공연 조선형사 홍윤식 19:30 균일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부산시립극단 38회 정기공연 조선형사 홍윤식 19:30 균일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부산시립극단 38회 정기공연 조선형사 홍윤식 19:30 균일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축제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부산 제 15회 부산바다축제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해운대해수욕장은 여름이면 바다의 낭만을 만끽하려는 인파로 북적인다. 해운대의 여름은 열정 넘치는 사람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부산바다축제에서 절정을 이룬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부산바다축제가 8월 1일부터 9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 광안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등 부산지역 6개 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부산바다축제는 1996년 제 1회를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행

사와 이색적인 체험행사, 해양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축제로 각광받아왔다.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국제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 해양스포츠행사, 개성 넘치는 구·군 행사 등 약 40개의 특색 있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축제기간 중 펼쳐진다.

매년 8월 1일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하는 개막

행사는 최정상 인기가수 초청 대형특별공연과 축하불꽃쇼가 함께 펼쳐져 잊지 못할 여름 바다의 추억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얼음조각대회 등과 같이 외국인과 관광객을 위한 해외 토픽형 주간 체험 이벤트를 마련하고 지난해에 이어 게임대회, 스케이트보드대회 등이 진행된다. 또 전국(지

■ 국제행사

부산국제힙합페스티벌 8월 2일(월)~3(화) 해운대해수욕장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월 4일(수) 해운대해수욕장
부산국제록페스티벌 8월 6일(금)~8(일) 다대포해수욕장
부산비치스케이트보드대회 8월 7일(토)~8(일)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 공연행사

다대분수음악회 8월 3일(화) 다대포해수욕장 꿈의 낙조분수
7080콘서트 8월 4일(수) 송도해수욕장
한국해양문학제 8월 4일(수) 광안리 호메르스호텔
비키바다영화상영축제 8월 4일(수)~8일(일)
썸머살사의 밤 8월 5일(목)~6일(금)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M.net 슈퍼 콘서트 8월 6일(금) 해운대해수욕장
부산e스포츠페스티벌 8월 6일(금)~7일(토) 광안리해수욕장
송정국악콘서트 8월 6일(금) 송정해수욕장
하나 푸른콘서트 8월 7일(토) 해운대해수욕장
현인가요제 8월 7일(토)~8일(일) 송도해수욕장
뮤지컬 갈라콘서트 8월 8일(일) 해운대해수욕장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8월 9일(월) 광안리해수욕장

역) 인기 라디오 방송과 연계해 해양스포츠 체험 쿠폰 이벤트를 대폭 확대, 외국인들의 체험 기회를 더욱 높였다. 그 외 뮤지컬 갈라콘서트, 7080콘서트, 국악,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행사로 여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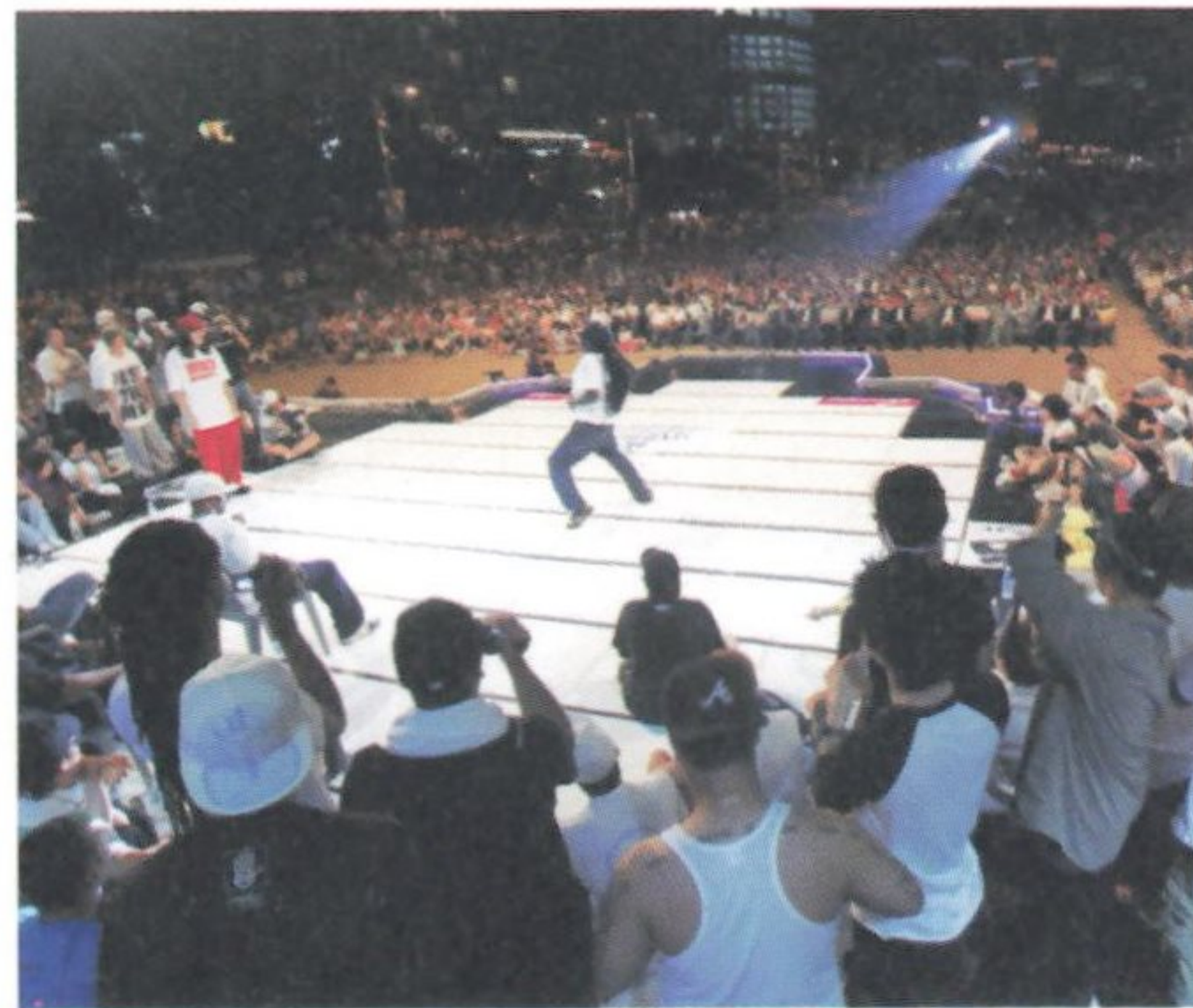
■ 체험행사

장애인한바다축제 8월 5일(목) 광안리해수욕장
사랑의 얼음조각대회 8월 5일(목) 해운대해수욕장
핀수영 강습회 8월 7일(토)~8일(일) 광안리해수욕장
해양스포츠체험 8월 1일(일)~8일(일)
광안리해수욕장, 요트경기장
부산명품수산물홍보마켓 8월 1일(일)~8일(일)
해운대해수욕장

■ 스포츠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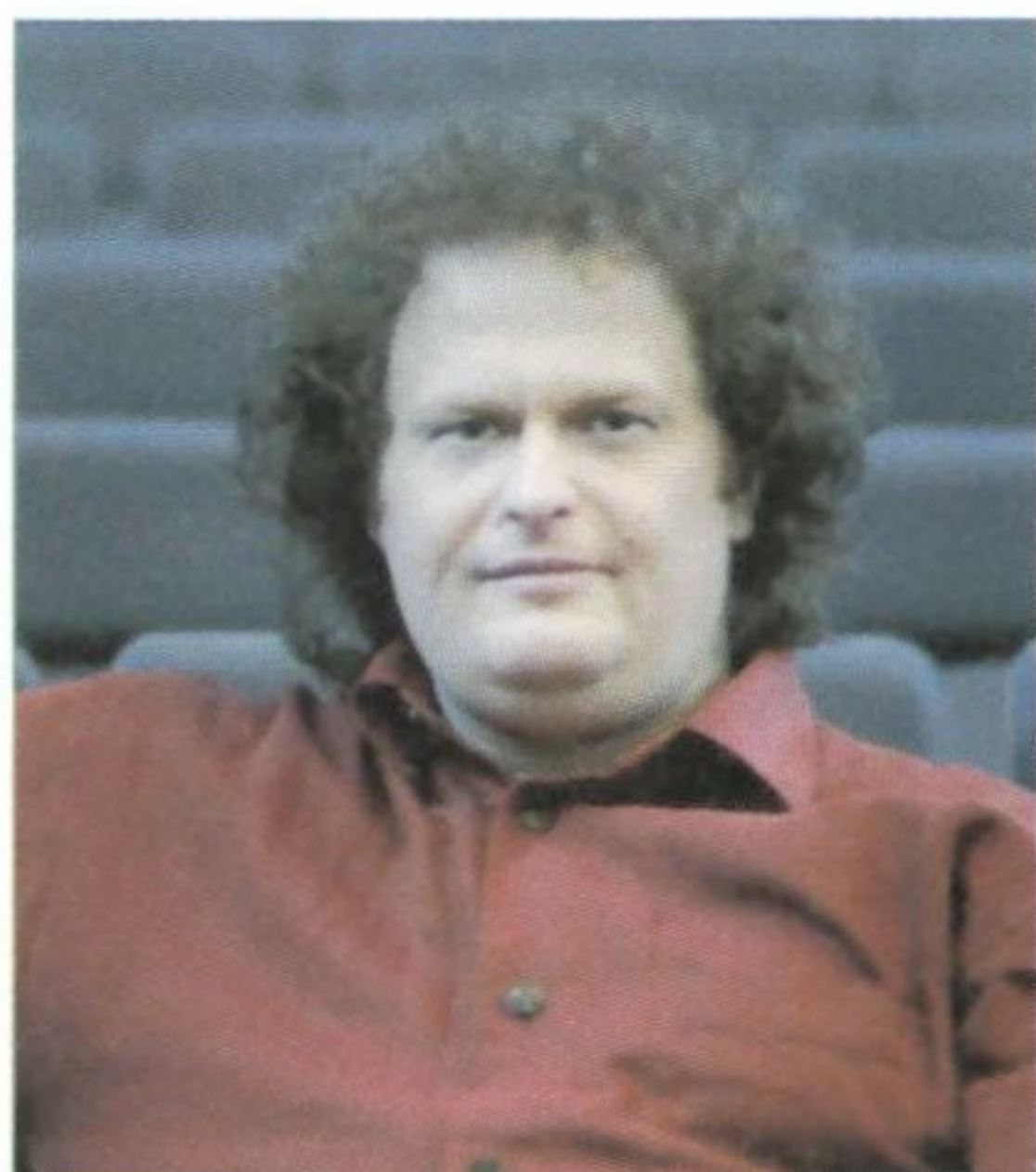
조정대회 8월 8일(일) 광안리해수욕장
카누·래프팅 대회 8월 8일(일) 카누경기장
요트대회 8월 7일(토)~8일(일) 요트경기장
카이트보딩대회 8월 7일(토)~8일(일) 다대포해수욕장
윈드서핑대회 8월 7일(토)~8일(일) 송정해수욕장
바다핀수영대회 8월 7일(토) 광안리해수욕장
비치발리볼대회 8월 8일(일) 광안리해수욕장
해양래프팅대회 8월 4일(수)~5일(목) 광안리해수욕장

■ 문 의:(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www.seafestival.co.kr)



BBB IV (Beethoven & Brahms in Busan)

7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슈테판 말체브

베토벤, 브람스와 만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0년 프로젝트 BBB 네 번째 무대가 세계적인 지휘자 슈테판 말체브의 지휘로 7월 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협연자 없이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베토벤의 초기 교향곡 2번과 브람스교향곡 중 가장 힘있고 웅장한 교향곡 3번으로 교향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BBB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슈테판 말체브는 독일 베를린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로 기세터 극장의 수석감독, 슈베린의 메클렌부르크 국립극장의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2001년부터 노이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닉 수석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타고난 음악성과 활력, 성실함이 지휘 속에 깃들어있는 말체브는 남독일 신문으로부터 ‘브란덴부르크의 새롭고 경이로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격찬을 받으며 클래식 음악 분야를 넘어선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다. 위대한 낭만음악에서부터 20~21세기까지 클래식음악은 물론 팝과 재즈에도 비범한 영역을 과시하고 있는 슈테판 말체브는 섬세한 음악적 뉘앙스에 대한 감수성으로 모든 종류의 솔로리스트를 추구하고 있다. 슈테판 말체브는 토스카, 라보엠, 마술피리, 탄호이저 등 청소년들을 위한 수 많은 극작품을 제작, 감독해 작곡가로서의 능력 또한 인정받았다.

이번에 연주하게 되는 베토벤 교향곡 제 2번은 1802년 베토벤이 그의 나이 32세 때,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쓴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완성되었다. 당시 베토벤은 청각 장애로 그곳에서 정양 중이었다. 이 유서가 대단히 비장하게 쓰여졌듯이 이 시기는 그에게 가장 비참한 시기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베토벤 교향곡 제 2번은 유서를 쓸 정도로 절망적인 가운데 쓰여진 곡이지만, 당시 베토벤이 백작의 딸 줄리에타를 사랑하고 있었던 시기라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희망과 기쁨에 차 있다. 1803년 초연 후 라이프치히의 ‘알게마이네 음악 신문’은 “이 교향곡이야말로 정열가의 작품이며, 이 시대의 모든 유행 작품이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시대가 되어도 이 작품만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

브람스 교향곡 3번은 F.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그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브람스의 작품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곡 중 하나가 되었다. 1833년에 완성된 이 곡은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과 비교해 브람스의 ‘영웅’이라 불린다. 베토벤의 작품보다 강렬함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지만 경쾌한 구성과 풍부한 악상은 역시 브람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작곡되던 그해 12월 2일 빈에서 한스 리히터의 지휘로 빈필하모닉에 의해 초연되었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9월 1일 이전가입자는 회원 카드로 관람가능 합니다.)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0 제 19회 부산무용제

7월 14일-15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 무용 예술인들이 펼치는 최고축제인 부산무용제가 7월 14일과 1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해마다 독창적인 춤언어를 선보이는 부산무용제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는 경연의 장이다. 지난해에 5개 팀이 경연에 참가한데 이어 올해는 한국 무용, 발레, 현대무용 부문에서 4개팀이 경연에 참가, 열띤 경연을 펼친다.

한국무용단으로는 박성호 무용단이 '점(點)-홀·모으다'로 참가한다. 정재형이 대본을 쓰고 박성호가 안무, 연출을 맡은 '점(點)-홀·모으다'는 생명 탄생 이후 우주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인간 존재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과 같은 범주로 보고, 이를 다시 우주, 삶의 중심으로 그 존재를 환원시키고자 한 작품이다. 하연화, 박성호, 이동용, 박상용, 황대현, 장영진, 안주연, 손영일, 조유섭, 남진아 등이 출연한다.

발레부문에는 부산발레연구회와 김지나발레단이 참가한다. 부산발레연구회는 부산발레연구회 이사 김남영의 안무로 '한류(韓流)'를 무대에 올린다. 세계 각국에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을 풀어낸 이 작품은 태양이 모든 태양계를 환하게 비추듯 태양과 같이 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가슴 벅찬 이름이 인류의 햇불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체 3장의 춤언어로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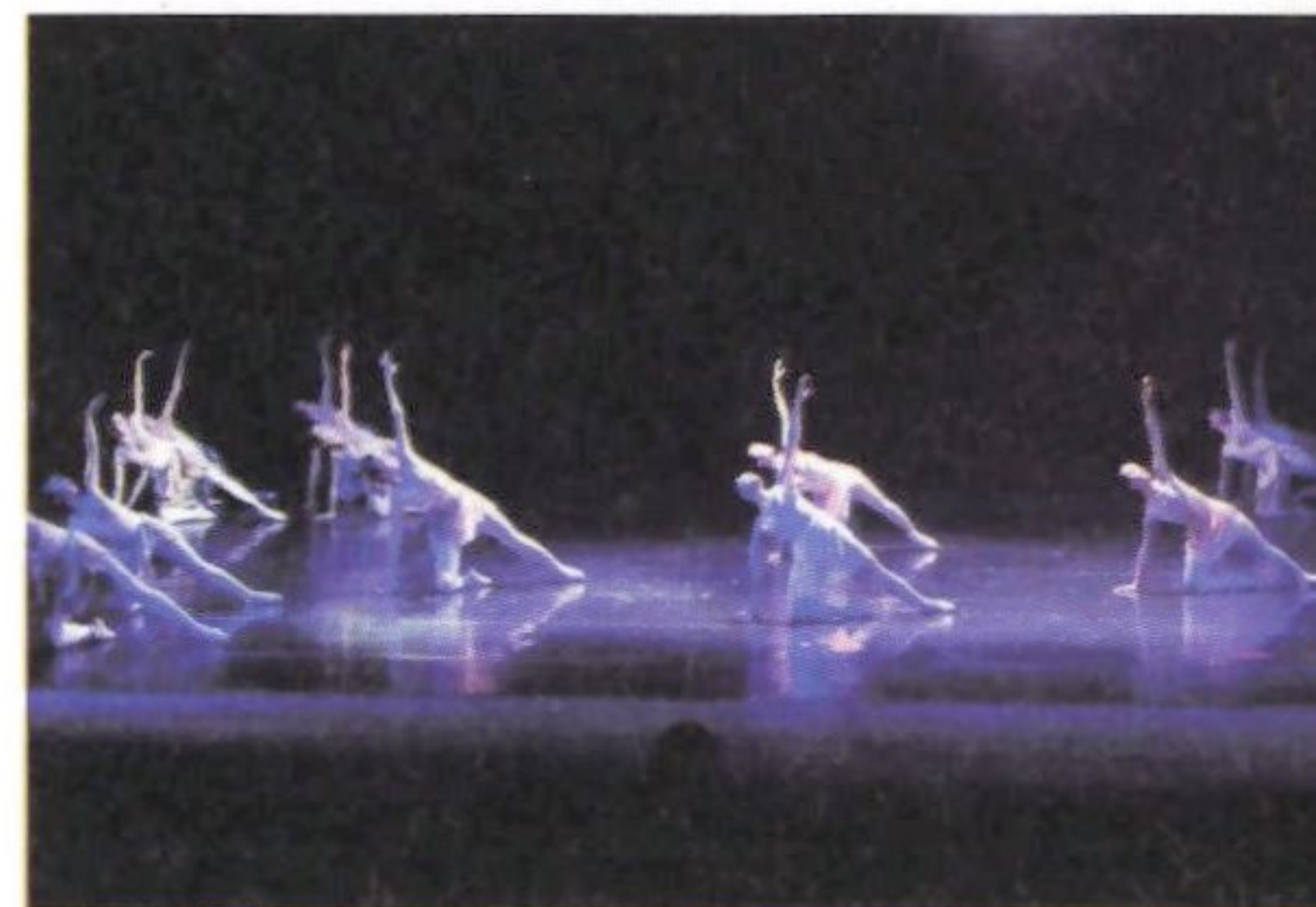
올해 처음 부산무용제에 도전장을 낸 김지나 발레단은 도시의 한여름 밤, Jazz의 감미로움이 흐르는 사랑의 선율이 느껴지는 아름답고 달콤한 꿈을 그린 '한 여름밤의 꿈'을 선보인다. 김영지, 김창성, 이종혁, 공문정, 임희진, 제남정, 김사라, 변재진, 손금희 등이 출연한다.

유일한 현대무용팀인 Mom-burim Dance Project(몸-부림 현대무용단)는 이상미 안무 작 '검은 숨소리'로 부산무용애호가들과 만난다. 2008년 창단된 Mom-burim Dance Project(몸-부림 현대무용단)은 무엇이 진리이며, 그 어떤 것이 악(惡)인가...란 의문을 품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검은 현실주의라면 가슴에서 외치는 허상조차도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점에서 검은 숨소리를 작품화했다. 윤기나, 박은진, 박한별, 김미진, 정혜숙, 김정윤, 정은이, 이경은이 출연한다.

첫날 14일은 박성호무용단, 김지나발레단, 15일은 부산발레연구회, 몸-부림 현대무용단이 경연을 펼친다. 그 외 개막공연으로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통영승전무'가, 폐막공연으로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천지현황', 지난해 대상수상팀인 휘트니스컴퍼니의 '미친 개미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박성호 무용단



부산발레연구회



몸-부림 현대무용단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영원한 DJ 도병찬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POP합창'

7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수석지휘자 김강규

5월 7080 세대를 위한 '가요합창무대'를 선보인 부산시립합창단이 7월 10일 OLD POP 팬들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팝 합창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고 부산의 7080세대들에게 친숙한 KBS FM 팝음악 진행자 도병찬의 해설로 부산시립합창단과 '이야기가 있는 POP합창' 음악회로 추억여행을 떠난다.

1974년 4월 대구 한국FM방송 PD로 입사한 도병찬PD는 언론사 통폐합으로 1980년 KBS 한국방송공사 PD로 입사, 이듬해인 1981년부터 2007년까지 KBS 부산방송총국 FM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30여년간 라디오음악 PD로 활동해온 도병찬은 1970~80년대 학교앞 음악다방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팝음악을 편안한 진행으로 들려주면서 중장년층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1997년 9월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지역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도병찬은 현재 KBS FM '네시의 뮤직파일' 진행자로, 음악공간 '라디오' 대표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이야기가 있는 POP합창'무대에서는 여름휴가의 낭만이 담긴 'Summer Holiday' 'Beyond the Sea(La Mer)' 'Theme from Summer Place', 여름밤의 추억이 담긴 'One Summer Night' 'Summer Time', 카펜터스를 추억하는 'Super Star' 'Close to You' 'Top of The World', The Way We Were(46회), You light up my life(50회), What a feeling!(56회) 등 역대 아카데미 주제가 수상곡 까지 OLD POP 팬들의 추억이 담긴 명곡에 아름다운 화성과 풍성한 합창단의 화음을 더해 새로운 느낌의 팝음악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이야기가 있는 POP 합창'은 매년 7월 Old Pop 팬들에게 추억의 팝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편곡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편곡자 문지은, 부산교육대학 강사 백현주, 부산시립합창단 작·편곡담당 최석태가 맡았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음악다방의 느낌을 살리고 노래 가사를 무대 뒷면에 자막으로 처리, 모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편안한 무대를 열 계획이다. 그 외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쿠스틱 기타리스트 홍광현, 드러머 김진훈, 포크 기타리스트 김정태가 특별출연, Old Pop 팬층은 물론 Old Pop을 접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영원한 DJ 도병찬, 합창단과 새로운 형식의 팝 음악 선물



영원한 DJ 도병찬. 30여년간 팝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해 온 그이지만 7월 ‘이야기가 있는 POP 합창’ 무대를 앞두고 어느때 보다 많이 설렌다. 부산시립합창단과 새로운 형식의 팝 합창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라디오 부스를 떠나 무대에서 청중들과 직접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도병찬 씨는 1981년부터 KBS FM라디오에서 편안한 진행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70~80년대 그의 방송에 열광하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제 중장년층으로 성장했다. 그의 목소리를 잊지 못한 중년들은 지금도 틈만나면

‘4시의 뮤직파일’에 주파수를 맞춘다. 4시의 뮤직파일은 다양한 리메이크 곡과 구하기 힘든 희귀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팝 프로그램이다.

“제 방송은 70년대 음악다방이나 음악 감상실에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라디오였고 그 시절을 함께 보냈던 제 음악에서 향수를 찾는 것 같습니다.”

낮 시간 라디오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병찬 씨가 올드 팬들을 위해 문을 연 카페 라디오를 직접 찾아와 옛 추억에 젖기도 한다.

도병찬 씨는 이번 팝 합창 음악회를 위해 초여름 분위기에 맞는 시원한 여름 음악과 여름날의 추억이 살아있는 팝들을 직접 선곡했다. 방송으로, DJ로 음반을 플레이하다 시립합창단 단원들과 처음으로 라이브 무대를 갖게 되어 기대가 크다는 도병찬 DJ. 방송에서 전하지 못한 색다른 감동을 그의 애청자들과 나누고 싶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2010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무용극 '평강과 온달'

7월 22일-23일 목-금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야외무대



수석안무자 홍기태



이훈 '변검'

매년 여름 부산 시민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선사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이 2010년 여름마당춤판 무용극 '평강과 온달'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선녀와 나무꾼' '장화홍련' '별주부전' 등 우리 전통을 각색, 해학과 신명 넘치는 마당춤판을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은 그동안 독창적인 무대, 단원들의 열연으로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하고 유쾌한 웃음으로 온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2010년 새롭게 선보이는 '평강과 온달'은 고구려 평원왕 때 바른 심성을 가진 온달이 평강 공주와 결혼하여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린 '바보 온달' 설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무용극 형식의 마당춤판이다. 외모는 누추하나 마음은 명랑한 바보 온달과 평원왕의 울보 딸 평강공주의 사랑, 어머니를 봉양하는 온달의 지극한 효심으로 감동을 전한다.

극단 시나위 상임연출가로 2008년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 춤판 '드라큘라가 되어버린 장화홍련'에서 호흡을 맞춘 오정국이 대본, 각색, 연출을 맡고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가 안무, 구성을 맡아 즐거운 웃음을 선사한다.

올해에도 단원들이 춤은 물론 연기, 노래 실력까지 발휘하고 변검공연과 마술쇼로 '평강과 온달'의 특별한 재미를 더해준다.

- 안무,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 연출, 각색, 대본/오정국
- 특별출연/이훈(변검, 경상대학교 대학원 민속무용학과 재학), 이병준(마술사)



2009년 여름마당 춤판 별주부전 중

부산시립무용단

2010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2009년 여름마당춤판 '별주부전 - 용궁으로 간 토끼'

부전 - 용궁으로 간 토끼'

· 7월 1일 (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 7월 13일 (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 관람료 무료(※우천시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조선형사 홍윤식

7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후 7:30, 3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김광보 수석연출가와 2010년을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립극단 2010년 두 번째 정기공연 '조선형사 홍윤식'이 성기웅의 객원 연출로 무대에 오른다.

1933년 5월 경성 죽점정(지금의 서울 충정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전봉관의 책 '경성기담' 중 '죽점정 단두 유아 사건' 부분과 당시의 신문기사에 픽션을 더해 2007년 성기웅이 발표한 '조선형사 홍윤식'을 성기웅이 직접 연출을 맡아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조선형사 홍윤식'은 영화 '모던보이' '라디오 데이즈' '기담'을 비롯하여 드라마 '경성스캔들'로 이어진 1930년대 근대역사의 격동기를 연극무대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극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쓰는 일본어가 섞인 경성 사투리, 복장, 관습 등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성기웅은 '조선형사 홍윤식'을 비롯해 '소설가 구보씨와 경성사람들' '깃븐우리절믄날' 등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연이어 선보이며 유성기, 유성영화, 라디오 등이 보급되어 '모-단(modern)'한 문물들이 싹을 틔워가던 당시 경성 한복판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왔다. 특히 이 작품은 탄탄한 대본과 맛깔스러운 대사,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물을 표방한 공연들과 차별화된 시대, 배경으로 웃음을 선사한다.

'조선형사 홍윤식'은 경찰서 말단 사환 손말희(일명 마리아)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된다. 경성 죽점정의 금화장 고갯길에서 잘려진 아기의 머리통이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평소 안정된 치안을 자랑해오던 일본 경찰은 근대적이고도 과학적인 수사를 표방하며 즉각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다. 수사에 난항이 거듭되자 서대문경찰서 사법계에 조선인 형사 홍윤식이 새로 부임해오고 새로운 수사가 진행된다.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해 내지로 전근해 가기를 소망하는 사법계 주임 이노우에, 조선에 온 지 여러 해가 지난 형사 같지 않은 형사 노마, 아버지가 일본인인 혼혈이지만 조선인 어머니 밑에서 조선인으로 자라나야했던 임정구, 몇 년 만에 돌아온 고향 조선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홍윤식. 네 명의 형사들이 맞닥뜨리는 예사롭지 않은 사건들이 사환 손말희(일명 마리아)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

리듬감 넘치는 1930년대 경성의 말투와 시대상을 완벽하게 재연한 무대, 빠른 극의 전개로 관객들은 타임머신을 탄 듯 경성의 '조선형사 홍윤식'과 만난다.



객원연출가 성기웅

· 극본, 연출/성기웅

· 출연/이혁우(형사 홍윤식), 염지선(손말희), 유성주(형사 임정구), 박찬영(형사 노마), 이돈희(도까비), 정행심(무당 이성녀), 황창기(뼈꾸기), 유재명(객원배우, 이노우에 형사), 이현주, 김은희, 김상균, 허철녕, 이남희, 라세흠, 조아라, 신동훈, 이채현, 김은옥, 김두리, 김주연

· 관람료 균일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일곱 번째 장편 영화 '영도다리' 개봉 앞둔 영화감독 전수일

메이드 인 부산 영화를 고집하는 영화감독 전수일(경성대학교 교수, 51세). 그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높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주의 영화감독이다.

7월 1일 영화 '영도다리' 개봉을 앞두고 있는 전수일 감독은 영화 '영도다리'로 다시 그의 진가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개봉전부터 산세바스티안영화제 경쟁부문 진출과 라스팔마스영화제, 페사로영화제 등에 초청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영도다리'는 전수일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한 그의 일곱 번째 장편영화다. 영도의 이국적 풍광, 그리고 전수일 감독만의 독특한 캐릭터와 이야기가 만나 또 하나의 걸작이 탄생한 것.

전수일 감독은 1997년 데뷔작 ‘내 안에 우는 바람’을 시작으로 그동안 6편의 영화가 모두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내 안에 우는 바람’은 제 1회 PIFF에서 운파상수상과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되었고 두번째 영화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는 제 4회 PIFF 넷팩상(최우수한국영화상), 2000년 프리부르국제영화제 대상(황금시선상)을 수상했다. 다섯번째 영화 ‘검은 땅의 소녀와’(2007)는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 ‘오리종티’에 초청되어 국제예술관련맹상과 리나 마지아카프리상, PIFF 2007에서 최우수한국영화상인 넷팩상, 도빌 아시아 영화제(2008) 대상과 비평가상 등 세계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17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속초 출신인 전수일 감독은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영화연출학교 E.S.R.A서 영화연출을, 파리 7대학과 8대학에서 영화이론을 공부했다. 이번 영화 ‘영도다리’는 20년 전 프랑스 유학 길에 2살 된 쌍둥이 입양아를 에스코트했던 그의 특별한 경험이 모티브가 되었다.

“영도다리를 왜 선택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부산에서 가장 부산다운 공간인 영도다리는 6·25 전쟁 중 이산가족들이 재회를 기다리던 역사적인 공간이고 상실의 아픔을 의미하는 영화 속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화 ‘영도다리’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며 출산과 동시에 입양기관에 아이를 넘기게 된 19살의 인화가 모질게 떠나보낸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하며 아이를 직접 찾아 나선다. 영도다리는 인화가 잃어버린 아기를 다시 찾으러 가는 여정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대부분 입양아들이 자라서 부모를 찾지만 저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봤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해 갓난 아이를 양부모에게 인계하던 순간,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던 그 입양아를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영화에는 드라마에서 인현왕후로 주목받고 있는 박하선이 주인공 인화로 등장한다. 전수일 감독은 박하선에게서 주인공 인화의 순수한 이미지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화의 잠재된 에너지와 용기를 발견했다. 그의 영화를 거쳐간 최민식, 설경구, 조재현, 정보석, 안길강, 추상미 등 대표적 배우들에 이어 박하선이 신예답지 않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어 내심 기대가 크다. 특히 ‘영도다리’는 전작보다는 대중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관람층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많은 관객들이 이야기 중심의 드라마에 치중하고 있어 공간과 인물 중심의 영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제 영화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간적 정서와 공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인물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영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도다리’는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보다 개봉관이 더 늘어 부산에서만 4곳, 전국 20개 극장에서 개봉한다. 현재 관람등급을 심의중이지만 어머니로 성장해가는 인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작품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현재 그는 여덟 번째 영화 ‘핑크’를 준비 중이다. 핑크는 항구를 배경으로 한 가족사를 다룬 작품으로 작품의 주무대는 부산과 군산이다. 대부분의 촬영은 주로 방학에 이루어진다.

모교인 경성대학교에서 교육자로 영화인재를 양성하고있는 전수일 감독. 창작 의지를 불태우는 역량 있는 영화인들이 부산으로 회귀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일곱 번째 영화 ‘영도다리’가 그에게, 또 부산영화제에 행운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희망을 찾아 떠나는 19세 소녀 인화와의 만남이 더욱 기다려진다.(글/백경옥)

시를 제 몸에 담고 흐르는 물처럼

정일근 _ 시인, 경남대학교 교수



사진/정일근

당신. 초여름의 ‘은현리’를 저와 함께 걸어보시렵니까? 은현리가 어디냐고요? 그런 질문보다는 지금 저와 함께 천천히 은현리를 걸어보시죠. 은현리가 어디인지는 산책이 끝난 뒤에 아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은현리가 어딘지 모르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산책’이라고 해도 좋고 ‘산보’라 해도 좋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한낮의 날씨가 꽤 무더워 작은 시골마을 한바퀴 돌기에도 지칠 것입니다. 지금 은현리에는 서늘하고 긴 봄이 지나자 무더운 여름이 이내 찾아와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은현리에 주소를 둔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건 수돗물 생활을 청산하고 자연으로 귀의했다는 말입니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다. 은현리에서 10년간 나는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은현리가 저에게 가르쳤지요. 물이 낮게 흐르듯이 욕심 없이 살아라고.

굳이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의 명구인 '상선약수(上善若水)'을 들먹이지 않아도 세상에 물처럼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늘은 은현리의 시작을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당신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 마을의 시작을 관문인 입구에서 찾으려 합니다. 도시에서 승용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 찾아오는 은현리가 아니라, 물길을 따라 가서 자연스레 만나는 은현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은현리 가까운 곳에 '운흥동천(雲興洞天)'이 있습니다. 동천(洞天)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이며,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운흥동천은 천성산과 솔밭산 사이로 물이 흘러가는 긴, 맑고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당신과 함께 운흥동천에서 흘러가는 맑은 물을 따라 은현리를 찾아갑니다. 자연의 흐름 따라 함께 걷다가 만나는, 낮아지는 곳에 웅기종기 편안하게 모여 사는 은현리를 보여주려 합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려 합니다. 사람들처럼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려는 사람의 두 발을 놓아두기도 힘든 뾰족한 산정을 만나지만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무심은 은현리에 닿았다가 다시 먼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현리를 찾아가는 물길 곁에 제가 자주 숨어 조용조용 시를 읽는 나무벤치가 있습니다. 봄에는 새잎에 눈부시고 여름에는 그늘이 좋고 가을에는 낙엽이 향기로운 곳입니다. 아무렇게나 놓아 만든 돌다리를 건너 벤치에 앉아 당신도 좋은 시 한 편 읽어주고 가지요.

제게 시는 자연의 선물이라 자연에게 그 시를 되돌려줍니다. 자연의 시에는 자연이 화답하는 법입니다. 물이 흐르다 잠시 멈추어 서서 맑은 얼굴로 반짝이며 제 시를 듣고 있습니다.

저쯤 웅달샘이 있을 것입니다. 목이 마르시다면 물 한 잔 마시고 오시죠. 물에 비치는 당신의 얼굴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담고 은현리로 흘러가는 햇살에 반짝이는 저 물처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우리가 진정 부러운 것, 미국 시골의 행복한 음악문화

김원명 _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미국 미주리대학교 방문교수

지난 해 가을부터 연구년을 허락 받아 가족들과 함께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냉전 시대가 종식되며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고 건국 200여 년 만에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나라, 유럽 모든 나라의 면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역사 이면에 강자의 오만과 독선, 약자를 살육한 피 묻은 발톱을 감추고 있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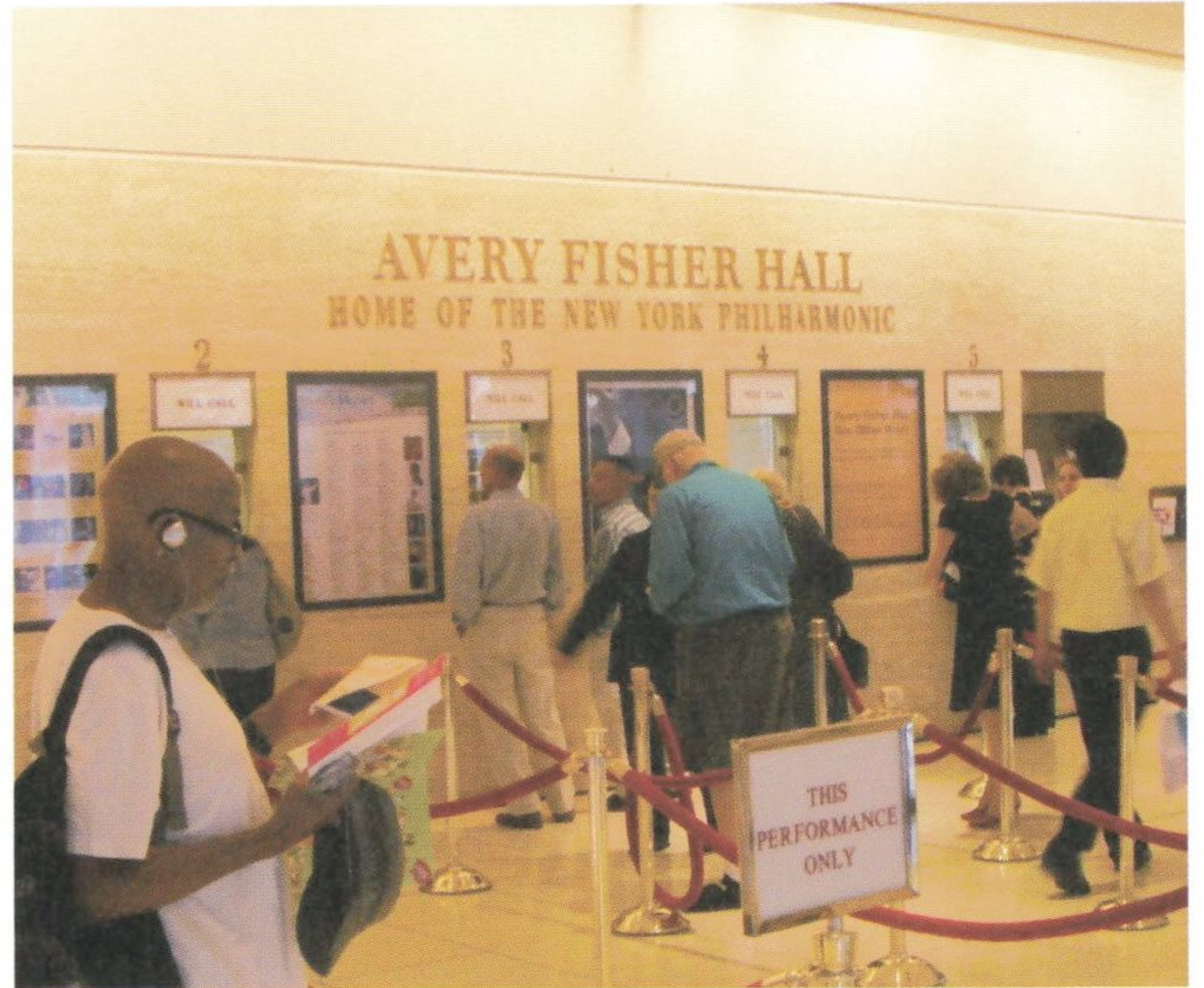
짧은 기간 동안 이 공룡 같은 국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껴야 할지 고민했다. 일단 이 나라의 자연과 역사, 문

화를 몸으로 확인하고 싶어 1만 7천 마일의 자동차 여행을 했다. 그랜드 캐니언과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과 같은 대자연を 보며 이들이 참 많은 것을 가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치 아이들이 부잣집에 태어난 친구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또 보스턴, 뉴욕, 워싱턴 등 동부의 대도시들이 고작 200년 남짓한 역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포장해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며 그보다 수십 배의 긴 역사를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도 생각해봤다.



Jazz Walk Of Fame의 루이 암스트롱 동상

세계의 심장부에 자리한 링컨센터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리고 구겐하임 미술관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이 나라가 가진 문화의 저력을 느끼게 하기보다 차라리 돈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미국이 종주국 노릇을 하고 있는 재즈와 록큰롤의 고향인 멤피스, 뉴올리언스, 내슈빌 같은 남부 도시들은 시카고, 클리블랜드 같은 북부 대도시들의 힘에 밀려 행색은 다소 초라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찾아드는 유명한 음악 거리를 통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 필자 눈에 비친 미국은 사실 부러운 것도 많은 나라이지



링컨센터 에이버리 피셔 홀

만 전혀 닮고 싶지 않은 대목도 그만큼이나 많은, 야누스와 같은 존재였다.

필자가 진정 부러워하게 된 것은 몇 달 동안 발에 땀내며 경험한 미국의 거대한 자연이나 잘 포장된 역사, 세계 최고의 문화시설들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건 역설적이게도 아주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였다.

우리 가족이 등지를 튼 곳은 미주리 주의 콜럼비아라는 인구 11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다. 인구수로 한국에서 62번째인 경



내슈빌컨트리 음악명예의 전당



뮤지컬 배역을 맡은 학생들



고등학교 재즈밴드

남 통영이 13만, 사천이 11만 명 정도이니 비교해 보면 되겠다. 집의 둘째 아이는 이곳 학교에서 9학년으로 다닌다. 한국의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묶어 놓은 Junior High School에서 이 아이가 1년간 경험한 학교생활은 한국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정규 수업 이외 학생들 대부분이 적성에 맞는 취미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오케스트라, 재즈 밴드, 마칭 밴드, 뮤지컬 등 다양한 음악 관련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예술 활동들이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공립 중·고등학교들은

정기적으로 오케스트라 및 재즈밴드 음악회를 개최하고, 기념일에 펼쳐지는 퍼레이드 때는 마칭 밴드로 변신하여 주민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하고 있다.

이토록 조그만 시골 동네임에도, 그리고 한국이라면 입시지옥에 허덕여야 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여전히 넉넉한 예술 활동을 즐기고 있다. 이 아이들이 비록 뉴욕에서나 볼 수 있을 거대한 문화들은 접하기 어렵더라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행복은 누리고 사는 것 같다.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운 수학 공식이 가져다주는 논리적 사고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술이 주는 감성적 경험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록큰롤박물관



잭슨광장의 재즈아티스트들



시카고 Jay Pritzker Pavillion(야외극장)

이젠 중학교도 아닌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지옥에서 시달려야 하는 한국 아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안쓰럽다. 일선 음악 학원 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벌써 음악 배우기를 접고 영어, 수학 학원으로 옮긴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의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우선 모든 학교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려는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무시하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바뀌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아이들이 이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약 400만 명이 산다는 부산 지역에 올해 음악교사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어렵게 유학을 마치고 온 유능한 신진 음악가들은 지역에서 활동할 무대가 없고, 지역 음대 졸업생들은 대학 문을 나서자마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필자가 이곳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살며 진정 부러웠던 것은 이들이 세계 최고의 것들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한국의 어느 곳에 살건 큰 차이 없이 누구나 예술의 향기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삶,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입시지옥에 매몰되지 않고 평생의 자양분이 될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는 언제나 가능할까.

젊은이들의 밝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영화 스윙걸즈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스윙걸즈는 스윙 재즈라는 장르를 여고생들에게 대입시켜 새로운 재미를 끌어낸 영화다.

일본영화 <스윙걸즈>는 13명의 고등학생들의 스윙밴드 도전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에는 순수한 열정만으로 사춘기를 통과하는 젊은이들의 밝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다. 전작 <워터보이즈>에서 남자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수중발레를 소재로 선택하여 재미를 줬던 ‘야구치 시노부’ 감독은 이번에는 스윙 재즈라는 장르를 여고생들에게 대입시켜 새로운 재미를 끌어낸다.

여름 한낮에 찜통 같은 교실에서 일상의 틀에 갇힌 채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소녀들이 있다. 그러나 우연한 일탈은 소녀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합주부에게 전해줄 도시락 배달을 핑계로 보충수업까지 땡땡이치고 야외 소풍에 나선 소녀들은 실수로 합주부원들을 식중독에 걸리게 한다.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타로 음악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소녀들은 차츰 재즈의 매력에 빠져든다. 처음엔 악기 하나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던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밴드를 결성하고 어렵게 악기를 구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무대를 찾아 이곳저곳을 누빈다.

영화 <스윙걸즈>의 줄거리는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약도 심하다. 청춘영화에서 흔히 나올 법한 도식적인 갈등구조나 로맨스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는 음악에 문외한이던 소녀들이 처음 재즈에 눈을 뜨게 되고 어색하고 서툴러도 진정한 밴드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러 가지 미션을 하나둘씩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시종일관 밝고 따스한 시선으로 따라간다. 감독은 평범한



20세기 재즈 역사의 명곡들을 투박하지만 제법 기교까지 부리는 연주로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듯 엉뚱한 캐릭터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에피소드들을 엮어가며 이 단순한 줄거리를 싱그럽고 귀여운 코미디로 빚어낸다.

음악과 유머 그리고 소녀들의 발랄한 매력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스윙걸즈>는 흥겹다. 성적 호기심 많은 소녀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네킹을 상대로 러브신을 실습하는 장면이나 중고악기를 구입하겠다는 일념으로 산에서 몰래 버섯을 캐다가 본의 아니게 멧돼지랑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 등 소녀들의 밋밋한 좌충우돌 모험담이 내내 유쾌한 미소를 머금게 한다. 게다가 20세기 재즈 역사의 명곡들을 투박하지만 제법 기교까지 부리는 연주로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감독은 청춘의 가장 빛나는 한 순간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무대의 막이 내리고 난 후 소녀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성장했을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은 관객들의 몫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음악만을 바라보고 열정을 불태웠던 스윙걸즈 멤버들과 직접 음악을 연주하진 못해도 제자들을 통해 열정을 과시했던 오자와 선생의 모습에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야구치 시노부’ 감독은 남자고등학교에 수중발레부가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만든 <워터보이즈>처럼 여고 특별활동부에 ‘재즈밴드부’가 있다는 걸 우연히 듣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 제작진은 재즈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열었다.

하지만 주요 배우 다섯 명은 결국 기존 배우들 중에서 캐스팅해서 악기 연습을 시켜야만 했다. 주연을 맡은 ‘우에노 주리’는 3년에 걸친 연습으로 영화에서 실제로 색소폰 연주를 프로 못지않게 해내 큰 인기를 누린다. 이 영화 덕택에 후일 <노다 메 칸타빌레>의 주연으로 발탁되어 이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배우가 되었다. 개성과 조연으로 <셀 위 댄스> <워터보이즈> <으랏차차 스모부> 등에 출연해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다케나타 나오토’도 재즈에 심취한 오자와 선생 역으로 웃음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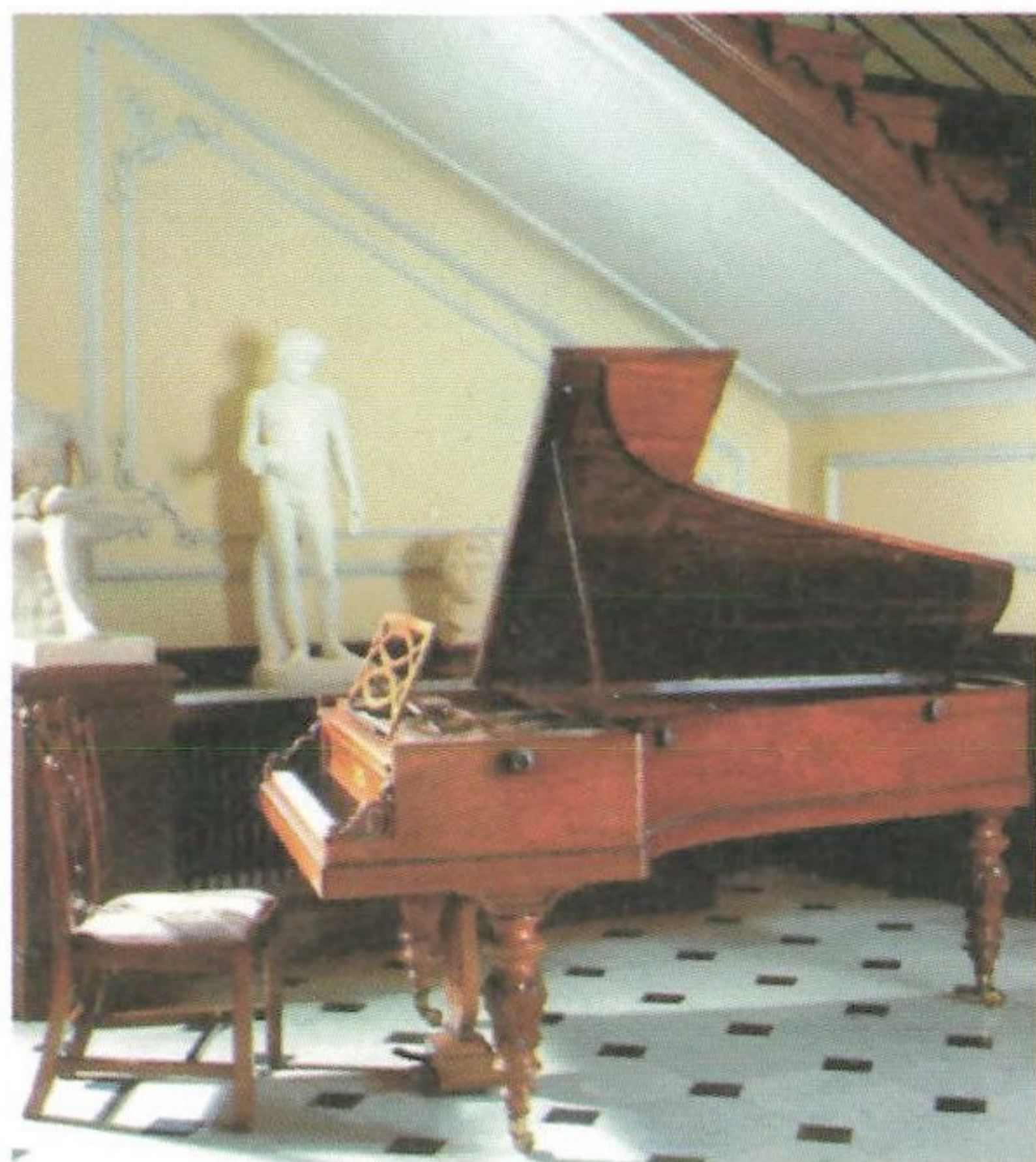
2004년 일본 아카데미에서 각본상, 녹음상, 편집상, 음악상, 신인상 등 5개 부분을 석권하고 키네마준보 베스트10의 일본영화 7위에 랭크된 영화 <스윙걸즈>는 신나는 음악을 통해 재즈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영화의 OST는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고 노래해서 제작했다. 그리고 정말로 연주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가졌다고 하니 놀랍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비록 뛰어난 연주는 아니지만 즐거운 음악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스윙음악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작위적인 감동보다는 가볍고 발랄한 태도를 끝까지 견지해서 뒷맛이 깔끔한 <스윙걸즈>를 통해 스윙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건 어떨까.

피아노 곡명에 남겨진 작품 성향

노경원 _ 피아니스트, 인제대학교 교수, 김해국제음악제 예술감독



160년 전 Chopin이 극찬하고 사랑하여 연주여행에 직접 가지고 다니던 Pleyel 피아노(현재 영국 소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지만 작곡가는 작품을 남겨 언제나 생명력을 유지한다. 태어난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쇼팽이란 이름이 친근하니 말이다. 음악을 들으면 온 몸으로 작곡가를 느낄 수 있지만 지면을 통해서라면 그의 작품 명(名)

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쇼팽 작품의 대부분인 피아노 곡들을 중심으로 당대 또래 낭만 작곡가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 만의 독창적이었던 작곡 의도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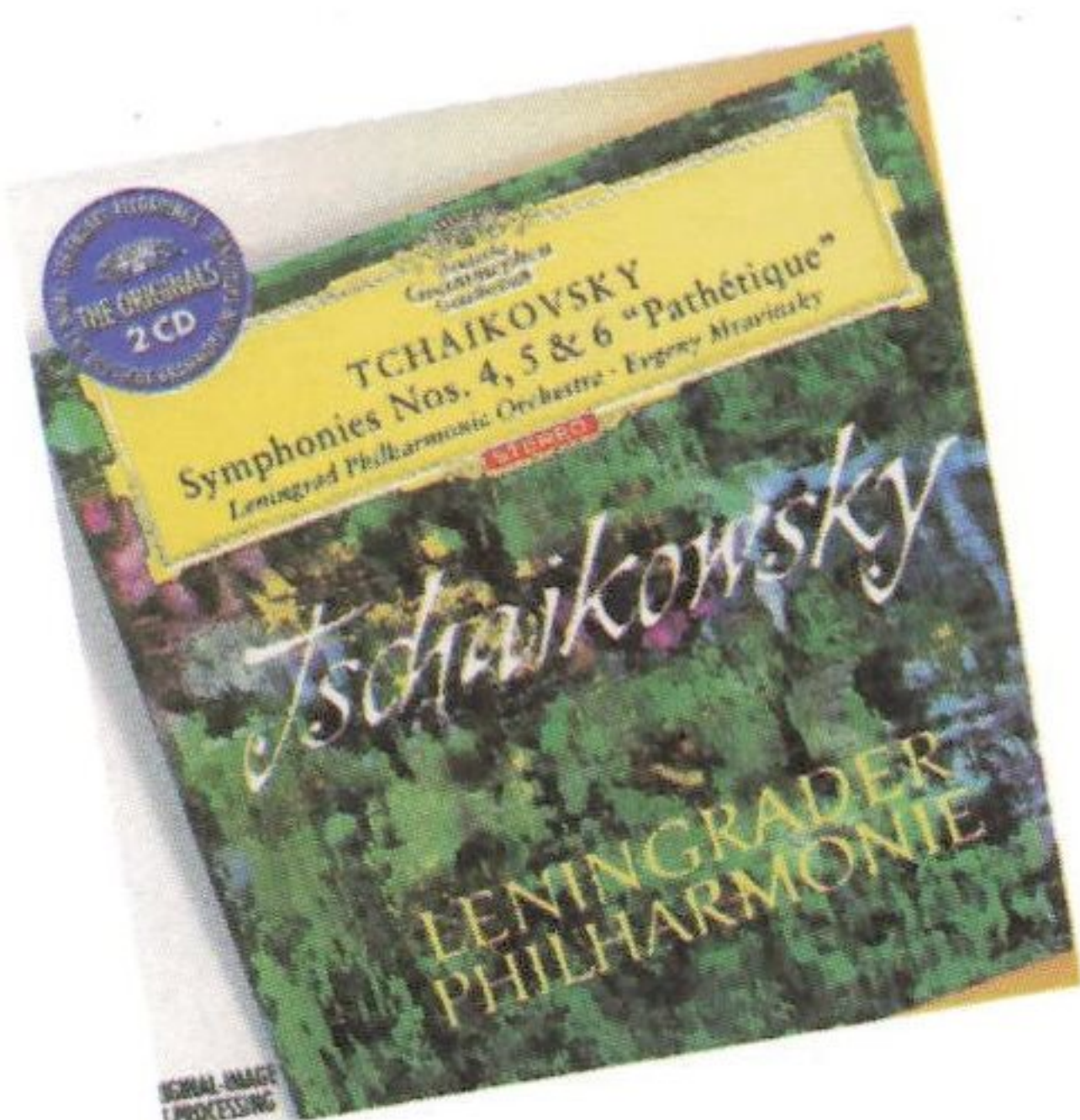
쇼팽보다 13년 선행인 슈베르트는 '즉흥곡' 8곡과 '악흥의 한때' 등의 주옥 같은 소품들을 가졌지만 23곡의 '피아노소나타'가 보여주듯이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고전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0여년 후, 무르익은 낭만적 성향의 작곡가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쇼팽보다 한 살 위인 멘델스존은 '소나타', '변주곡', '프렐류드와 푸가'와 '카프리치오', '판타지' 등 고전적 타이틀과 형태의 작품들을 주로 작곡했다. 그러나 49곡에 이르는 그의 '무언가(無言歌)', 즉 가사가 없는 시적인 노래는 독특한 장르로 매우 서정적인 낭만 성향의 소품들이다. 동갑내기 슈만은 낭만문학의 영향과 판타지를 제목에서도 현저히 드러내고 있는데 '다윗동맹 무곡', '크라이슬러리아나', '나비', '숲의 정경' 등 제목이 벌써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한 살 아래인 리스트는 '헝가리랩소디', '스페인랩소디', '갈롭' 등 독특한 이국적 소재의 접근과 스위스,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나폴리 등을 돌면서 작곡한 '순례의 해'에 여행의 체험을 담

았다. 문학적인 영향도 '단테 소나타', '메피스토펠트 왈츠' 등의 제목에서 나타나고 '시적이면서 종교적인 노래'와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를 담은 '두 개의 전설' 등은 인생말기의 종교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의 작품 명들은 마치 삶을 들려주는 듯하다. 피아니스트 계보의 일화를 그으며 출발점이 되고 있는 리스트의 현란한 기교는 12곡의 '초절기교 연습곡', 6곡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3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2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등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이와 쌍벽을 이루며 콩쿠르, 입시 등에서 고도의 테크닉과 예술성의 테스트용 과제인 '24개의 쇼팽 연습곡(Etudes)'은 리스트의 쇼맨십 강하고 거대한 효과를 추구하는 비루투오조를 거부한, 쇼팽의 섬세하고도 화려한 피아니스트적 역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쇼팽은 다양한 춤곡 형태를 작곡에 이용했는데 58개의 '마주르카'와 17개의 '폴로네이즈', 19개의 '왈츠', 3개의 '에코세이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춤곡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승화된 독창적 장르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해학을 의미하는 '스케르췌(Scherzo)'가 해학과는 거리가 먼 4개의 '스케르췌'로, 미키에비츠의 시(詩) '콘라드 와렌로트'에서 영감을 얻었다지만 정작 쇼팽은 표제적 의미를 거부했던 4개의 '발라드(譚詩曲, 이야기를 담은 성악곡)' 등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 외에 밤의 감상을 담은 21개의 '녹턴(夜想曲)', 즉 흥환상곡을 포함한 '4개의 즉흥곡, 뱃노래(Barcarolle), 자장가(Berceuse) 등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목들은 형태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슈만이나 리스트처럼 표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음악만을 통한 순수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했던 것이다. '24개의 전주곡(Preludes)'과 유명한 장송행진곡을 포함하고 있는 3개의 '피아노소나타' 등의 대작도 비록 고전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낭만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작곡가가 쇼팽이다.

슬라브의 선이 굵은 애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김의호 _ 삼성여고 교사



어린 시절 세계지도를 펴놓고 지명 찾기 놀이를 즐겨하였다. 내가 지명을 부르면 친구가 지도에서 찾아내고, 친구가 지명을 대면 내가 찾는 그런 놀이였다. 나는 구소련지역의 레닌그라드, 이르쿠츠크, 민스크 등을 주로 묻곤 하였다. 왜 그런 이름들이 좋았을까? 철의 장막이라 불리던, 그 시절 도무지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신비와 동경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갈 수 없는 땅 모스크바에 매년 출강한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지난 겨울 모스크바에서 막심 고리키의 장편 ‘어머니’를 읽었다. 클라리넷의 선음이 느리게 나타나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을 들으면서……. 템포는 숨 가쁘게 알레그로로 바뀌어 가며 슬픈 주제는 점차 고조되어 악장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마치 혁명의 동기가 요원의 불이 되어 번져가듯. 어느 순간 책과 음악이 하나 되어 충분한 슬픔이 되어 다가왔다.

‘어머니’는 1902년 고리키의 고향 부근인 소르모보 공장에서 일하던 표트르 자로모프 모자가 혁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건을 줄거리로 갖고 있다. 노동계급의 성장과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기념비적인 소설이다. 어머니는 지난 세월의 공포, 복종, 희생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어 던진다. 혁명은 실패했으나 이 책 마지막은 “피바다를 이룬다 할지라도 진실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고 궁극적 승리를 암시한다.

러시아는 후진적 농업국가로 농노제도가 남아있었다. 심한 빈부의 차이로 가난에 내몰린 백성들은 톨스토이가 꿈꾼 인민민주주의 사회공동체를 갈망한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최초의 성공적 혁명으로 가는 필연적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차이코프스키가 혁명적 성향을 지녔다는 표면적 징후는 어디에도 없

다. 그러나 4~6번 교향곡에서 표제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숙명’이라는 일관된 모티브를 통해 사상성을 드러낸다. 5번 교향곡은 신음이 절규로, 절규가 투쟁으로, 투쟁이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는 혁명의 전주곡 같다.

게다가 차이코프스키를 키운 레닌그라드(썩 빼제르부르크)는 러시아혁명의 진원지이다. 이곳에서 볼셰비키혁명이 시작되고 결국은 로마노프왕조가 몰락했다. 레닌그라드는 시인 푸시킨을 낳고 작곡가 립스키코르샤코프, 발레리나 안나 파브로바를 낳은 낭만의 도시다. 낭만의 양만큼 자유를 갈구하는 혁명적 기질이 다분한 도시였다.

이 도시의 보석인 레닌그라드필하모니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구소련의 대표적 국립교향악단이다. 1772년 썩 빼제르부르크에 창설된 음악협회의 관현악단을 모태로 하여 1802년 필하모니협회로 발전하였다. 1917년 혁명 이후 레닌그라드 필하모니로 명칭이 바뀌고 1938년부터 트라빈스키시대를 맞는다. 이때부터 탁월한 앙상블이라는 정평을 얻는다.

트라빈스키는 1956년과 1960년 두 번의 유럽 연주 여행을 하였다. 그는 러시아전통을 고수하면서 완벽을 추구하여 유럽 악단과 청중에게 서방과는 구별된 독창적 탁월함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는 연주 홀도 한 몫 한다. 구소련의 연주 홀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러시아 스타일의 넓고 긴 직사각형 건물구조다. 객석은 딱딱한 나무의자이고 흡음재라고는 딱히 청중의 옷 밖에 없다. 홀의 음향에서 치장을 거부하는 육질이 느껴진다. 여기에 타협이 없는 짜르(황제) 트라빈스키의 손끝에는 거대한 대륙의 선이 굵은 우수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배어있다. 그는 러시아 작품에서 지휘자로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가 지휘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 5, 6번과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은 명반중의 명반이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을 레닌그라드필의 연주가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은 무례를 범하는 것이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보고 듣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고래 문화공간 고래문화특구 장생포

포경 전진기지로 명성을 누렸던 장생포가 고래생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인 장생포 고래박물관이 개관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고래생태체험관이 들어서면서 장생포가 ‘고래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특히 2008년 장생포일대가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고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2005년 5월 31일 개관한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인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1986년 포경이 금지된 이래 사라져가는 포경유

물을 수집해 보존, 전시하고 있다. 포경역사관, 귀신고래관, 어린이체험관 등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고래박물관은 특히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층에 자리한 포경역사관에는 장생포를 비롯 우리나라와 세계의 포경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체 길이 12.4m에 달하는 브라이드고래와 범고래의 골격 표본을 비롯해 실제 포경을 통해 얻은 다양한 유물과 포경, 해체시 사용되었던 각종 도구들, 그리고 193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지역 특산물 분포

도', 1970~80년대 항해일지, 조선근해 포경허가문서 등 포경역사와 관련된 귀중한 문건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보 제 285호 반구대 암각화 모형과 실제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했던 포경선 '제 5진양호'가 복원,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끈다.

3층 귀신고래관은 그 이름만으로도 흥미로운 귀신고래의 생태적 특징과 분포장소, 유영모습, 회유경로 등 귀신고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유물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설화에도 등장하는 귀신고래는 해안 가까이에 살면서 암초가 많은 곳에 귀신같이 출몰한다 해서 부쳐진 이름. 마치 소울음소리와도 같은 귀신고래의 울음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귀신고래 소리체험관을 비롯해 어린이들에게 귀신고래에 대한 상식을 재미있게 전해주는 애니메이션 '매직비전', 전체 길이 13.5m에 달하는 귀신고래 실물모형 등이 특히 인기가 많다.

이밖에 1층 어린이체험관에서는 고래에 대한 상식과 정보를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고래체험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어 생생한 감동을 전해준다.

고래박물관을 모두 둘러보았다면 이번에는 살아있는 고래를 직접 만나러 가자. 박물관 바로 옆에 자리한 고래생태체험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돌고래 수족관이 있어 직접 돌고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에 들어서면 3마리의 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는 해저터널 수족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관람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주인공들은 암컷인 꽃분과 수컷인 아롱과 다롱. 지난해 10월 고래생태체험관 개관에 맞춰 일본 타이지박물관에서 적응훈련을 마치고 이 곳 장생포로 오게 됐다. 해저터널을 지나 2층 수족관으로 올라가면 수면위로 머리를 내미는 돌고래를 바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조련을 받은 돌고래들이 조련사와의 악수, 뒤집기, 점프 등 묘기를 선보이면서 관람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단, 돌고래가 먹이를 먹는 시간인 오전 9시 30분, 오후 12시 10분, 2시 30분, 5시 10분에 방문해야만 돌고래의 묘기를 직접 볼 수 있다. 또, 평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4시, 주말 오전 10시, 11시 30분, 오후 2시, 4시에는 '조련사가 들려주는 돌고래 이야기'를 통해 고래에 대한 궁금점을 조련사가 직접 대답해주는 시간도 갖고 있다.

이밖에 '고래이야기' 코너에서는 우리바다를 회유하는 귀신고래, 밍크고래, 향고래, 큰머리돌고래, 흑범고래, 참돌고래, 큰돌고래 등 7종류 고래의 유영하는 모습을 영상모니터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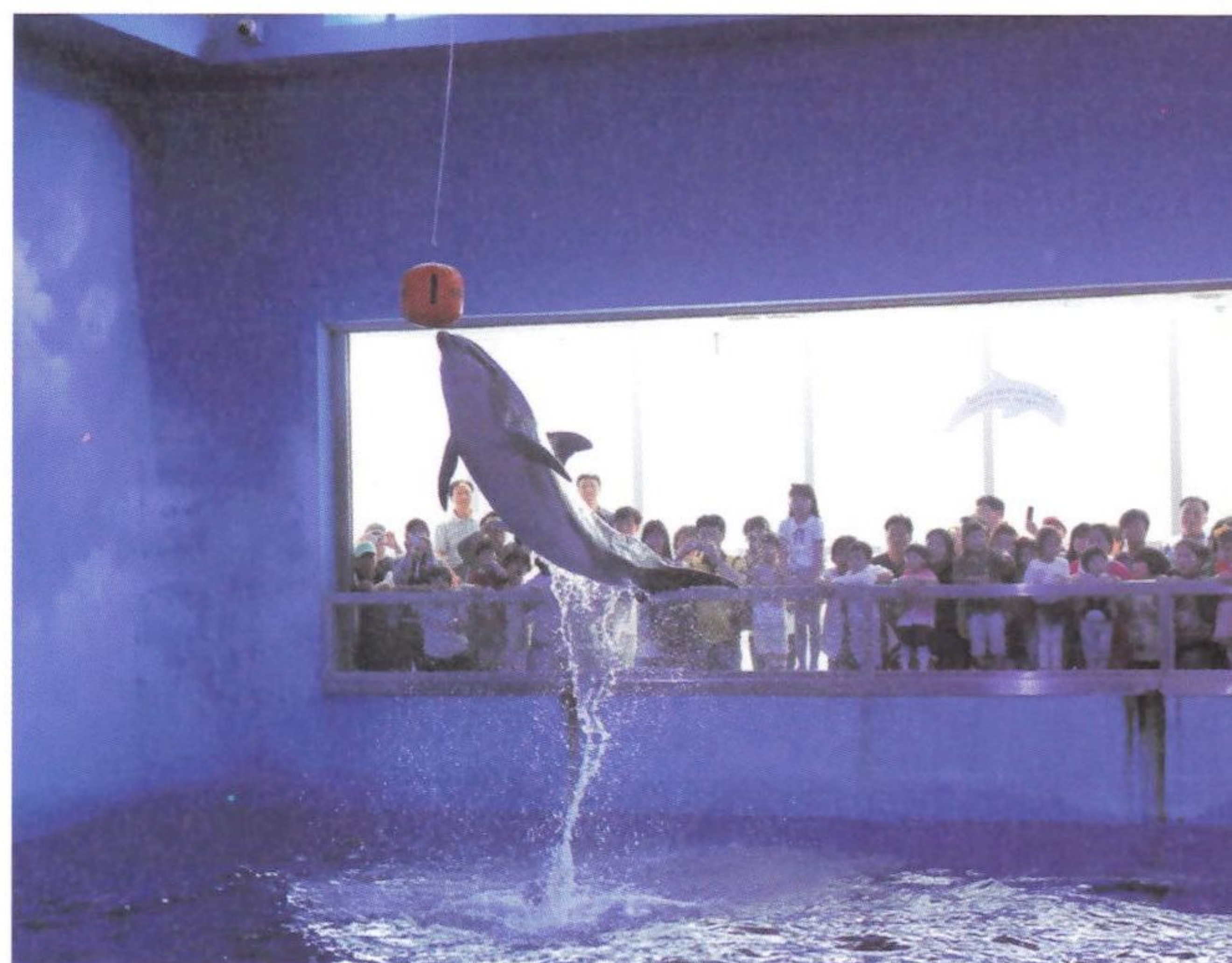
2층에는 3차원 입체영상에 진동과 바람, 물방울까지 느낄 수 있는 4D영화관이 들어서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4D영화관에서는 고래류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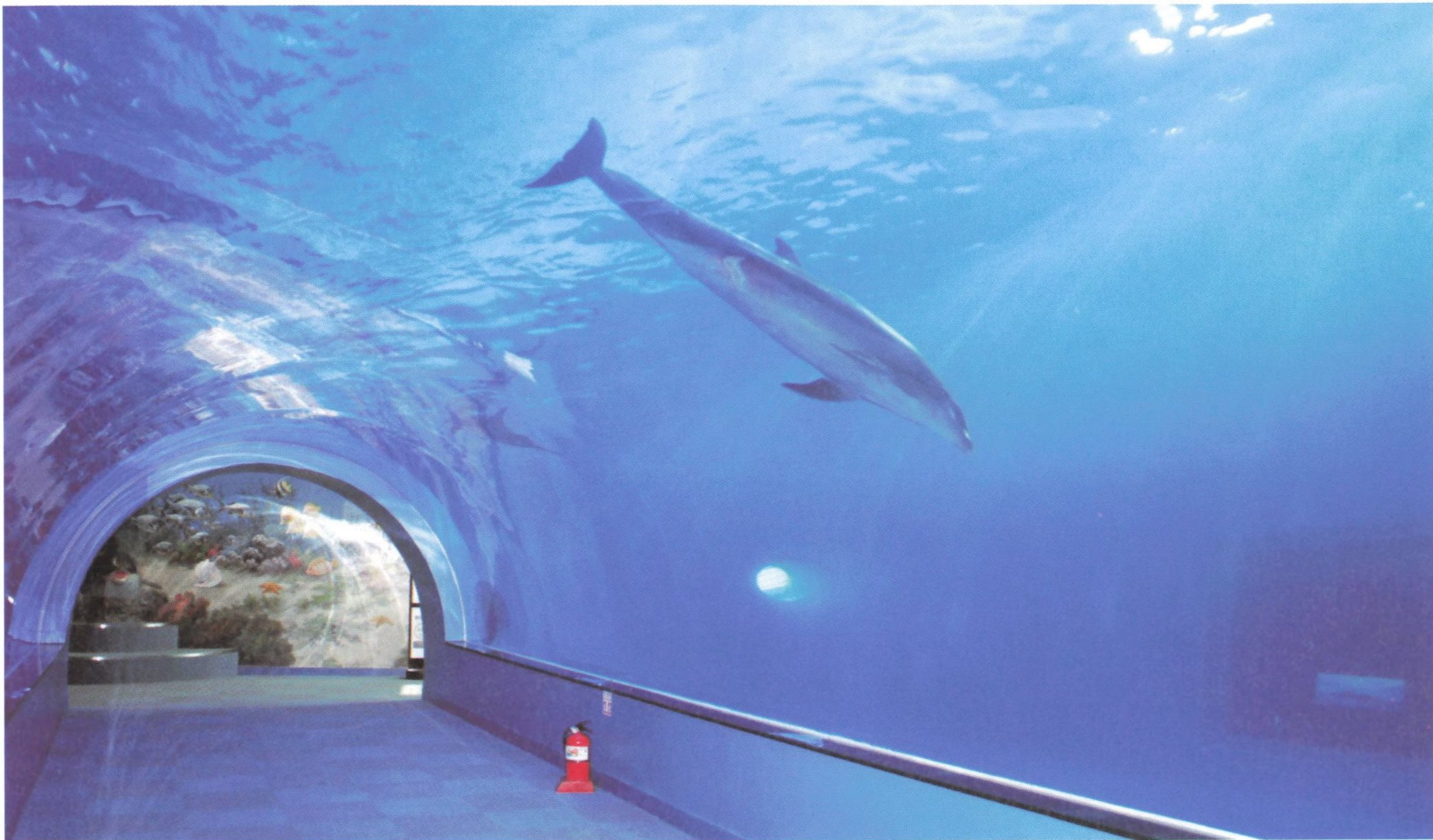
고래박물관 입구에 전시된 길이 13.5m에 달하는 귀신고래 실물모형



고래생태체험관 내부



조련을 받은 돌고래들이 조련사와의 악수, 뒤집기, 점프 등 묘기를 선보이면서 관람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 내부 해저터널에서 유영하는 돌고래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데 3천미터 심해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고래인 향고래와 가장 큰 연체동물로 알려진 대왕오징어의 심해 결투를 담은 영상물을 통해 생생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고래와 함께 살아온 장생포 사람들의 모습을 디오라마로 재현해놓은 제 2전시관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고래잡이로 활기찼던 장생포 고래마을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제 3전시관인 연안바다수족관은 고래생태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우리 바다와 울산 연안의 회유고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영상과 패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아열대류와 연안바다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류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고래생태체험관은 개관 6개월만에 18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지역 명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래생태체험관 개관과 함께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고래바다여행선을 상시로 운행하면서 관람객들이 발길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고래바다여행선은 장생포항을 출발해 고래떼가 자주 목격되는 울기등대 동쪽 5~7마일 지점을 돌아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래탐사선으로, 최근 고래떼가 자주 목격되어 예약선

청이 많다. 지난 5월 10일에는 울기등대 14.5마일 해상에 참돌고래떼 2천여마리가 목격돼 고래탐사관광에 나섰던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고래바다여행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주말 주 3회 운항한다.

특히 7월 1일부터 천안함 침몰사고로 연기되었던 울산고래축제가 나흘간 장생포 일대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최근 울산 앞바다에 고래가 자주 출현하면서 올해 축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울산고래축제는 반구대암각화에 새겨진 고래를 모티브로 옛 선사인들의 고래를 향한 염원을 기리고 시민과 소통하기위해 마련된 지역문화예술축제로 매년 4월 풍성한 문화행사를 가져왔다. 고래생태체험관과 고래박물관이 자리한 장생포에서도 고래 풍선 날리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열린다.

7월 울산고래축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고래를 찾아 울산 장생포로 떠나보자.(글, 사진/정복엽)

■ 문의/장생포 고래문화특구

(052-226-5672, www.whalecity.kr)



우리를 일깨워주는 한국의 음식문화

다이앤 스틸명크스 _ 국제부인회 회원, 미국인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남편과 나에게 있어서 부산은 이미 1년 동안 삶의 터전이 되었고 우리는 여기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을 좋아하게 된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한국 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몸에 대해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뚱뚱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몸매를 가지려고 집착합니다. 방송매체조차도 그 압박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건강에 관하여 신선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내 친구들은 항상 김치나 비빔밥 같은 음식이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단지 영양적인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역사 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난 김치에 대한 첫 경험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김치가 그 하나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그것 하나만 따로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음식과 같이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안 지금은 그 맛을 꽤 즐길 수 있습니다.

작년 한국에 오기 전 당수치가 상당히 높아 주치의가 나에게 당뇨병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들은 인삼을 비롯해서 뽕잎 차까지 모든 것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미국 휴가에서 돌아왔는데 내 주치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체중이 13kg이나 줄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당뇨병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당수치가 평균이하라고요. 주치의는 내 혈액검사 수치에

놀랐습니다. 이 결과가 꼭 한국친구들이 준 뽕 잎차나 김치 덕분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맛있는 김치를 담아 친절하게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난 5월 미국에 휴가 갔을 때, 나는 음식을 차려 내는 방법이 한국식과 미국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은 수저 한 벌과 밥 한 공기 혹은 비빔밥 한 그릇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에선 개개인이 혼자서 먹을 꽤나 많은 양의 음식이 담긴 접시 하나가 주어집니다. 한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감자튀김을 주문한다고 해도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이 주문한 샌드위치나 햄버거와 함께 각자 자신의 접시에 가득 감자튀김을 갖게 됩니다. 가정적 식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같이 먹을 수 있는 공동의 그릇이 아니라 개개인 접시에 담긴 것을 먹게 됩니다. 나는 좀 더 유대감과 나눔을 고취시키는 한국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미국사람들이 매우 자기중심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나의 집', '내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우리 집', '우리 가족' 처럼 모든 것을 '우리'로 지칭합니다. 식사의 공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각자 '자신의 내 식사' 인 반면에 여기 한국에서는 나눔의 식사인 '우리 식사' 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 해볼 때, 음식이나 음식에 관한 태도라든가 또 음식을 차리는 방식에서조차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좋은 것들을 아주 많이 알게 되었고 그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여기 부산에서 남편과 같이 살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제5회 부산국제무용제

조봉권 _ 국제신문 문화부 기자

‘국제예술축제’의 구성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국제’와 ‘예술’과 ‘축제’다. 그러므로 국제예술축제를 평가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성취도를 가늠하면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여기서 ‘축제’의 측면은 시민 참여도와 만족도를 나타낸다. ‘예술’의 측면은 참가작품과 기획의 수준을 의미한다. ‘국제’는 참가한 여러 나라 예술가들끼리 또는 이들 예술가와 관객이 실속있게 교류하고 친교를 나눴는지 재는 기준이다.

지난 6월 4~8일 제 6회 부산국제무용제(BIDF, 운영위원장 이윤자 부산대 교수)가 해운대해변 특설무대와 부산문화회관 등지에서 열렸다. BIDF는 6회를 맞으며 신생 축제 티를 벗고 자 한 것인지,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것은 성공했는가.

먼저, 국제의 측면. 올해 BIDF는 BIDF카페를 낮 시간에 두 차례 실시해 해외팀이 시민과 만나고 자기들끼리도 사귄 수 있도록 했다. 호응이 좋아 모든 해외팀이 한 번씩은 자리했고, 적극적이었다. 프랑스 안무가 얀 뢰뢰를 초빙해 부산의 젊은 춤꾼들과 2주 동안 신작 ‘Instinct’를 제작해 축제기간 두 번 발표하게 했다.

국제예술축제에서 ‘국제’의 측면은 중요하다. 예술가들끼리 어우러져 정보를 교환하고 친교를 나누는 격의 없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 이게 쌓여야 축제는 영향력이 생기고 더 많은 예술가의 참여를 유도해 국제적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런 자리나 과정이 없으면 국제 예술축제로서 자격이 훼손되는가”라고 묻는다면 필자는 “그게 없다면 개별공연을 여러 개 합친 확장된 공연이지 국제예술축제라 인정하기 힘들다”고 답하겠다. 멀티플렉스에서 국내외 영화 여러 편이 동시에 상영된다고 그걸 국제영화제라 할 수는 없다.

올해 BIDF의 국제교류라는 측면의 시도에는 좋게 평가할 것이 꽤 있지만 전체적으로 ‘충분했다’ 하기는 힘들다. 사무국은 이 과정을 장악하거나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이런 양상은 축제의 측면과 예술의 측면에서도 노출됐다. 먼저 축제의 측면. 올해 BIDF는 개막 석달 전부터 시내



부산국제무용제에 초청된 인도 마마타 상카르무용단

요지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춤문화 릴레이를 세 차례 실시했고 개막식에서도 시민참여를 유도했다. ‘댄스씨어터 오브 아일랜드’는 수차례 야외공연을 펼쳤다. 과감한 시도였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시도가 본행사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검증할 방법이 마땅찮다. 과연 그 시민 참여행사들은 BIDF 본행사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였는가. 높였다면 그건 의미 있는 수준이었나?

그리고 예술의 측면. 올해 BIDF에는 11개 나라가 참여했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베네수엘라 등 색다른 나라도 참가해 지평을 넓혔다. 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부 야외 공연 앞에서 여전히 어려워했다. ‘야외공연에 걸맞은 작품을 선별해 늘려야 한다’ ‘주제공모를 거쳐 행사성격에 부합하는 작품을 일부라도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사무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큰 그림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필자가 올해 BIDF를 총평하자면 ‘대담한 시도와 긍정적인 성과가 많았고 한 단계 발전했다’는 쪽이다. 하지만 어딘가 위태롭고 불만족스럽다. 내년엔 어찌 될지 짐작이 잘 안 간다. 사무국이 행사 전체의 내용, 의미, 진행을 수미일관 잘 장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마다 행사는 치러내겠지만 이를 통해 부산에 축적되는 성과는 적어진다. 성과를 바탕으로 진지한 자기평가와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승화된 망각의 시간 <시>

김희진 _ 영화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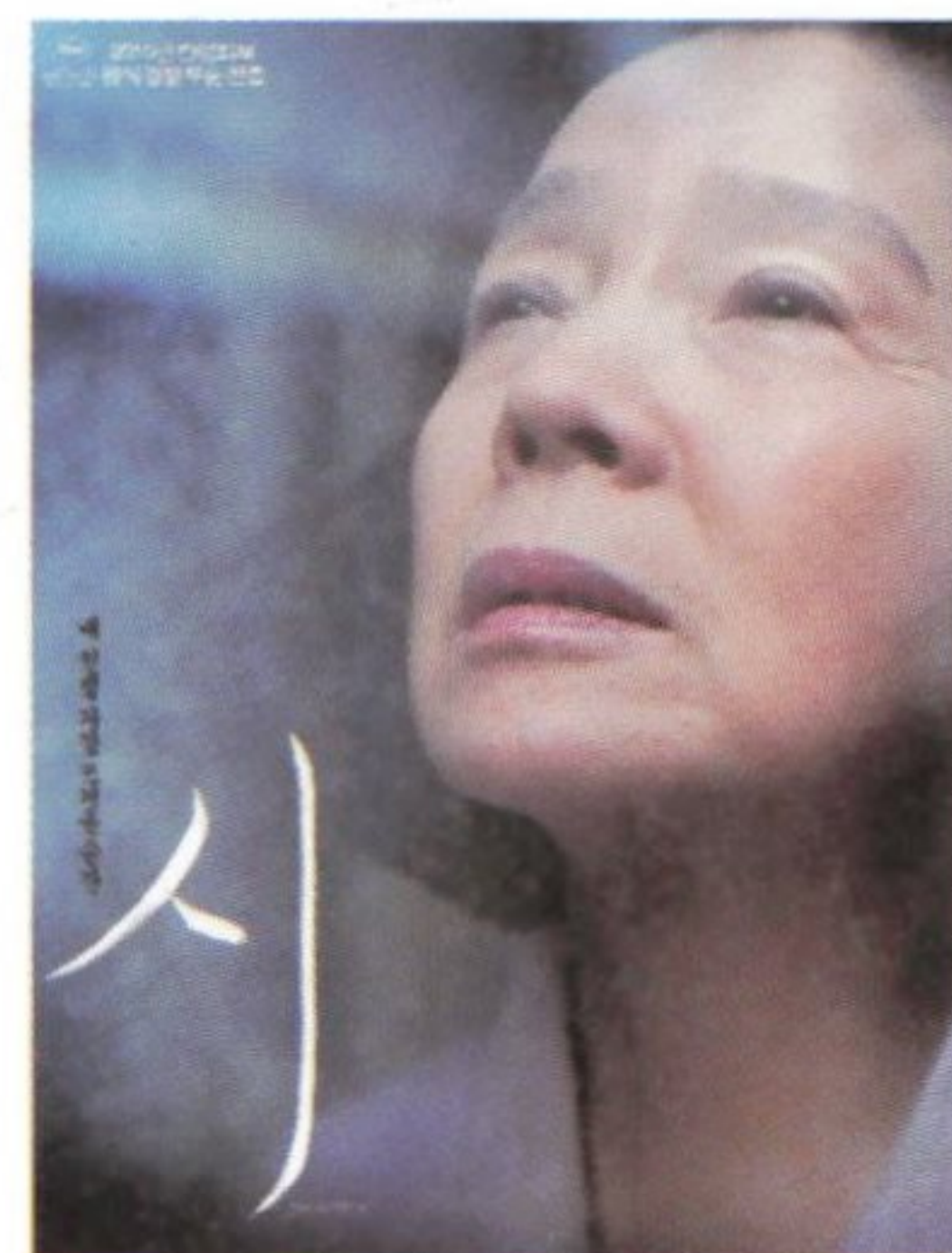
무언가를 잊고 산다는 것은 마음을 가벼이 하기 위해서인가,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계획된 망각이 자존을 위한 방법이라면 불현듯 찾아오는 잊혀짐은 존재의 혼란을 초래한다. 소위 치매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망각의 시간은 고통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억하려 해도 떠오르지 않는 기억으로 오히려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고통스러운 것을 잊고자 했으나 결코 잊혀지지 않거나, 잊고 있었다는 어떤 사실이 갑자기 떠오를 때 생기는 죄책감은 인간이 기억하면서 동시에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 저주스러워 지기도 하는 것이다.

영화 <시>는 잊는 방법과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일깨워 주는 영화다. 소소하게 단어를 잊는 미자의 정신 상태는 치매 초기라는 진단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었기도 하며 그녀가 감내해왔던 삶의 무게를 더는 과정일 수 있다. 대신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기억이 언제나처럼 찾아오고 인생의 경험이 만들어준 요령으로 이를 잘 극복해 나가고자 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기억은 어쩔 수 없는 법, 결국 그녀는 '시'라는 예술 언어를 통해 가까운 손자나 주변 인물들로 한정된 관계가 아닌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편의 언어를 창조하는 길을 택한다.

누군가의 가해자로 또는 그 가해자의 보호자로 관계지어진 자들은 대부분 그들이 가해한 사실에 대한 회고 보다는 가해 이후 찾아오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만을 모색한다. 그 형태는 반성이 없는, 치유의 과정이 아닌 무마의 책략이며, 흔히 좋게 좋다는 전혀 논리적 개연성 없는 주장으로 모든 걸 합리화한다. 자연스레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가해진 폭력이나 무관심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지 잊혀져야 할 망각의 대상이 된다. 누구보다 빨리 확실히 망각할수록 미래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믿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창동 감독은 <시>에서 시를 통해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이야기를 건넨다. 환유의 매체인 영화는 이러한 기획에 적절히

이용된다. 마치 사실적인 묘사인 듯 보여지는 가상의 이야기는 망각 속에 지워진 우리 기억의 한 부분을 호출하는 작용을 해낸다. 중산층 시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은 터지 않게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이 기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맘 편히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다. 하지만 영화 <시>를 통해 우리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 삶의 태도인지를 깨닫게 된다. 한 해 전 우리가 떠나보낸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라도, 시를 통해서라도 우리 적절한 행동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이 영화를 만들고, 시를 만드는 것이어도 좋다.

기억하게 되면 고통이 되는 일들이 많다. 우리 시를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되새김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때가 있다. 사물을 관찰하고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언어를 찾아내는 시 창작의 행위처럼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도 우리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듬고 어루만지며 적당한 언어를 찾아서 표현해 나가야 한다. 영화에서처럼 피해자 가족에게 적당한 위로금을 건네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위로를 보내고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은 망각이라는 수단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영화 <시>는 잊혀짐의 아픔과 그 치유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삶의 풍경을 좀더 분명히 기억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의 교훈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은 누군가 그 기억을 어떤 언어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미자가 겪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은 시를 통해 망각의 강을 넘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다시금 기억하는 법을 익히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삶의 경험에서 우리나는 진실된 연기 실버연극단 콩깍지



‘제 5회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던 지난 6월 15일, 어르신 700여명이 가득 자리를 메운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기행각을 고발하는 연극 ‘우째 이런 일이’가 무대에 올랐다. 한번쯤은 겪어봄직한 내용에 객석에서는 연신 공감의 탄성이 새어나온다. 특히 동년배의 배우들이 펼치는 열연에 관객들은 어느새 작품과 하나가 된다. 조금은 서툴지만 삶의 경험에서 우리나는 진실된 연기로 주목받는 실버연극단 ‘콩깍지’ 단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들이다.

지난 2005년 첫 발을 내딛은 ‘콩깍지’는 젊은 시절 가졌던 연기에 대한 꿈을 이루고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연극을 만들고자 실버벨노인복지관이 결성한 실버연극단이다. 이름 그대로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가입할 수 있는 ‘실버’연극단이다.

현재 실버연극단 ‘콩깍지’에는 이금주, 강정선, 이숙자, 전숙자, 양춘자, 김귀연, 권윤오, 최계숙, 노영순, 신현용, 이외숙, 김우분, 민창자, 박인수, 최재옥 등 감출 수 없는 열정과 끼로 푹푹 뭉친 15명의 어르신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복지관에 모여서 연습을 갖는다.

극단 이름인 ‘콩깍지’에는 ‘콩깍지 깎 때의 툭툭 튀는 느낌과 그 속에 숨어있는 콩들을 꺼내보는 재미처럼 극단 생활을 통해



젊은 시절 가졌던 연기에 대한 꿈을 이루고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연극을 만들고자 실버벨노인복지관이 결성한 실버연극단 '콩깍지'

즐거움을 느껴보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기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에 썩이듯 실버극단이라는 편견없이 관객들이 사랑의 시선으로 '콩깍지'의 작품활동을 지켜봐줬으면 하는 단원들의 바람도 포함되어 있다.

첫 해 극단을 결성하고 호흡, 발성 등 연극의 기본부터 배우기 시작한 '콩깍지' 단원들은 본격적으로 외부공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무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 2005년 창단공연 '쫓겨난 여우왕자'를 시작으로 2006년 '심청이 놀이', 2007년 '호랑이와 토끼', 2008년 '방귀 잘 뀌는 며느리' 등 초창기에는 우리의 전래동화를 각색한 작품들을 주로 무대에 올렸다. 특히 이 작품들은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연'에서 관객인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전할 수 있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지난해부터는 연극 '이수일과 심순애' '우째 이런 일이' 등 새로운 작품을 통해 레퍼토리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다. 특히 생활 속에서 겪은 현실적인 소재를 작품화한 창작극 '우째 이런 일이'는 올해 들어 부산연극제 시민연극제 수상에 이어 제 2회 거창실버연극제에서 단원 권윤옥 씨가 개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앞서 지난해 부산연극제 시민연극제와 제 1회 거창실버연극제에서도 아동극 '방귀 잘 뀌는 며느리'로 참가, 시민연극제에서는 단체 장려상, 거창실버연극제에서는 단원 노영순, 최재옥 씨가 개인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열린 부산국제연극제 시민연극제에서 작품 '이수일과 심순애'로 경성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는 등 점차 그 실력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대사와 몸짓이 매력인 실버연극단 '콩깍지'는 최근들어 각종 연극제 수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실버극단 '콩깍지'의 연기지도를 맡고 있는 연출가 김동민 씨.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대사와 몸짓이 콩깍지의 매력"이라는 그는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큼은 젊은 배우들이 배워야되는 장점이라 생각한다.

창단멤버인 양춘자 씨(70세). "아직까지는 대사 외우기가 가장 어렵다"는 그는 무사히 연기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그 성취감과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한다. "작은 역할이라도 내가 없으면 연극을 올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는 자녀들의 응원과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된다.

극단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창단멤버 신현용 씨(77세). "지금도 무대에 서는 것이 떨리지만 조명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는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 가끔 이견도 있지만 오랜시간 함께 해온 동료와는 요즘은 눈빛만으로도 서로 호흡이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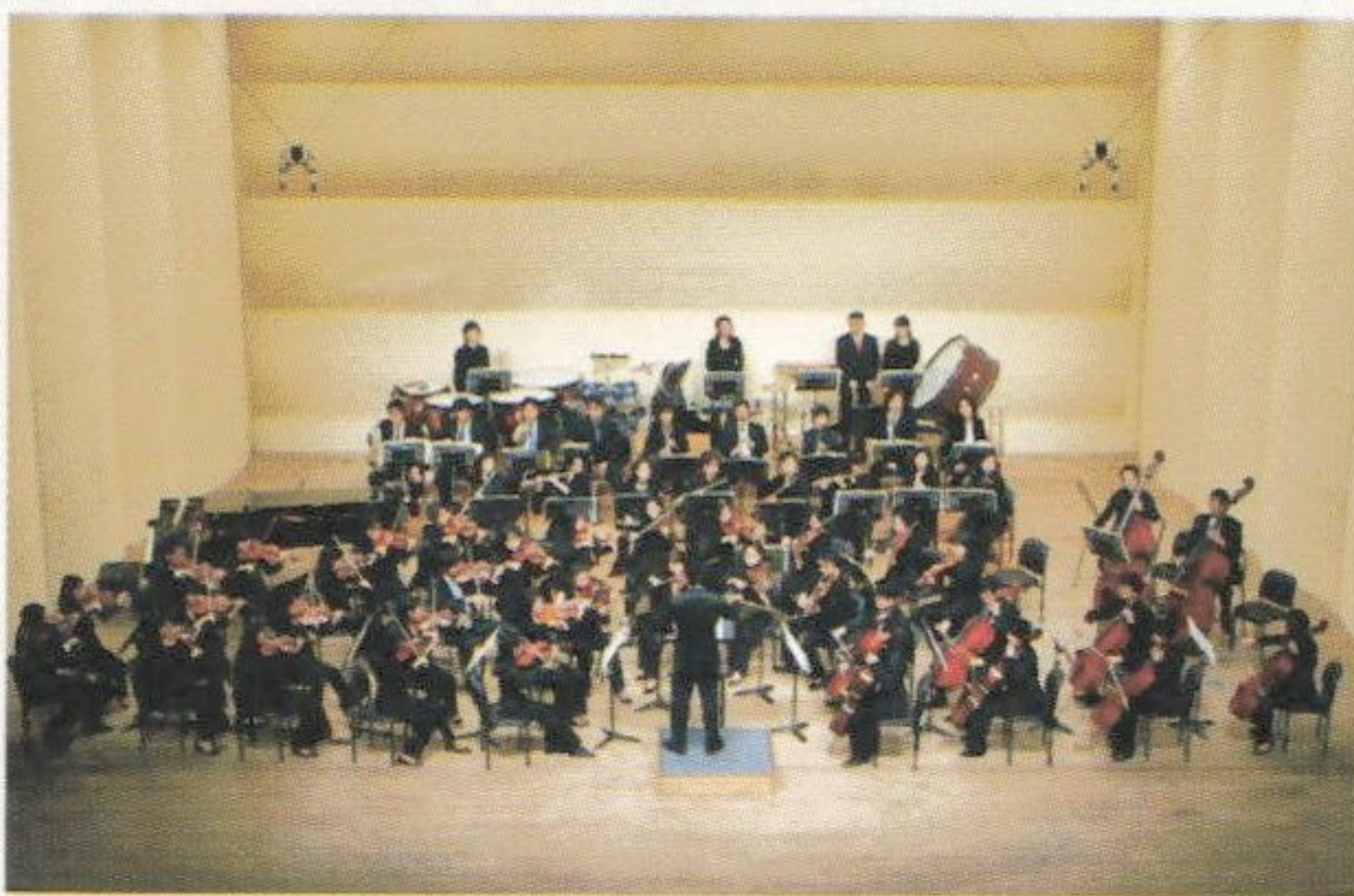
극단 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2년 남짓 된다는 막내 단원 김우분 씨(63세). 복지관에서 동화구연을 하다 연극단과 인연을 맺은 그는 늦게 들어온만큼 선배들의 조언이 가장 큰 힘이 된다. 특히 어린시절부터 가져왔던 꿈이기에 반복되는 연습과 공연에도 행복하기만 하다.(글/정복엽)

■ 문의/실버벨노인복지관 실버연극단 콩깍지

(337-5959, xn--hk3bqct1u.kr)

부산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7월 4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순수 아마추어 클래식 오케스트라인 부산아카데미오케스트라의 제 12회 정기연주회.

부산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과 운영을 맡고 있다.

프로그램

주페/시인과 농부 서곡

모차르트/플루트협주곡 제 1번 1악장

모차르트/교향곡 제 25번 1악장, 3악장

비제/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브람스/헝가리무곡 제 1번, 제 4번 등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교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총예술감독)

· 협연/이기영(동아대학교 대학원 재학)

■ 관람료 초대

■ 문 의 부산아카데미오케스트라 (017-842-6688)

노엘합창단 제 51회 정기연주회 재미 이해종 교수 초청연주회

7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찬양을 통한 선교, 음악을 통한 사회 정서 함양’을 목표로 1961년 부산지역 남녀 고교생으로 결성된 노엘합창단의 제 51회 정기연주회.

그동안 부산의 합창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노엘

합창단은 1999년부터 동문출신 성인합창단으로 재구성, 원숙한 무대를 선보여 왔다.

이번 무대는 일리노이대학 합창단과 오페라 합창단 지휘자, 웨스턴 리저버 오페라단 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고 2002년부터 오하이오 영스타운 주립대학교 합창지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해종 교수가 지휘한다.

프로그램

알렌 포테/평화의 기도

존 루터/나의 영으로 주를 찬양

이수인/내맘의 강물

진규영/밀양아리랑

에릭 휘테커/다섯 개의 히브리 사랑의 노래

· 지휘/이해종

· 반주/윤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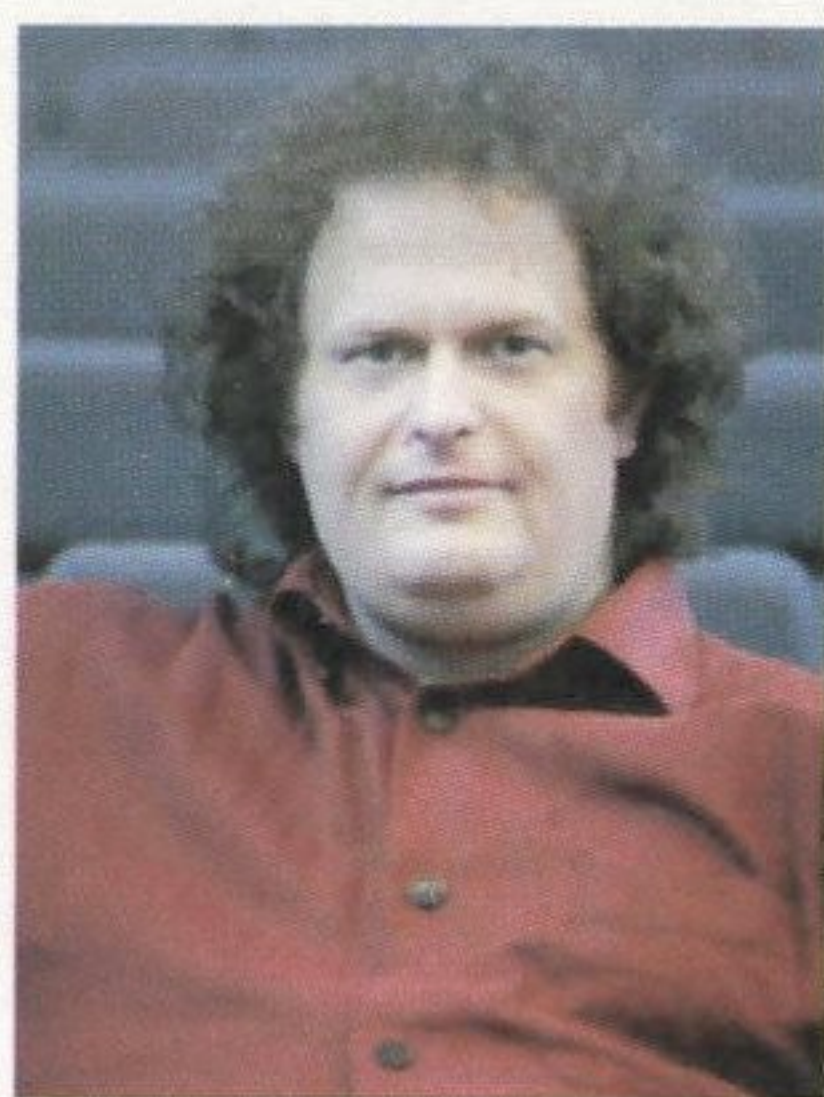
· 특별출연/변애영(피아노), 한소라(바이올린)

■ 관람료 초대

■ 문 의 노엘합창단(010-4183-229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1회 정기연주회 BBB IV

7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베토벤, 브람스와 만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0년 프로젝트 BBB 네 번째 무대. 협연자 없이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베토벤의 초기 교향곡 2번과 브람스 교향곡 중

가장 힘이 있고 웅장한 교향곡 3번으로 교향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BBB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슈테판 말체브는 독일 베를린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로 기셰터 극장의 수석감독, 슈베린의 메클렌부르크 국립극장의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2001년부터 노이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닉 수석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타고난 음악성과 활력, 성실함이 지휘 속에 깃들어있는 말체브는 남독일 신문으로부터 ‘브란덴부르크의 새롭고 경이로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격찬을 받으며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 2번

브람스/교향곡 제 3번

· 지휘/슈테판 말체브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9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7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내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단원들이 협연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다양한 악기의 협연자들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로자로/마림바 협주곡 중 제3악장

비발디/피콜로 협주곡 중 제1악장

카발레프스키/첼로 협주곡 제1번 중 제3악장

하이든/트럼펫 협주곡 중 제1악장 외 5곡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손혜민(바이올린, 부산예고 3학년),

윤희원(바이올린, 부산예고 2학년),

김량하(비올라, 부산예고 2학년),

정화음(첼로, 부산예중 3학년),

정수진(피콜로, 경성대 4학년),

박소담(오보에, 경성대 4학년),

양희경(바순, 부산대 4학년),

전상윤(트럼펫, 경성대 4학년),

박병진(마림바, 인제대 4학년)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부산시립무용단 2010 풍류(風流) 제1회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7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시민무용교실에서 우리 춤 강습을 마친 수강생들과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함께 마련하는 2010 풍류(風流).

우리 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풍류(風流)는 시민무용교실 강습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며 무용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진도북춤(출연/곽광숙, 김명숙, 김복실, 김선애, 김정순, 박성화, 박순옥, 송정숙, 윤정하, 황미숙 · 악사 특별출연/김윤희, 김미란, 허태성, 장영진, 황대현)

도살풀이(출연/감성희, 김기련, 김숙희, 박선희, 신금조, 신영숙, 조공심, 최필선)

특별공연 처용무(출연/이정식, 박상용, 강모세, 류권홍, 최의옥)

특별공연 꽃타령(출연/이상민, 김도은, 김시현)

· 예술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 무용지도/홍기태(수석안무자), 서정숙, 정진희

■ 관람료 균일 3,000원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영원한 DJ 도병찬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POP합창

7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합창단이 5월, 7080 가요합창음악회에 이어 Old Pop 팬들을 위해 들려주는 새로운



김강규

도병찬

형식의 팝 합창음악회 '이야기가 있는 POP합창'.

KBS FM 팝음악 진행자 도병찬이 1970, 80년대의 추억이 어린 음악다방으로 안내하는 이번 무대는 여름휴가의 낭만이 담긴 'Summer Holiday' 'Beyond the Sea(La Mer)' 'Theme from Summer Place'부터 카펜터스를 추억하는 'Super Star' 'Close to You' 'Top of The World'까지 Old Pop 팬들의 추억이 담긴 명곡에 아름다운 화성과 풍성한 합창단의 화음을 더해 새로운 느낌의 팝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여름휴가/Summer Holiday, Beyond the Sea(La Mer), Theme from Summer Place
카펜터스를 추억하며/Super Star, Close to You, Top of The World

지중해의 노래/Me T'Aspro Mou Mantili(그리스), La Novia(이탈리아), Eres tu(스페인)

기타로 듣는 Pop/Moon River, We'll All Alone
여름밤의 추억/One Summer Night, Summer Time, Summer Nights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해설/도병찬

· 특별출연/홍광현(어쿠스틱 기타), 김진훈(드럼), 김정태(포크기타)

· 편곡/문지은, 백현주, 최석태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극단 마술이야기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공연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10, 11:10 소극장

극단 마술이야기가 어린이들을 위해 펼치는 마술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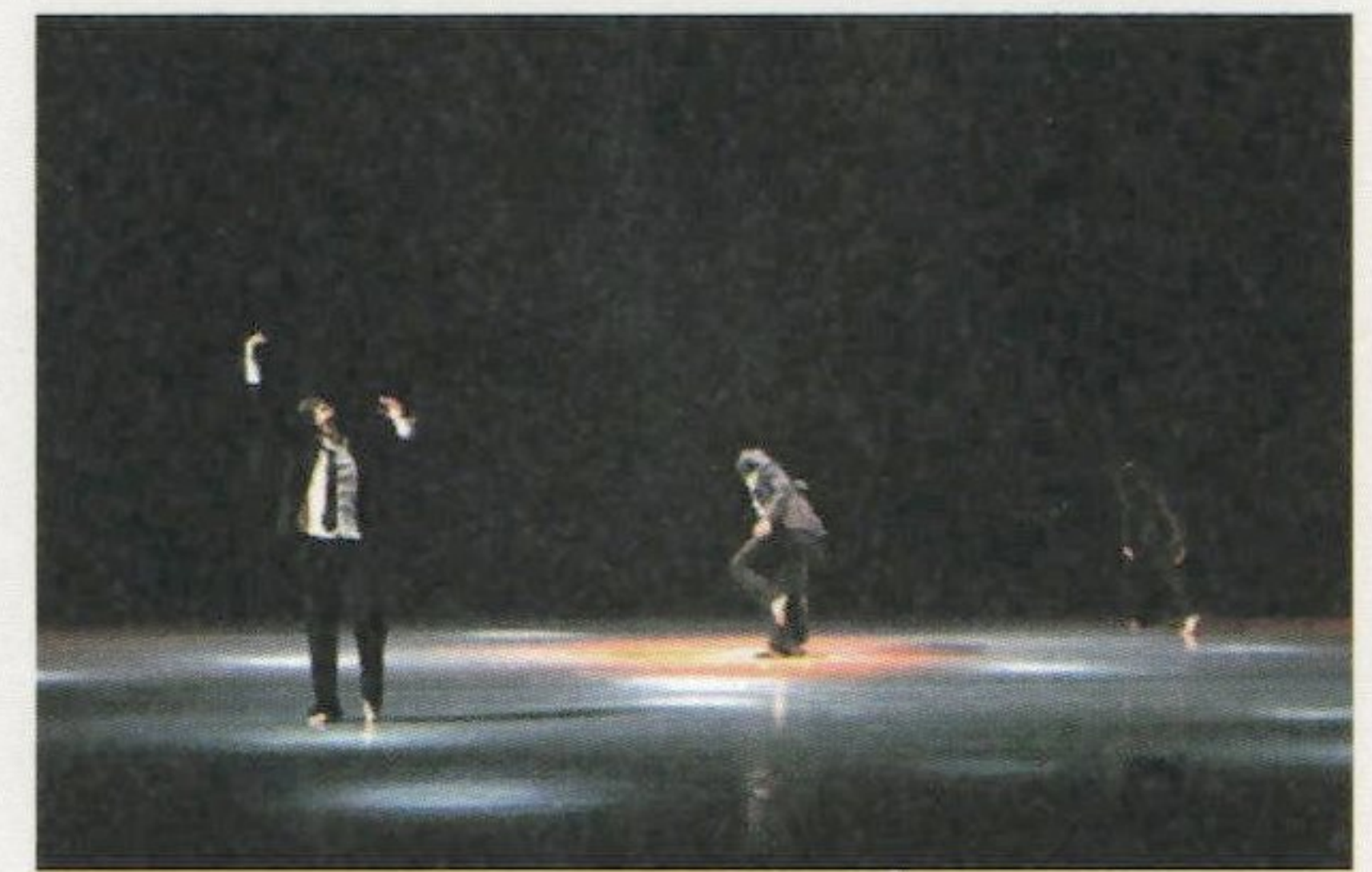
비둘기 마술, 가면 마술, 관객참여 마술, 공중부양마술 등 다양한 마술들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 관람료 일반 7,000원 · 단체 3,500원(20인이상)

■ 문의 마술이야기(010-9093-8277)

2010 제 19회 부산무용제

7월 14일-15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9년 부산무용제 대상팀 휘댄스컴퍼니 '미친 개미들'

부산 무용인들의 최고 축제의 장인 2010 부산무용제.

올해는 국립부산국악원 개막축하공연 '통영승전무', 부산시립무용단의 폐막축하공연 부산시립무용단 '천지현황'과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장르 4개팀의 새로운 신작이 무대에 오른다.

출품작품

박성호 무용단 '점(點)-홀 · 모으다'(작, 대본/정재형 · 안무, 연출/박성호 · 출연/하연화, 박성호, 이동용, 박상용, 황대현, 장영진, 안주연, 손영일, 조유섭, 남진아 외)

김지나 발레단 '한 여름밤의 꿈'(안무/김지나 · 출연/김영지, 김창성, 이종혁, 공문정, 임희진, 제남정, 김사라, 변재진 외)

부산발레연구회 '한류(韓流)'(안무/김남영 · 출연/김정숙, 김남영, 박종위, 김창성, 손영일, 배민우, 김한나, 백향은, 송지혜 외)

Mom-burim Dance Project(몸-부림 현대무용단) '검은 숨소리'(안무/이상미 · 출연/방정일, 최정식, 신상현, 박강호, 손영일, 염지균 외)

개막공연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통영 승전무'(출연/김현숙, 신윤정, 김주희, 이선영, 배수현, 유여

진, 박유경, 임해성, 장보름이, 박혜미 외)
폐막공연
 부산시립무용단 '천지현황'(안무/홍기태 · 출연/
 서정숙, 장래훈, 김주령, 김동숙, 김진영,
 오숙례, 강미향, 김공주, 이성원, 이화성,
 오수연, 김주연, 윤은하, 이현주 외)

축하공연
 2009년 대상 팀 휘트니스컴퍼니 '미친 개미들'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 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이야기 휘릭 휘릭, 피리 가족 이야기

7월 15일 목요일, 21일 수요일 오전 10:30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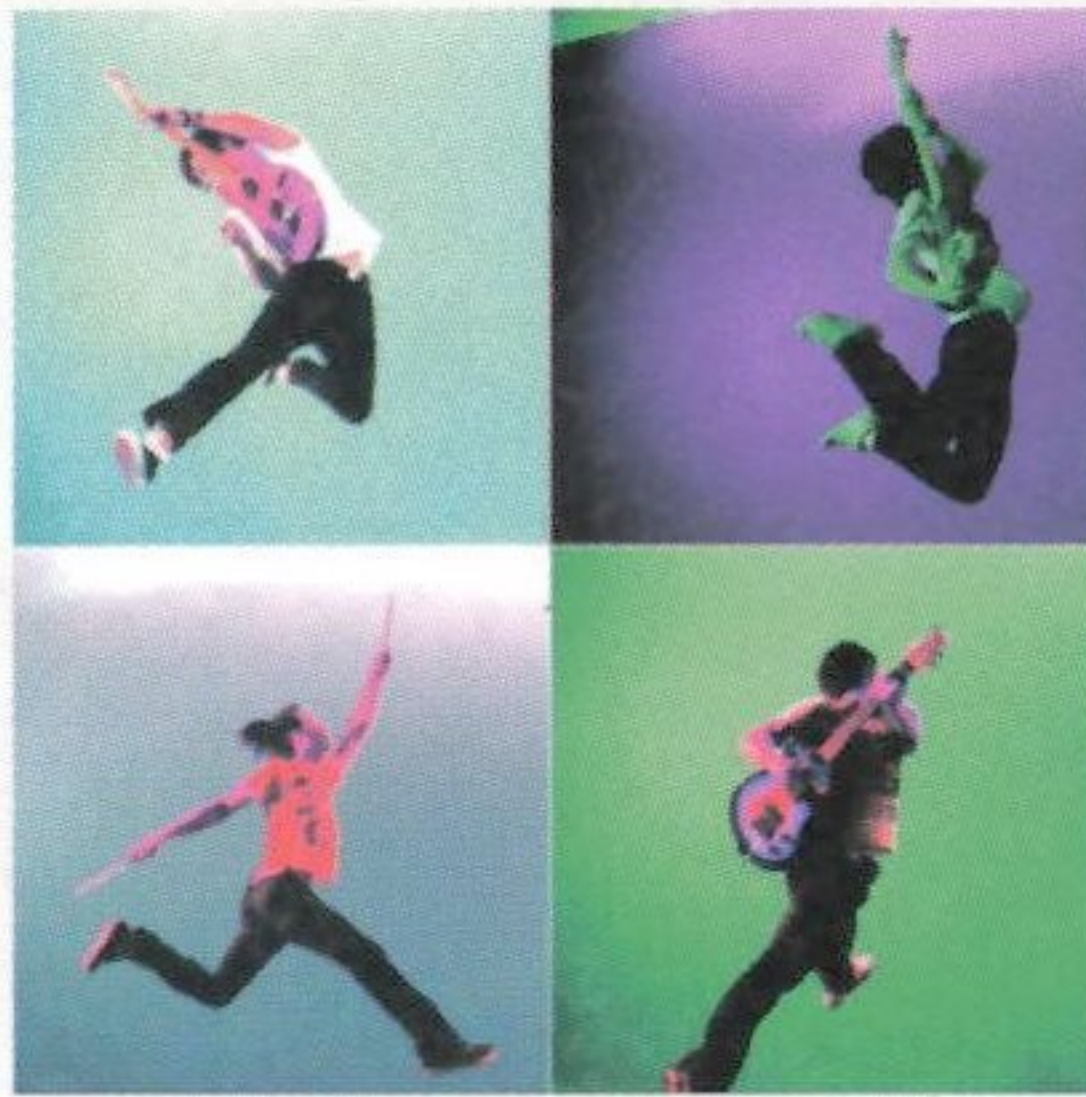
플루트, 오보에 등 오케스트라 가족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 이야기-휘릭 휘릭, 피리 가족 이야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음악회로 인기
 물이를 하고 있는 '악기가족 이야기'는 부산색동
 어머니회 회장 이소영의 동화 구연과 아동의 눈
 높이에 맞춘 악기 설명,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
 불팀의 연주와 악기 체험으로 어린이들에게 오
 케스트라의 이해를 도와주고 클래식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다.

새롭게 선보이는 '휘릭 휘릭, 피리 가족 이야
 기'는 부모님 오보에와 클라리넷, 할아버지 바순
 과 함께 사는 플루트이야기를 구연동화로 풀어
 낸다.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 관람료 1,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1 국카스텐 Guckkasten

7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인공 국카스텐 부산무대.

하현우(기타, 보컬), 전규호(기타, 보컬), 김기범
 (베이스), 이정길(드럼, 보컬)이 활동하고 있는 국
 카스텐의 밴드이름은 '중국어 만화경'을 뜻하는
 독일 고어에서 비롯되었다. 평소 예술 방면에 관
 심이 많았던 보컬 하현우가 헤이그의 '예술과 불'
 이라는 작품에서 크게 감명을 얻어 명명하였다.
 옛 중국식 만화경에 맞는 상은 불꽃놀이와도
 같았다는 문헌 기록을 모토로, 아날로그함에 깃
 든 사이키델릭한 영상과도 같은 음악적 표현을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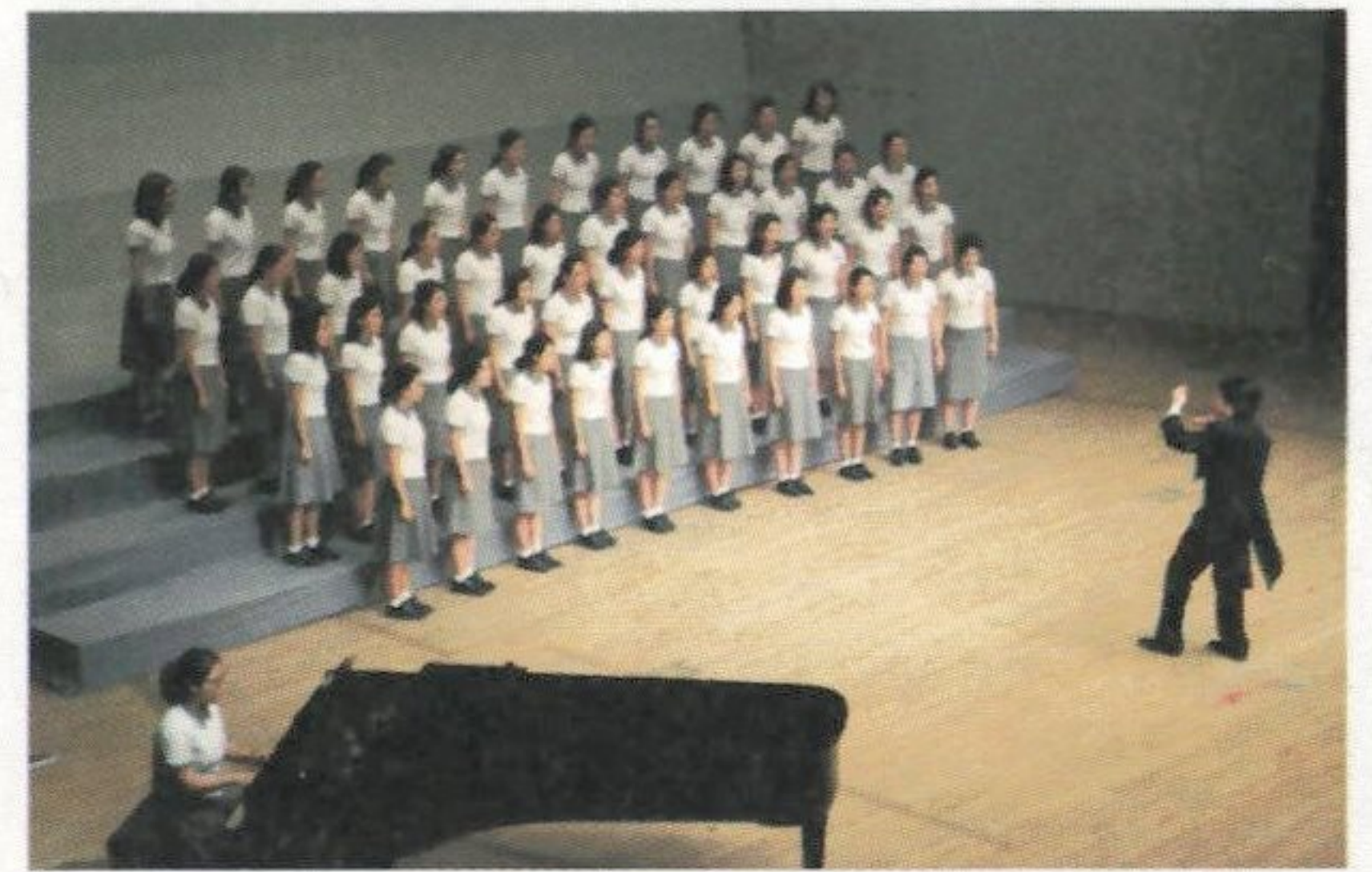
2008년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선정한 '올해
 의 헬로루키'에 등극한 국카스텐은 그 화려하고
 착란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로 동명의 정규 1집 발
 매와 함께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찬란하게 음악
 씬에 등장,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각종 방송과
 대형 행사, 공연 등의 음악적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음악성 있
 는 인디밴드
 들과 만나는
 부산문화회
 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11번
 째 무대의 주

제 6회 한국청소년 합창 콩쿠르

7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시상식 오후
 7:30) **중극장**



2005년 APEC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합창축제인 '한국 청소년
 합창콩쿠르' 여섯 번째 대회.

전국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합창단 22개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한국 청소년 합창
 콩쿠르'는 풍성하고 수준 높은 청소년 합창을 무
 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 초등부는 전년도 금상 수상팀인 안
 산 초당초등학교 합창단을 비롯하여 1회 대회 동
 상을 차지한 서울의 해돋이 합창단, 4회 대회에
 서 지휘자상을 수상한 거제시 소년소녀 합창단
 등이 출연하고, 중·고등부에서는 3회 대회 대상
 팀인 마산제일여고 합창단, 3회 대회 금상을 차
 지한 김해 월산중학교 합창단, 5회 대회 금상을
 차지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해연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참가팀

거제시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이형예)
 부산 동구 소년소녀 합창단(지휘/민수연)
 부산진구 어린이 합창단(지휘/박훈)
 신월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박윤규)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 국제찬양신학대학원

음악목사과정 (M.Div.) 2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 전 공 : 음악목회 찬양사역 음향영상 ■ 접수기간 : 2010년 6월14일~7월30일(인터넷접수 홈페이지참조)
- 특 전 : 목사안수(여자목사안수가능) / 국내외 정상급 신학 음악 교수진 / 직장인도 입학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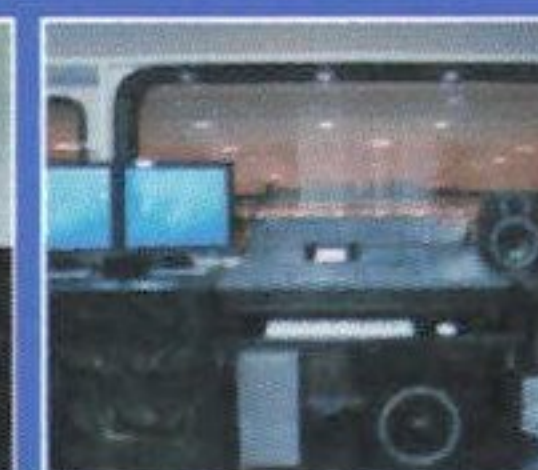
연 주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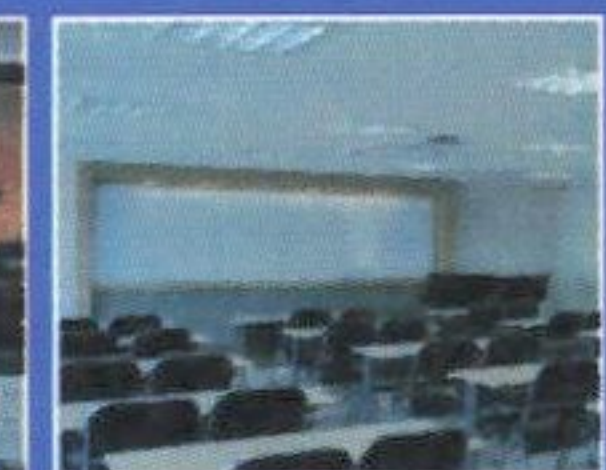
멀티미디어실



연 습 실



음향조정실



세미나실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www.icseminary.org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0 세원빌딩 3층
 Tel. 02-747-0691



국제찬양신학대학원

www.glovil.org / email:glovil@paran.com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글로벌아트홀
 Tel. 051-505-5995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안동MBC 영주 어린이 합창단(지휘/우경환)
 안산 초당초등학교 합창단(지휘/한안식)
 의왕문화원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여준엽)
 춘천 성림초등학교 합창단(지휘/김성미)
 해돋이합창단(지휘/최진숙)
 GS 울산방송 어린이 합창단(지휘/김현정)
 고한중학교 합창단(지휘/김은식)
 김해여자중학교 합창단(지휘/김지현)
 김화여자중학교 고운소리 합창단(지휘/황승환)
 나드림 미션콰이어(지휘/전경일)
 동산여자중학교 합창단(지휘/우경환)
 마산여자고등학교 합창단(지휘/천홍아)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합창단(지휘/임성길)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합창단(지휘/이종석)
 성명여자중학교 합창단(지휘/홍성수)
 울산 동중학교 합창단(지휘/김승환)
 월산중학교 합창단(지휘/최민성)
 포천시 소년소녀 합창단(지휘/방인구)

■ 관람료 무료
 ■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2010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무용극 평강과 온달

7월 22일-23일 목-금요일 오후 8:00

야외무대(※우천시 국제회의장)

매년 여름 부산 시민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선사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이 2010 새롭게 선보이는

여름마당춤판 무용극 '평강과 온달'.

'선녀와 나무꾼' '장화홍련' '별주부전' 등 우리 전통을 각색, 해학과 신명 넘치는 마당춤판을 열 어온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번 무대에서는 바른 심 성을 가진 온달이 공주와 결혼을 하여 나라를 구 하는 영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린 '바보 온달' 이야기를 무용극으로 선보인다.

단원들의 춤과 노래와 함께 경상대학교 이훈 의 '변검', 마술사 이병준의 '마술'로 '평강과 온 달'의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 안무, 구성/홍기태 (수석안무자)
- 연출, 각색, 대본/오정국
- 특별출연/이훈(변검, 경상대학교 대학원 민속 무용학과 재학), 이병준(마술사)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시립극단 38회 정기공연 조선형사 홍윤식

7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후 7:30

31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1933년 5월 경성 죽점정(지금의 서울 충정로) 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전봉 관의 책 '경성기담' 중 '죽점정 단두 유아 사건' 부분과 당시의 신문기사에 픽션을 더해 발표한 성기웅의 '조선형사 홍윤식'을 부산시립극단 정 기공연으로 만난다.



경성 죽점정의 금화장 고갯길에서 잘려진 아 기의 머리통이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 나자, 평소 안정된 치안을 자랑해오던 일본 경찰 은 근대적이고도 과학적인 수사를 표방하며 즉 각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다. 수사에 난항이 거듭 되자 서대문경찰서 사법계에 조선인 형사 홍윤 식이 새로 부임해오고 새로운 수사가 진행된다. 희곡을 쓴 성기웅이 연출을 맡아 부산시립극단 과 함께 흥미 진진한 수사를 전개해 나간다.

- 극본, 연출/성기웅
- 원텍스트/전봉관 '경성기담' 중 '죽점정 단두 유아 사건'

출연

이혁우(형사 홍윤식), 염지선(손말화-마리아), 유 성주(형사 임정구), 박찬영(형사 노마), 이돈희(도 까비), 정행심(무당 이성녀), 이현주, 김은희, 황 창기(빠꾸기), 유재명(객원배우, 이노우에 형사), 김상균, 허철녕 외

■ 관람료 균일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

2010년 하반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및 전시실 수시대관



■ 대관일자

- 중극장 : 9. 24, 12. 5~6, 12. 8, 12. 12~15, 12. 19, 12. 28~30 ▶ 총 12일
- 전시실 : 10. 1 ~ 12. 31(2차) ▶ 3개월

※ 중극장은 정기대관 실시 후 취소 등으로 인한 빈 일정에 대한 수시대관이며, 전시실은 리모델링 계획으로 인한 2010년 하반기 전시실 2차 대관임.

※ 전시실은 시 주최 전시 일정 우선 배정 ▶ 접수 상담 시 안내

■ 공고기간 : 2010. 6. 21.(월) ~ 7. 4.(일)

■ 접수기간 : 2010. 7. 5.(월) ~ 7. 9.(금)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구비서류 등은 정기대관과 동일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 607 - 6051~6

MUSIC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클림 색소폰과 금관4중주의 만남

7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팝인라이프 빅밴드 앙상블이 출연, 다양한 팝과 재즈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3일 프로그램

포구락,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평조 단소독주 '헌천수', 동래한량무, 실내악 '신밧놀이', 사물놀이 등

▶10일 프로그램

수제천, 태평무, 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화룡도', 진주교방굿거리, 남도민요 '동해바다' '각시풀타령', 태평소와 관현악, 설장구가락 등

▶17일 프로그램

향발무, 판소리 '수궁가' 중 '고고천변', 25현가 야금4중주 '신관동별곡', 좌수영어방놀이 중 '어부춤' '아낙춤', 실내악 '소리놀이' 등

▶24일 프로그램

승전무 중 '검무', 가곡 '태평가', 가야금산조, 동래학춤, 해금독주 '어린왕자', 동부민요 '괘치나칭칭나네', 삼고무, 사물놀이 등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우크라이나 글린카 필하모니 초청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7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2010년 3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아지무스오페라단이 법인 설립을 기념해 마련하는 백혈병 어린이돕기 특별공연.

지휘자 슬라바 레디아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글린카 필하모니를 초청, 오페라 카르멘, 라보엠, 아이다, 돈지오바니, 투란도트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협연/소프라노 한예진, 이한나김, 변향숙, 테너 김지호, 베이스 김태형
- 해설/김문경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에듀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 17회 정기연주회

7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9년 부산교육대학교 故 박종원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교사오케스트라 에듀필하모니에서 2010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 에듀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전통 클래식에서부터 우리귀에 친숙한 영화음악, 동요,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

려준다.

- 지휘/김지세
- 협연/이주미(피아노, 동래초등 6년)
- 찬조출연/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중창단, 큐티 엔젤스 중창단, 주하은(동래초등학교 재학)
- 관람료 초대
- 문 의 박진홍(010-4563-7966)

부산교사합창단 제 15회 정기연주회 - 최고의 합창을 향하여

7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들로 결성된 부산교사합창단이 우리 귀에 친숙한 우리가곡과 창작 합창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J. Leavitt/Festival Mass

백현주(편곡)/자장가 모음, 아름다운 강산
윤지영(편곡)/오 나의 태양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반주/양리라
- 관람료 초대
- 문 의 사무국장 이성환(010-7294-5088)

어울림국악연구회, 德島邦樂集團 한·일 합동공연

7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1986년 우리전통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연주자들로 창단된 어울림국악연구회와 일본전통음악인 방악을 사랑하는 일본 도쿠시마방악집단이 함께하는 한·일 합동공연.

1, 2부로 나뉘어 양국의 전통음악을 들려준다.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집박/이의경 · 지휘/후지모토 레이
- 해설/김수일, 김윤해
- 관람료 무료
- 문의 어울림국악연구회(010-7300-2688)

김가영 비올라 독주회

7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미국 메네스음대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중인 비올리스트 김가영 독주회.

김가영은 2003년 귀국 후 금호초청독주

회, 부산국제음악제, EBS 공감,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 R. 본 윌리엄스/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피아졸라/위대한 탱고
- 마르티누/비올라 소나타 제 1번 등
- 피아노/박종훈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네오클래식(02-587-5961)

2010 전통연희 상설공연 필판·놀판·살판

7월 6일(화), 20일(화), 27일(화)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6일 극단 큰들 '굿모닝 허도령'

부도덕한 사또와 이방을 마을사람들의 지혜로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탈놀이의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마당극.

▶20일 민족예술단 우금치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신화 이야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마당극. 삼신할미가 등장해 '칠성신과 북두칠성 이야기', '농경의 신 자청비' 등 우리민족 고유의 신화를 들려준다.

▶27일 중앙음악극단 '진도 명다리굿'



사주팔자에 명이 짧게 태어난 어린아이의 수명을 길게 이어주기를 기원하는 '진도 명다리굿'을 풍물놀이와 노동요, 춤 등이 어우러진 연희극으로 선보인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8:00 가톨릭센터 소극장

▶6일 박하선, 황소원 피아노 듀오연주회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박하선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프랑스 파리 고등음악원, 마르세유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황소원이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프로그램

- 라벨/발레모음곡 '마 메르 루아'
- 슈베르트/환상곡 바단조 작품 103 D.940 등
- ▶13일 김미진, 남현숙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미진, 남현숙이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프로그램

-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545
- 아렌스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 2번

'실루엣' 등

▶20일 제 5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작곡가와 시인, 성악가, 연주인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곡협회가 들려주는 '우리 시 우리 노래'.

- 작곡/김성덕, 김종덕, 김종태, 안진현, 우덕상, 이강산, 전세용, 진소영, 최인식
- 연주/김상엽, 김태형, 박수진, 방미애, 변향숙, 송윤경, 장진규, 황윤정, 단비울남성양상블(지휘/강성철), 미즈챔버콰이어(지휘/김혜자), 엔젤중창단(지휘/김정현)

- 반주/박윤정 · 해설/장진규

▶27일 Quartz Quartet 창단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서영희, 김상희, 비올리스트 한동민, 첼리스트 김유미 등 마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결성된 Quartz Quartet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 하이든/현악4중주 작품 33-2 'The Joke'
- 드보르작/현악4중주 제 12번 작품 96 '아메리칸'
- 해설/장진규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7일 피아노 듀오의 밤

피아니스트 조혜영, 장진이, 정수연, 서양지, 강유민, 이문숙, 강지영, 배수정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의 밤.

프로그램

- 홀스트/'행성' 중 '목성'
- 라벨/라 발스 등 수곡

▶14일 앙상블 '디 마레'의 바다소리

창업 55주년
(1955년 2월 1일)

문우당서점 지도센터
에서 연구 개발하여 획득한 세계지도
발명특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
나온 세계지도입니다

**이 세계지도는 문우당서점
에서만 판매하나, 서점, 문구점
에서 판매를 원하시면 도매합니다**
(소매가격 ₩7,000)

전화 241-5555(대표)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센터!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우당서점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전화 051) 241-5555(4)
팩스 051) 243-2232
부산광역시 남구 자갈치시장 197-1

각종일부안내
1. 해시도서
2. 기술전문서적
3. 국경교과서
4. 경제경영일반
5. 서고, 컴퓨터 관리실
6. 문학, 청소년, 만화, 여성도서

각종일부안내
7. 각종지도
8. 각종외국어사전
9. 각종사전
10. 국산자구본
11. 수입자구본 소·중·대형
12.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2008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결성된 앙상블 디 마레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로시니/소나타 제 1번 사장조

비발디/기타와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라장조 Rv93 등

브리튼/심플교향곡 제 4번

· 찬조출연/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 21일 박유미 피아노 독주회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과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유미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 14번 작품 27 '월광'

프로코피예프/소나타 제 7번 작품 83 '전쟁' 등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제 6회 선소리산타령 정기공연 김경민의 예약인생 32년 '상춘야흥'

7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서울, 경기 지방에서 불리는 선소리산타령과 경기민요를 부산에서 전승, 보급하고 있는 (사)선소리산타령보존회 부산경남지회 6번째 정기공연.

어느 봄날 양반가의 후원에서 벌어진 연회의 흥취를 그린 신윤복의 '상춘야흥'의 한 장면처럼 한량과 기생들의 풍류놀이를 선보인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사)선소리산타령보존회 부산경남지회 (070-8200-2933)

궁중연례악 왕조의 꿈, 태평서곡

7월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200년전 열렸던 조선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무대예술로 재현한 궁중연례악 '왕조의 꿈, 태평서곡'.

국립국악원이 정조가 8일 동안 모후를 모시고 1,800여명의 수행원과 함께 행차했던 기록을 담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록을 참고, 국립국악원이 현재의 전통음악과 춤을 조화롭게 접목시킨 작품이다.

▪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B석 10,000(8일 공연은 전석 초대)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박주영 바이올린 독주회

7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과 클리브랜드음악대 석사, 일리노이주립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온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영 독주회.

박주영은 뉴잉글랜드 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클리브랜드음악원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 8번 작품 30

드뷔시/소나타 사단조

· 피아노/이진성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박주영(010-8699-8909)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7월 10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2006년 교육청 소속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전국 최초로 창단된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존 윌리엄스/영화음악 '스타워즈' 모음곡

바흐/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유명 교향곡 모음곡/베토벤 '운명', 하이든 '놀람',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4번, 드로르작 '신세계로부터' 등 수곡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협연/진혜빈, 진건혜(바이올린), 박지윤, 박찬경(플루트), 허근영, 김지윤(오보에)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605-5133)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향상음악회

7월 10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지난 2000년 부산지역 청소년들로 결성된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향상음악회.

프로그램

안톤 헤베레/협주곡 사장조

모차르트/플루트4중주 K.285

몬티/차르다시

비발디/바다의 폭풍 등 수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이재숙(010-6552-2989)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을숙도문화회관 토요일무지점프

7월 10일(토), 24일(토)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매월 2, 4주 토요일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뉴프라이임오케스트라 연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부산지역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1~3)

보이스 싱어즈 정기연주회

7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합창단 상임단원들로 구성된 남성앙상블 '보이스싱어즈(Voice Singers)' 정기연주회.

1996년 창단 이후 2002 아시안 게임 초청연주, 이탈리아 로마 한인교회 연주, 청소년가장 돕기 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보이스싱어즈는 2010년 8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초청연주를 계획하고 있다.

- 출연/테너 강종철, 이재원, 장용균, 바리톤 이정철, 김창돈, 베이스 최영수, 구명금
- 피아노/이경미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이정철(010-6579-6306)

제 29회 부산관악제

7월 15일 목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 유일의 관악축제인 제 29회 부산관악제.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예원여자고등학교, 부산백양고등학교, 부산기계공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관악부

업고등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등 부산지역 6개 고등학교 관악부와 동성 Dream 윈드오케스트라가 출연, 웅장한 관악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최완규/랩소디 인 '독도'
- 쇼스타코비치/왈츠 제 2번
- 카를로스 마케아스/카시오페아 등 수곡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3,000원
- 문의 전이동(010-2705-0366)

김미현 피아노 독주회

7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 석사과정, 오리건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김미현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다단조 작품 111

쇼팽/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스트라빈스키/페트루슈카 등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글로벌아트홀 전국음악콩쿠르 대상수상 기념 조슬기 바이올린 독주회

7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제 9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쿠르 고등부 1등, 글로벌대상을 수상한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 조슬기 독주회.

프로그램

이자이/바이올린 소나타 제 2번

생상/서주와 란도, 카프리치오소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 소나타 제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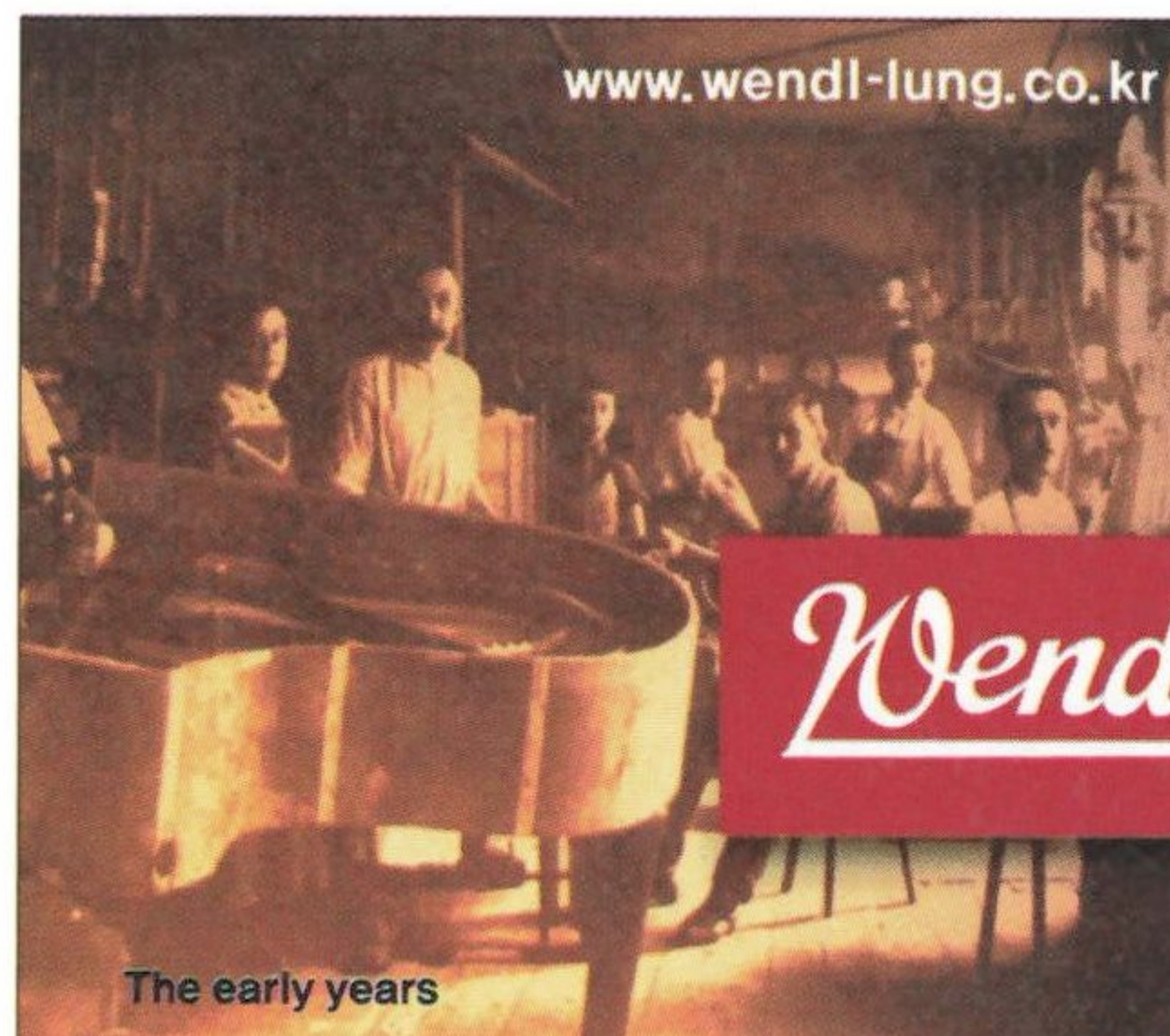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Jazz 와인에 빠지다 19번째 콘서트

7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한달에 한번 재즈와 와인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 'Jazz 와인에 빠지다' 19번째 콘서트.

보사노바 스타일의 재즈와 발라드, 팝까지 폭넓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재즈밴드 'Cho-i 밴드'의 무대로 마련된다.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15,000원
- 문의 무대공감(623-0678)

국립부산국악원 크루즈공연 Beautiful Korea-Korean Traditional Music & Dance

7월 16일(금), 23일(금), 30일(금) 오전 11: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 예술의 멋과 신명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하는 국립부산국악원 크루즈 공연.

프로그램

궁중음악 '수제천', 부채춤,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밀양백중놀이' 중 '오복춤' '범부춤', 민속음악 '아리랑 연곡', 장구춤, 판굿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소프라노 이정란 독창회

7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



이정란

권명창

부산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프랑스 파리 국제음악콘서트바토리, ENM d'Aulnay-sous-Bois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시립

합창단 수석으로 있는 소프라노 이정란 독창회.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오페라단 단원으로 있는 테너 권명창이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비발디/'글로리아' 중 '주 하나님'
나운영/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로드리고/4개의 마드리갈
푸치니/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다정한 나의 아버지' 등 수곡

- 피아노/김경혜
- 관람료 초대
- 문의 이정란(019-9228-0800)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콘서트

7월 18일 일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네 손가락 피아노 연주
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피아니스트 이희아 콘서트.

프로그램

세느빌&투상/아드린
느를 위한 발라드

베토벤/'환희의 송가' 중 '기뻐하며 경배하세'
쇼팽/즉흥환상곡
파헬렐/캐논변주곡 등 수곡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A석 20,000원
- 문의 이복수(011-580-7076)

한낮의 유U; 콘서트 썸머 스케이팅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1:00
서면롯데호텔 아트홀



시원한 음악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한 낮의 유U; 콘서트 7월 공연.

부산대학교 박성완 교수가 이끄는 뉴프라임오케스트라가 '피겨퀸' 김연아의 쇼트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친숙한 클래식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발트토이펠/스케이트 왈츠
비발디/사계 중 '여름'
쇼스타코비치/로망스
피아졸라/리베르탱고
생상스/죽음의 춤 등 수곡
· 협연/소프라노 박소연, 바이올리니스트 문영미, 크로스오버듀엣 휴(테너 류무룡, 소프라노 김지현)

- 관람료 균일 1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국제신문(500-5222)

제 26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교향곡 시리즈 I

7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부산음악인시리즈, 청소년 교과서음악회, 한일 빅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교향곡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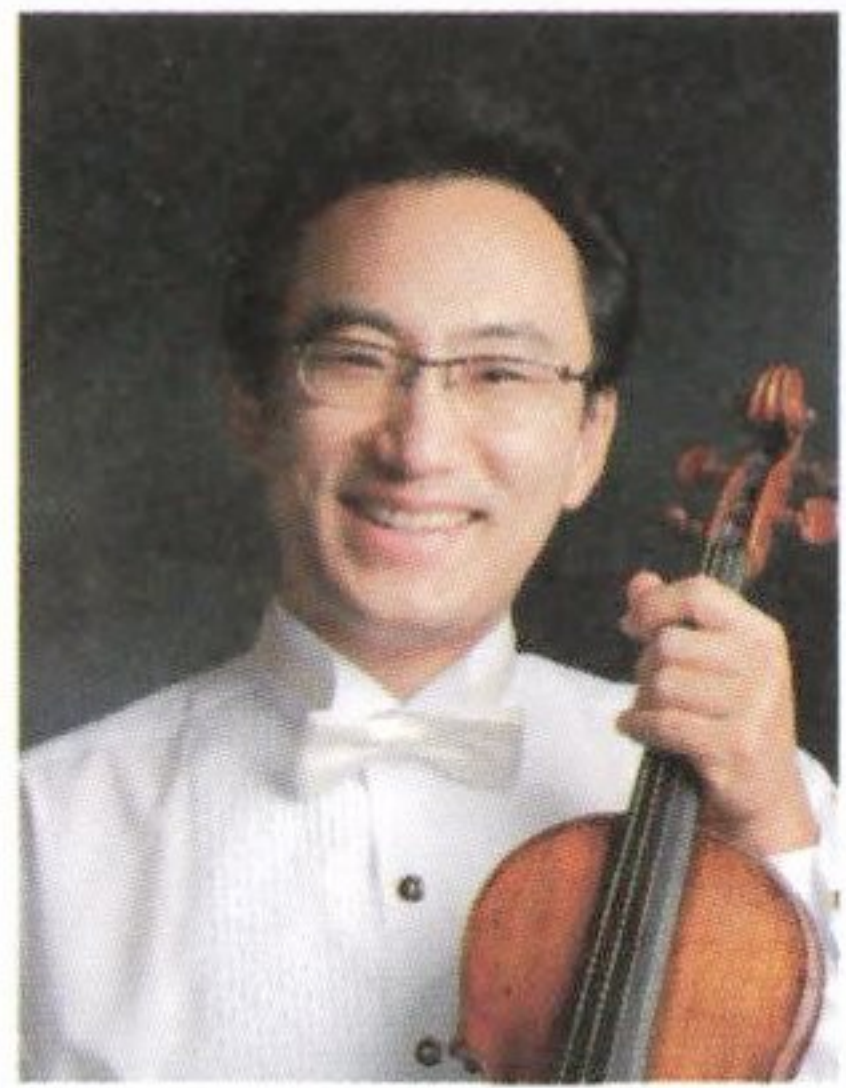
브람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77
베토벤/교향곡 제 5번 다단조 작품 67 '운명'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협연/임지민(바이올린)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1~5)

이장호 바이올린 독주회

7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트로싱겐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크로노스앙상블 리더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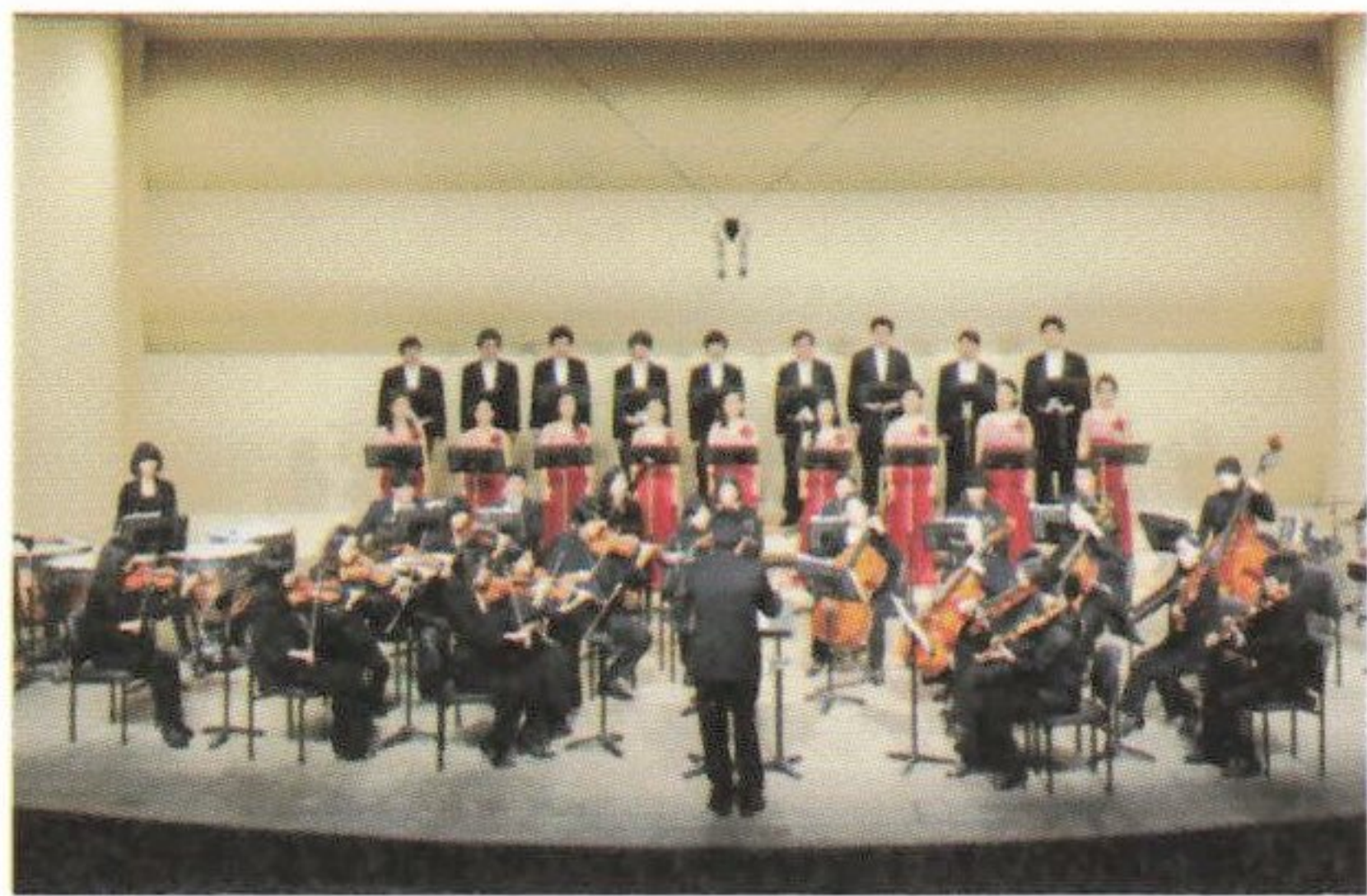
그동안 7차례 독주회를 통해 학구적이면서도 진지한 연주로 호평 받아온 이장호는 지난 2009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연주회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필은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이장호(010-8302-4770)

꿈유빌로합창단과 함께 떠나는 7080여행 추억 2010

7월 21일 수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7년 창단 이후 폴리포니(다성음악)를 중심으로 한 무반주합창으로, 수준높은 성음악 연주와 음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꿈유빌로합창단이 7080 세대를 위한 추억의 가요와 팝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바다, 바닷가의 추억, 해변으로 가요, 쿵따리 사바라, Perhaps Love, 여행을 떠나요 등 수곡
- 지휘/이창룡(진해시립합창단 지휘자, 동아대학교 교수)
 - 반주/이소진, 권선경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이경춘(011-862-4031)

부산클라리넷과르텟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음악축제

7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빌아트홀



클라리네티스트 김태훈, 권병옥, 박아름, 이성관으로 구성된, 클라리넷 4중주 전문연주단체인 부산클라리넷과르텟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프로그램

- 헨델/시바여왕의 도착
스텔퍼스/익살스런 클라리넷
모차르트/터키행진곡 등 수곡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7080 희망, 열정, 낭만콘서트

7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MBC관현악단 단장을 역임했던 최낙용 지휘자가 이끄는 팝인라이프 오케스트라 연주로, 그리운 추억여행을 떠나는 7080 낭만콘서트.

- 초청가수/가수 민지, 재즈싱어 홍노경
- 특별출연/소리바다, 해운대여성합창단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타악앙상블 S. Modern Ensemble 과 함께 하는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음악축제

7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빌아트홀

클래식에서부터 팝, 재즈 등 다양한 연주곡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타악앙상블 S. Modern Ensemble과 함께 하는 청소년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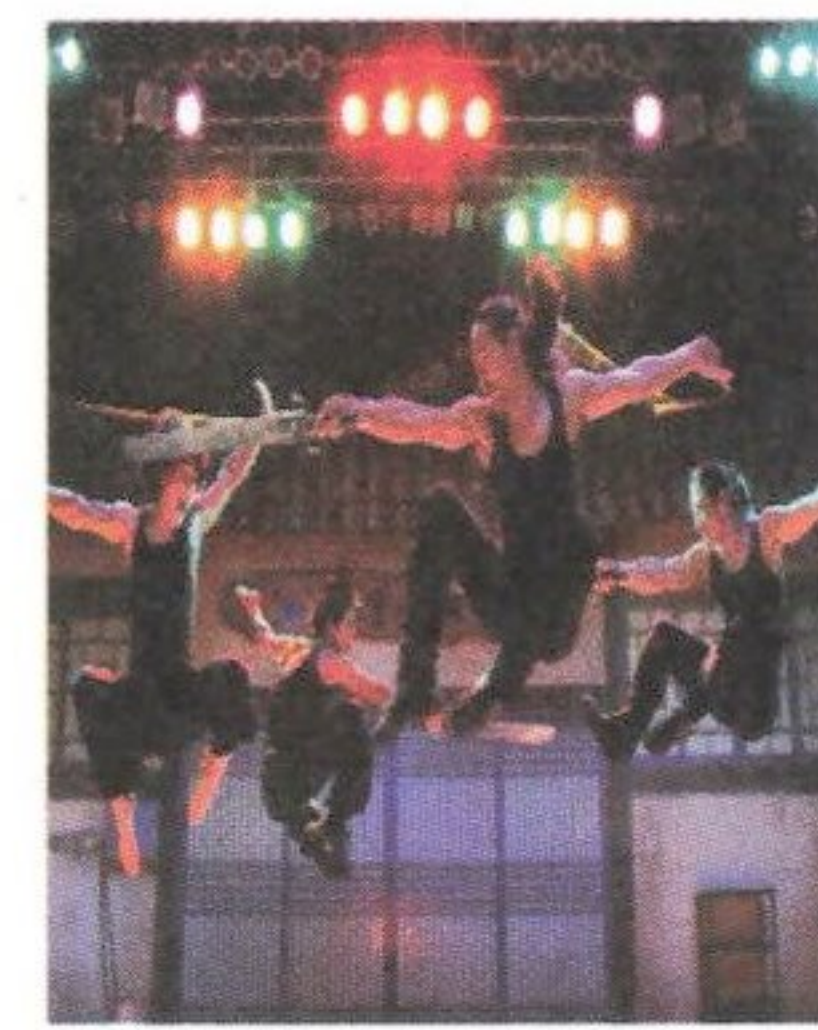
프로그램

- John Beck/타악앙상블을 위한 서주
파헬렐(편곡/공소성)/캐논변주곡 등 수곡
- 출연/송희철(리더), 송학, 공소성, 이요섭, 김호원, 이찬욱, 채광호, 양진일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PLAY

2009 점프 부산

2009년 9월 10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넘버벌 퍼포먼스 '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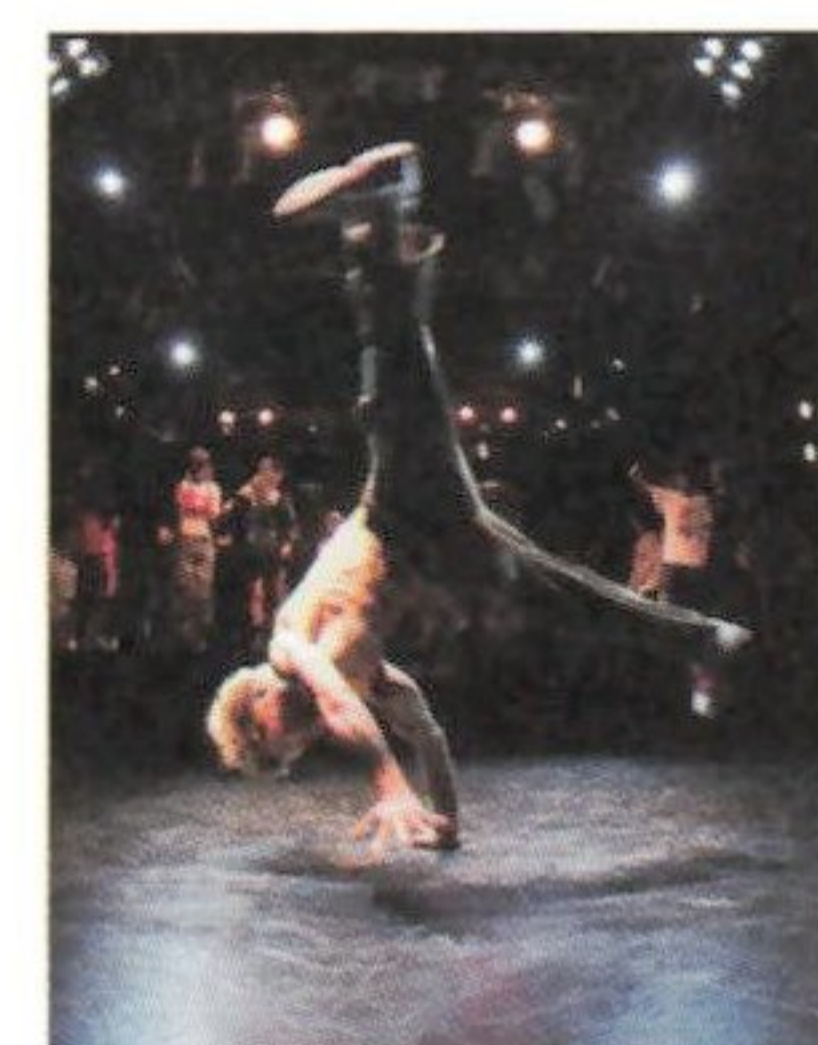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부산문화회)

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9년 12월 1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B씨어터



2005년 초연 이후 비보이 열풍을 일으킨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비보이와 사랑에 빠진 발레리나가 비결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Program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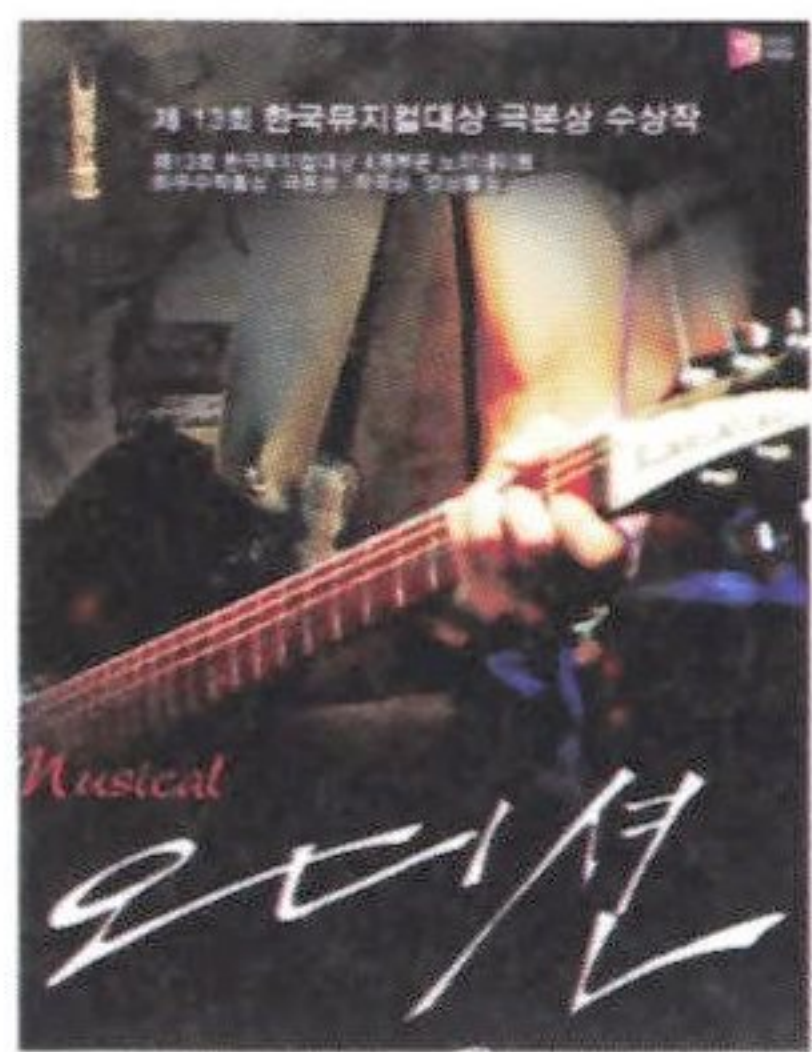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B씨어터(804-2252)

뮤지컬 오디션

5월 21일(금)~7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젊은 뮤지션들의 꿈과 현실을 그린 창작뮤지컬 '오디션'.

출연배우가 직접 밴드의 음악을 연주하는 신개념 라이브 뮤지컬이다.

· 작, 연출/박용전

· 출연/허규, 이승현, 오화라, 김승환, 정찬희, 한경수, 오미란

- 관람료 균일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연극 닥터 이라부

6월 4일(금)~7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못말리는 정신과 의사 이라부와 그의 정신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기상천외한 에피소드가 시원한 웃음을 선사하는 코믹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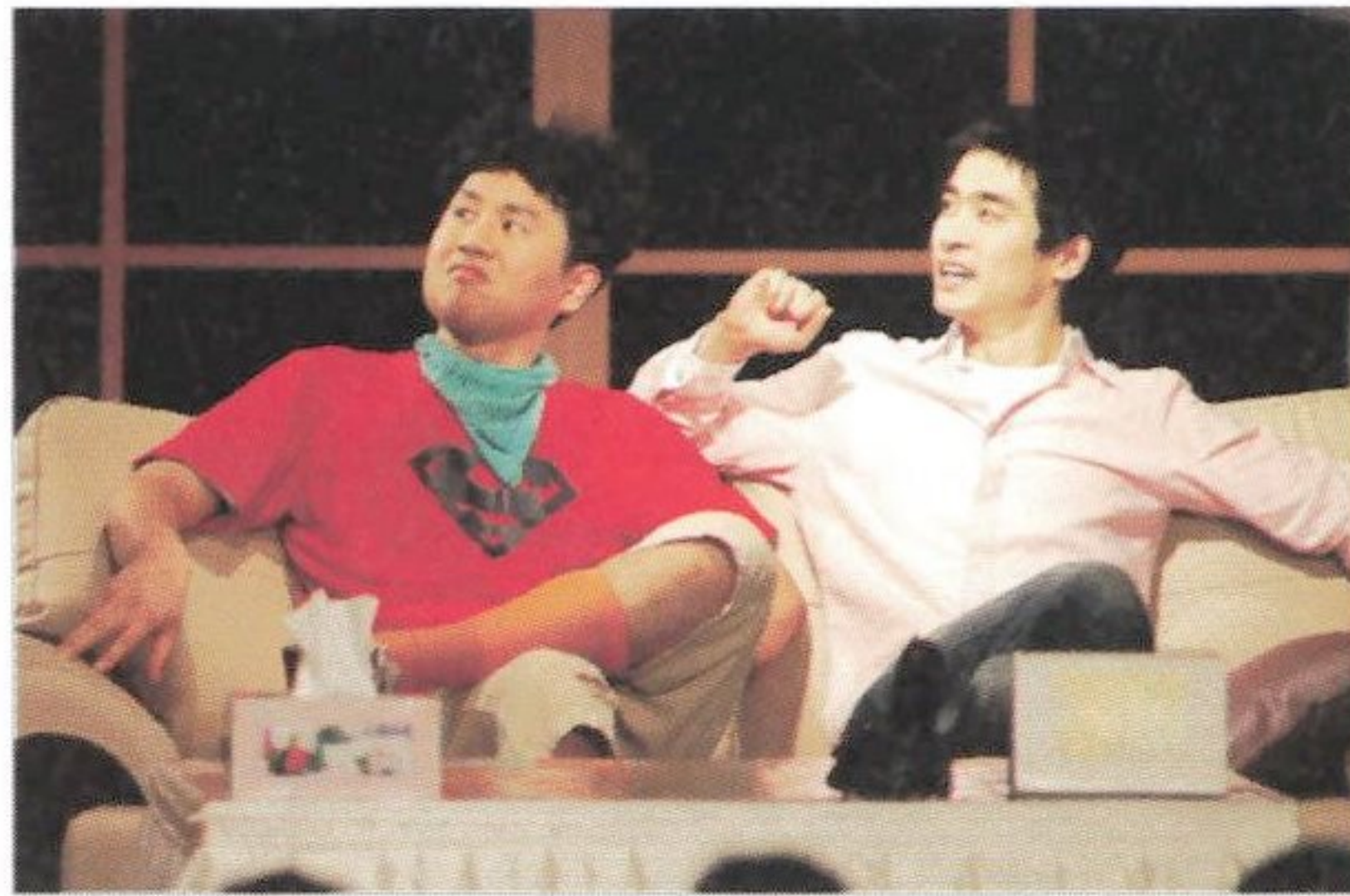
· 원작/오쿠다 히데오 · 작/김동연
· 연출/이종훈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코믹극 뉴보잉보잉 1탄 연애버전

6월 26일(토)~7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 솜사탕아트홀



코믹극의 대가인 마르코가 블레띠의 원작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각색한 연극 '뉴 보잉보잉 1탄'~연애버전.

3명의 스텐더디스를 약혼자로 둔 바람둥이 주인공의 아슬아슬한 연애행각이 코믹하게 펼쳐진다.

· 원작/마르코가 블레띠
· 번안, 연출/손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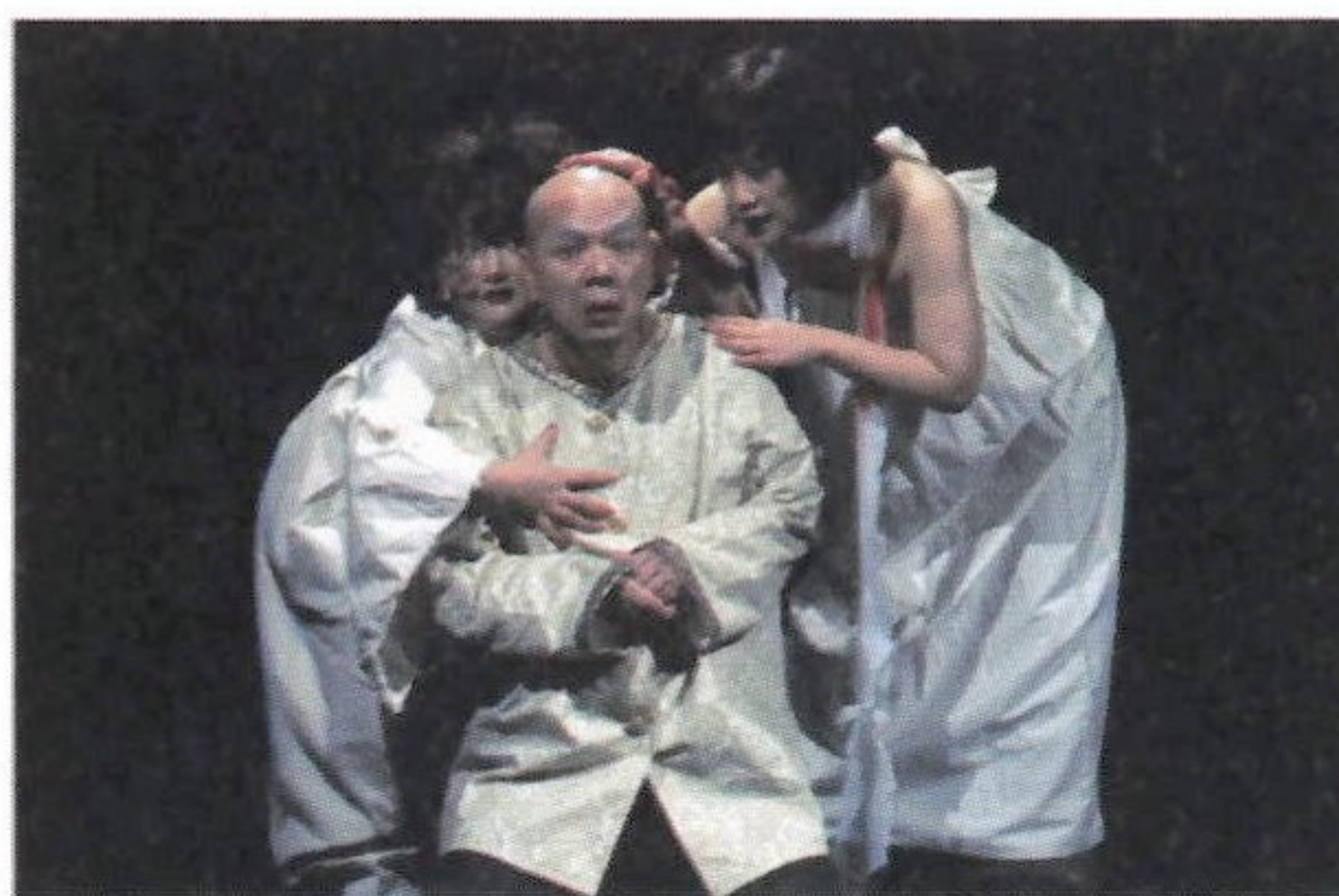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솜사탕아트홀(922-4545)

극단 부두연극단 오프-스테이지

6월 29일(화)~7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체호프의 희곡 '백조의 노래'와 일본 현대극작가 시미즈 쿠니오의 '분장실'을 재구성, 소외된 배우들의 꿈과 현실을 연극 속 연극이 있는 메타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낸 연극 '오프-스테이지'.

· 재구성, 연출/이성규
· 출연/박미경, 김채희, 김나영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중고생 10,000원

▪ 문의 액터스소극장(611-6616)

국악체험 가족뮤지컬 얼씨구나! 용궁가자

7월 1일~2일 목~금요일 오전 10:10, 11:2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전래동화 '별주부전'을 원작으로, 판소리와 토속민요, 탈춤, 꼭두각시 등 우리의 전통국악이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국악체험 가족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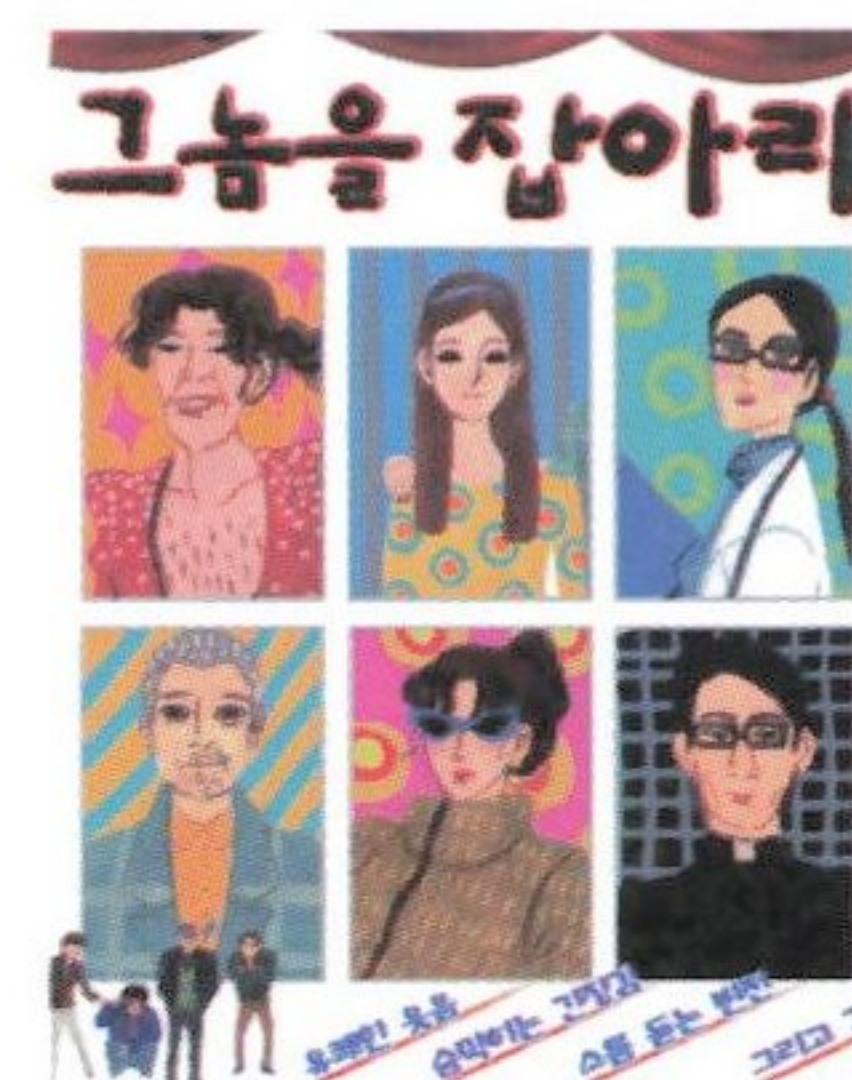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12,000원(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 문의 dubu기획(02-2654-6864)

코믹수사극 그놈을 잡아라

7월 2일(금)~8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소강당



지방 소도시에서 벌어진 잔인한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웃음과 반전으로 그려낸 코믹 수사극.

· 작, 연출/정형석

· 출연/손진환, 박성준, 이승준, 편기연, 이윤선,
윤애경, 공유석, 김남진, 장희정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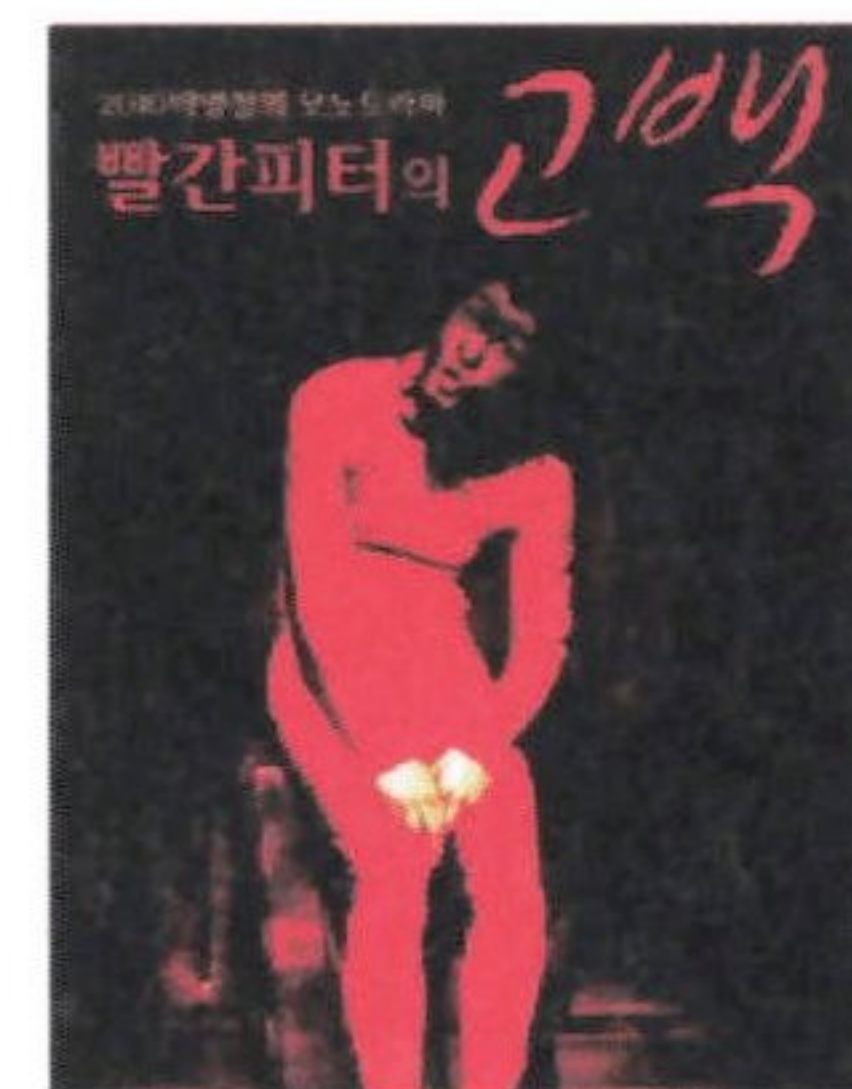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2010 박병철의 모노드라마 빨간 피터의 고백

7월 2일(금)~11일(일) 오후 8:00

청춘나비소극장



카프카의 소설 '어느 학살원에 드리는 보고'를 각색, 억압적 현실에서 순응하는 것을 자유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한 페이스스를 던져주는 연극배우 박병철의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모노드라마.

- 작/카프카 · 재구성, 연출/유상홀
- 특별출연/어주선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나다문화사업단(242-9402)

창작뮤지컬 인정엄마

7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모녀지간의 가슴따듯한 사랑이야기가 전 세대 추억을 자극하는 7080 가요와 어우러져 공감을 자아내는 창작뮤지컬.

- 작/고혜정 · 음악감독/유영석
- 출연/김수미, 선우용녀, 오정해, 정나운, 민경옥, 홍윤희, 박정림, 김동화, 김현지 외
-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2010 돼지사냥-부산

7월 3일(토)-8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에저또소극장



돈과 권력을 맴도는 소시민의 일상과 그 일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을 조명한 사회풍자극.

-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미니티켓(1600-1716)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쇼

7월 6일 화요일 오전 10:10, 11:10
시민회관 소극장

비둘기마술, 가면마술, 공중부양마술 등 다양한 마술의 세계가 펼쳐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쇼.

- 관람료 균일 7,000원
- 문 의 신상우(010-9093-8277)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7월 6일(화)-7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아버지를 죽인 연쇄 살인범을 잡기위해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주인공과 그를 쫓는 연쇄살인범, 그리고 주인공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오빠, 형사의 치밀한 추리게임이 펼쳐지는 미스터리 스릴러극.

- 작, 연출/김세환
- 출연/조은호, 신현규, 최윤희, 최영무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드라마팩토리(625-0730)

뮤지컬 메노포즈

7월 9일-10일 금-토요일 오후 3:00, 8:00
시민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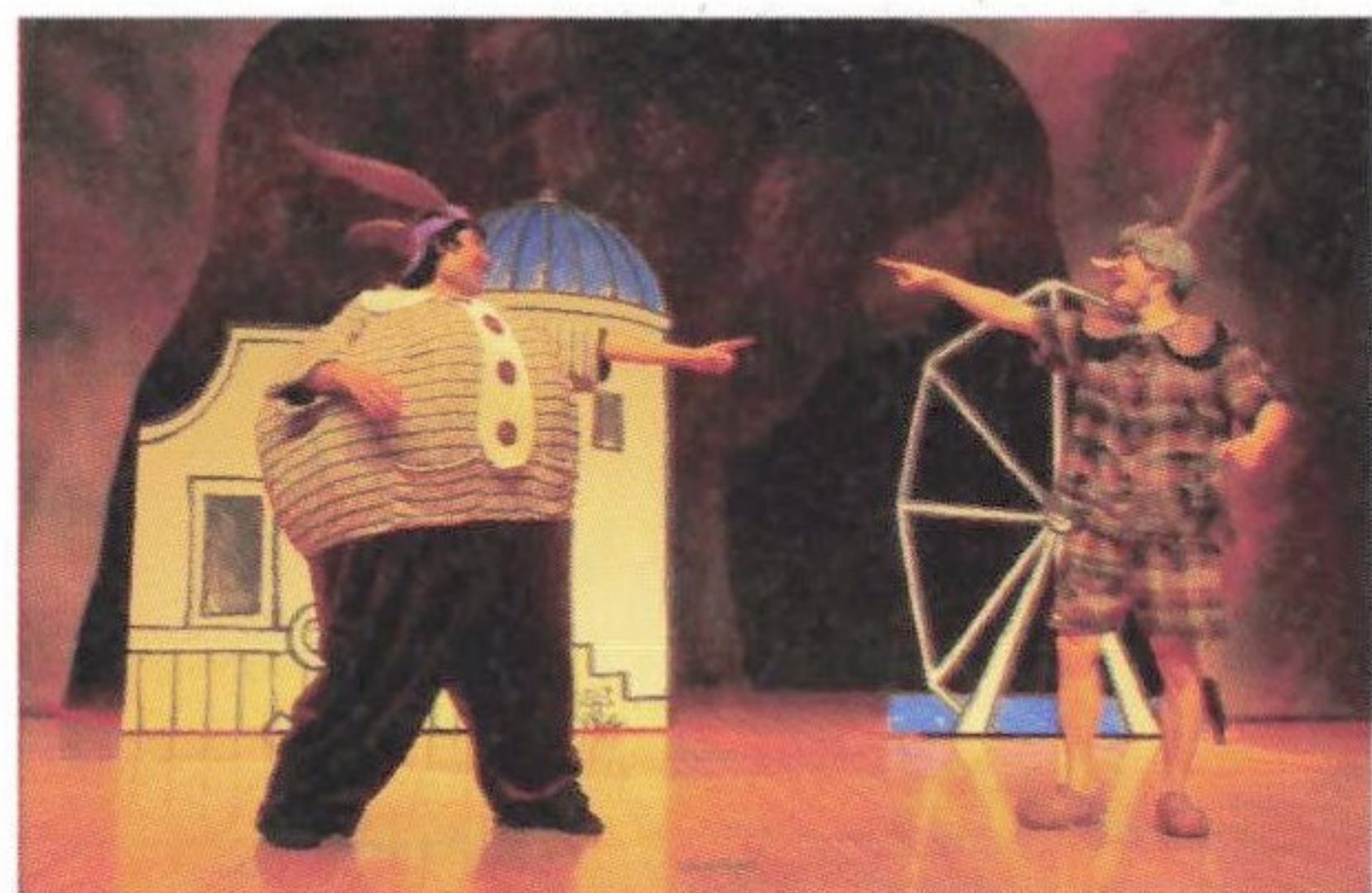
남들에게 잘못하는 여성들만의 고민 '폐경'과 '갱년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창작뮤지컬 '메노포즈'.

생애 첫 뮤지컬에 도전한 가수 혜은이와 2006~2007 메노포즈 매진신화의 주인공 개그우먼 이영자, 2009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수상자 홍지민 등이 출연,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 연출/이윤표
- 출연/혜은이, 이영자, 홍지민, 김숙, 이윤표, 김현진, 최혁주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문 의 시민회관(630-5200)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7월 9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부산민주공원 중극장



명작동화 '피노키오'를 원작으로,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성장과정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그려낸 가족뮤지컬.

- 작, 연출/김수진
- 출연/박재춘, 주진우, 김성재, 김정희
- 관람료 균일 12,000원(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 문 의 dubu기획(02-2654-6864)

가족뮤지컬 개구리 왕눈이

7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TV로 방영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가족뮤지컬로 제작, 어린이들에게 가족간의 사랑과 친구와의 소중한 우정을 이야기하는 가족뮤지컬.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 문 의 극단 세종(02-747-4608)

가족뮤지컬 개미와 베짚이의 사계

7월 13일-14일 화-수요일 오전 10:10, 11:2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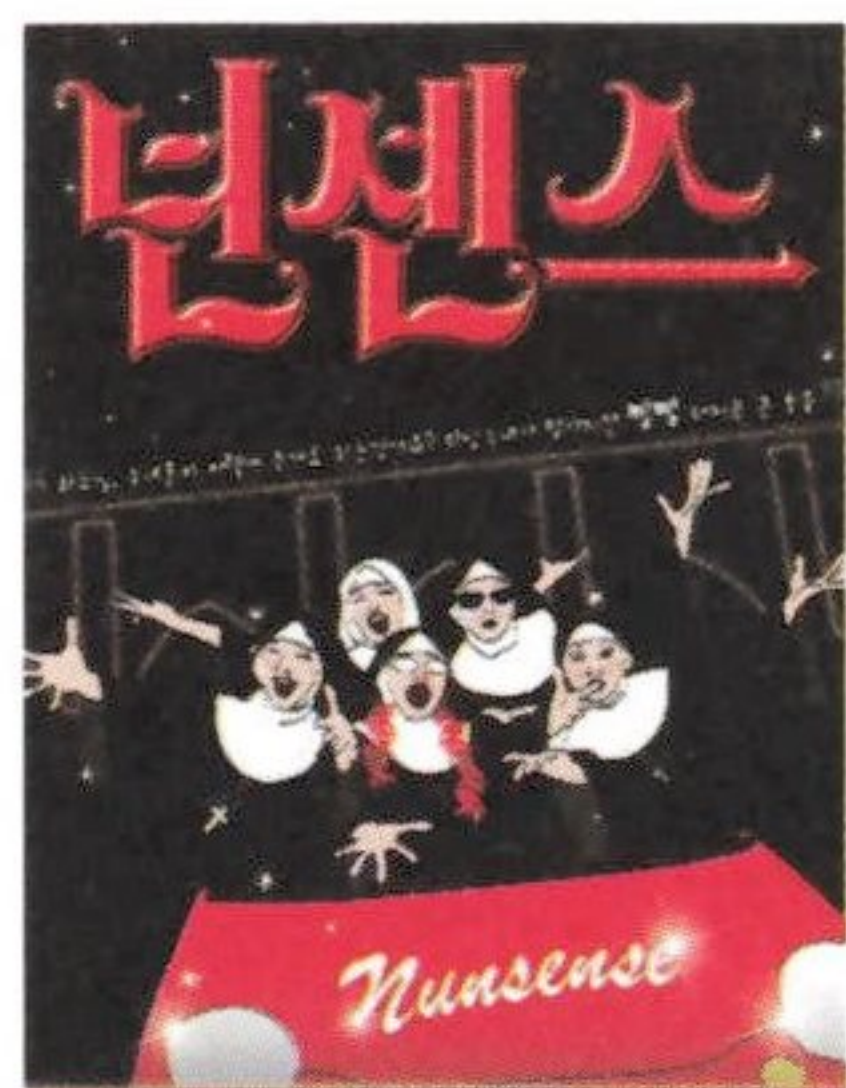


이솝우화 '개미와 베짚이'를 원작으로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가족뮤지컬.

- 관람료 균일 12,000원(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 문 의 dubu기획(02-2654-6864)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

7월 15일(목)-10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식중독으로 숨진 동료 수녀들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5명의 수녀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

포복절도 개그와 풍자로 1991년 초연 후 18년동안 7,898회 최다공연, 280만 관객동원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 원작/단 고진
- 출연/엄지영, 안나연, 최유진, 이내영, 채진명
- 관람료 균일 35,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7월 16일 금요일 오후 8:00, 1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8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명문가 종손인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고향을 찾은 두 형제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창작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개그맨 겸 뮤지컬배우 홍록기, 가수에서 뮤지컬배우로 자리매김한 이지훈이 주인공인 두 형제로 출연, 열연을 펼친다.

- 작, 연출/장유정
- 작곡, 음악감독/장소영 · 안무/오재익
- 출연/홍록기, 김재만, 이지훈, 임선애, 이주원, 한다연, 신문성, 안세호, 박훈, 윤수미 외
- 관람료 R석 65,000원 · S석 55,000원
A석 4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극단 연 창단공연 매춘, 수사관

7월 16일(금)-8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청춘나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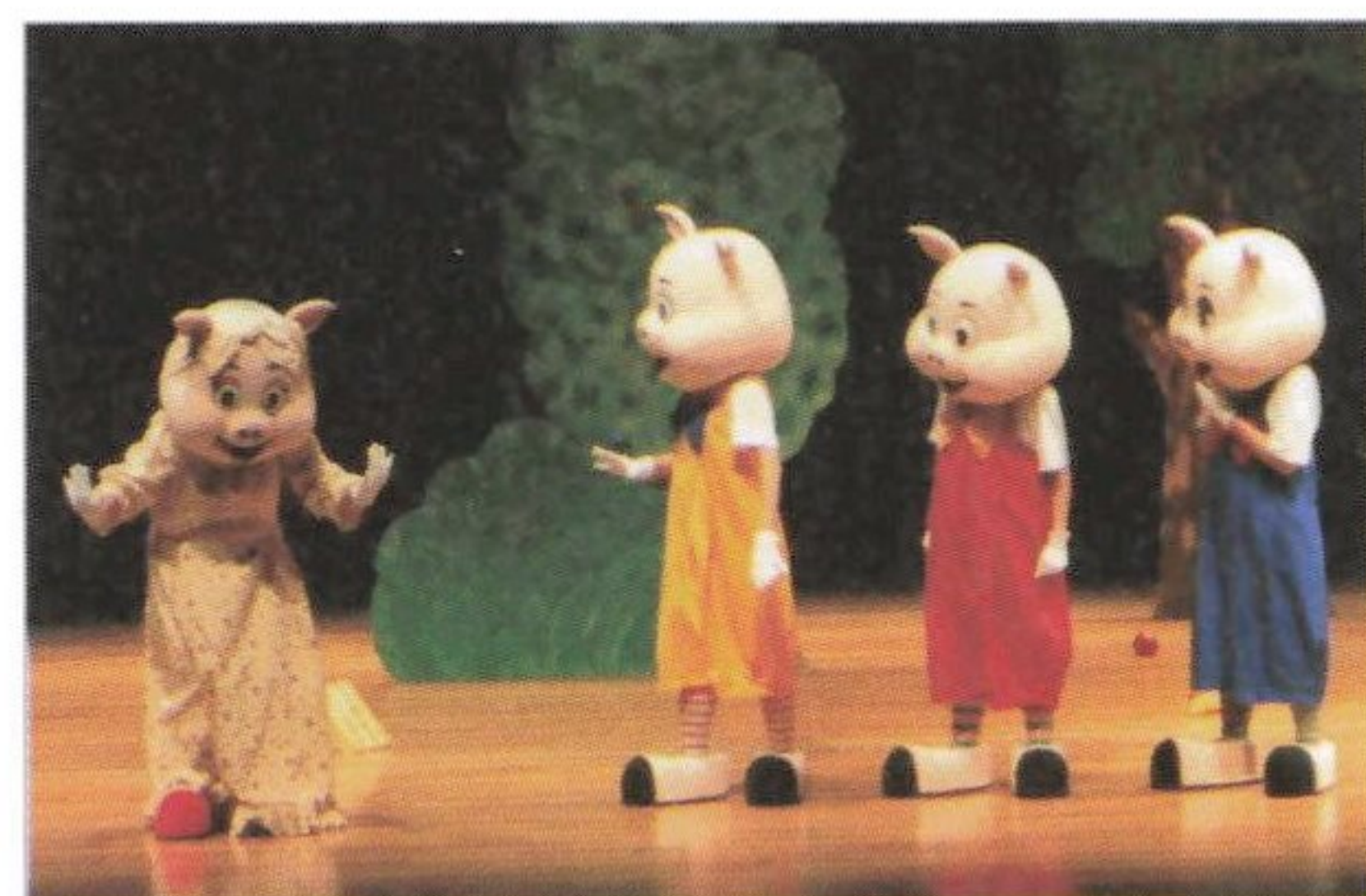
투신과 집단자살, 그리고 살인, 세가지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미모의 여형사의 생존방식을 그

린 극단 연 창단공연.

- 원작/츠카 코우헤이
- 각색/하현관 · 연출/오정국
- 출연/김학준, 오영섭, 송준승, 황자미, 이수정
- 관람료 일반 20,000원·학생 15,000원
- 문 의 청춘나비소극장(070-8241-2560)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7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시민회관 소극장



명작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노래와 율동으로 각색한 캐릭터 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출연/길수경, 이선화, 송판수, 김기양, 조일영 외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이은결 Magic V Show

7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8일 일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강력한 카리스마와 화려하고 깔끔한 무대 매너, 현란하면서도 빠른 손놀림으로 우리나라에 마술붐을 일으킨 세계적인 일루션 아티스트 이은결의 Magic V Show.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엘에스컴퍼니(1588-8477)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로맨틱코미디극 잇츠유

7월 20일(화)~8월 28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2:00, 5:00(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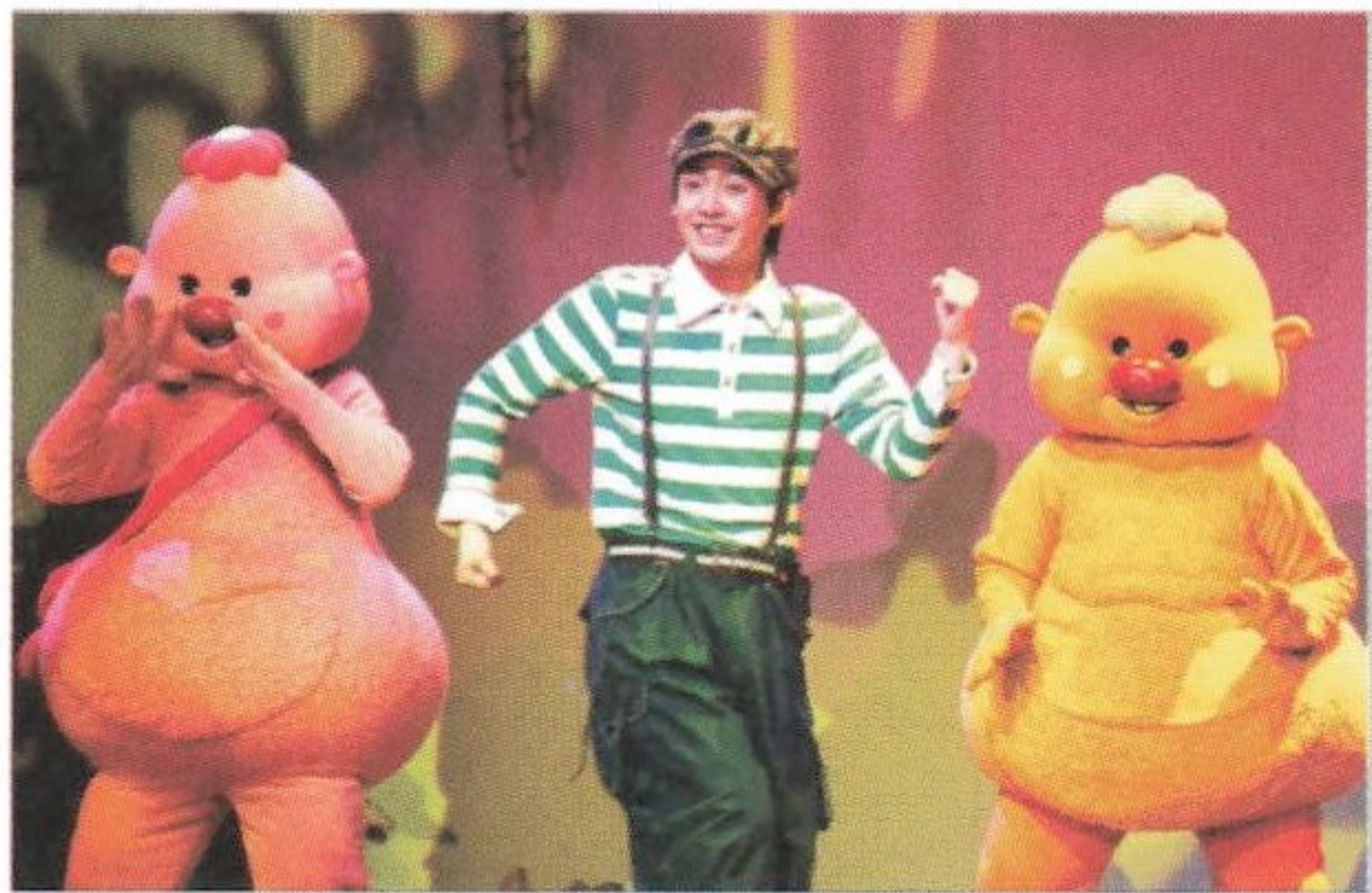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가슴따뜻한 사
랑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웃음을 전하는 로맨틱
코미디극 '잇츠유'.

- 작, 연출/허재영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SM기획(1600-1602)

어린이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7월 2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시민회관 대극장



2000년 EBS교육방송 프로그램으로 선보여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방귀대장
뽕뽕이'가 캐릭터 탄생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
별한 무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신나는 놀이,
동요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 작, 작사/박수경 · 연출/박재민
- 작, 편곡/안진실
- 관람료 R석 30,000원·S석 20,000원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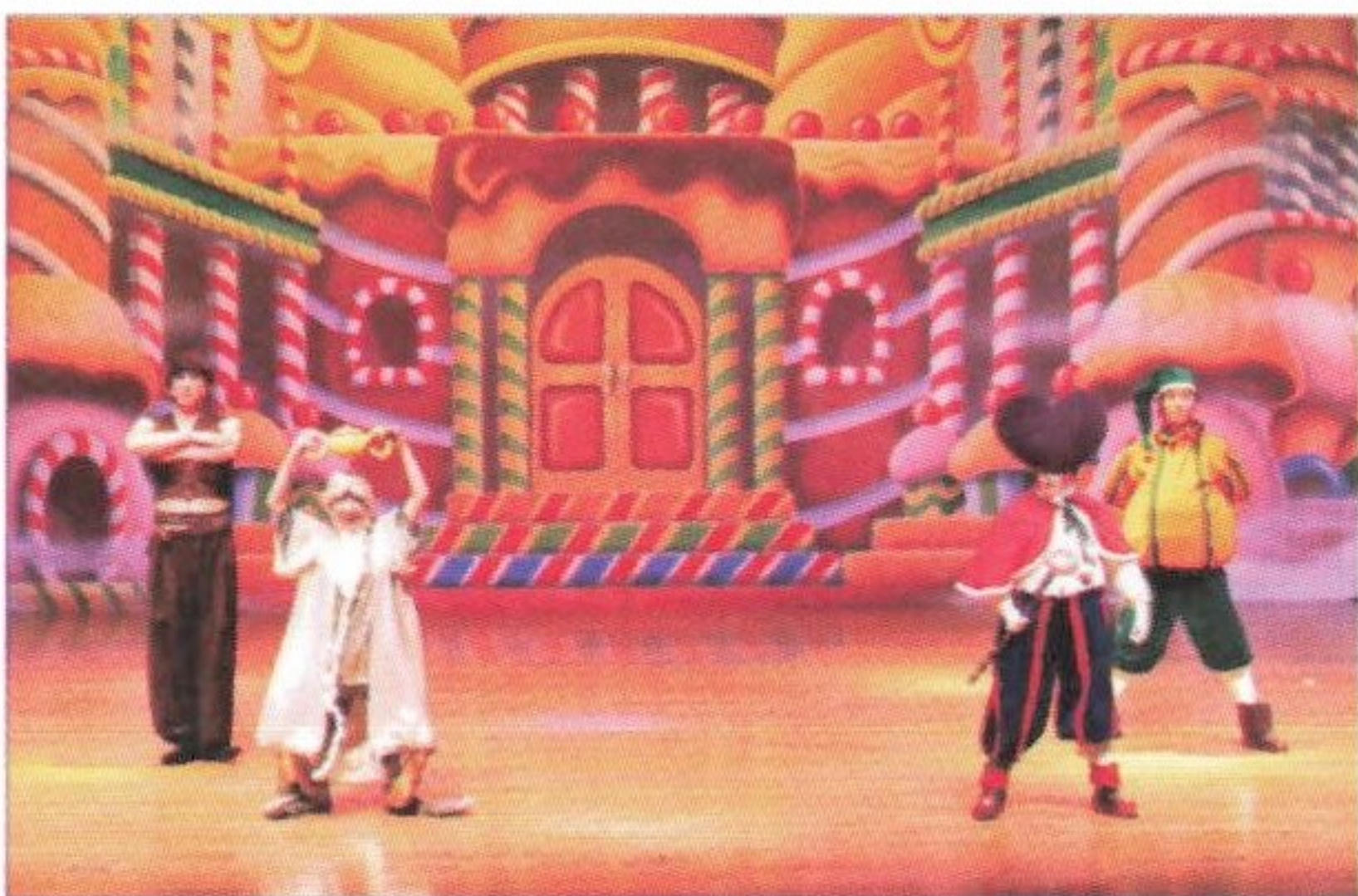
7월 24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마음 착한 소녀 벨과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된
왕자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그린 가족뮤지컬.

- 출연/최윤주, 안정민, 김은주, 전민규, 장기엽,
박경순, 이한나 외
-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 문 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세계명작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7월 24일(토)~8월 1일(일) 평일 오후 2:00,
4:0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금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하는 판
타지 가족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공포연극 오래된 아이

7월 30일(금)~8월 29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7:30, 9:30, 토요일 오후
7:00, 9:3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2007년 초연 당시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공포
연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연극 '오래된
아이'.

15년 전 실종된 아이가 청년이 되어 마을로 돌
아온 후 그날의 사건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치밀한 구성과 반전으로 섬뜩한 공포
를 선사한다.

- 작, 연출/오승수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DANCE

제 23회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춤추는 삶, 그 움직임 속으로

7월 1일(목)~4일(일) 해운대해수욕장 야외특설
무대, 경성대학교, 경성대·부경대 도시철도역사



시원한 여름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2010 부
산국제여름무용축제.

- ▶ 부산여름무용학교 : 1일(목)~3일(토)
경성대학교 27호관 무용실/새빛뜰
무용전공자와 시민들을 위한 무용강습회.

프로그램

밀양덧배기(하용부), 현대무용테크닉(Jesús Hi-
dalgo), 발레테크닉(Lyutov Vladimir), 일반인과
함께하는 생활·춤 즉흥(한은주)

- ▶ 찾아가는 도시철도 문화공연 : 1일(목)~2일(금)
오후 5:00 경성대·부경대 도시철도역사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시민들이 오가는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무대.

1일 프로그램

섬(안무/김옥희), 유쾌한 헤어짐(안무/손영민), The Game II(안무/신정희)

2일 프로그램

우리 함께 달리자!(안무/최연순), 섬(안무/김옥희), A와 B사이(안무/신승민)

▶ 젊음·열정·도전 Fringe Dance Concert

2일(금) 오후 3:00 경성대학교 새빛뜰

젊은 무용애호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대.

▶ 춤·바다·축제 : 3일(토)~4일(일) 오후 5:00

해운대해수욕장 야외특설무대

여름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창작춤의 세계.

프로그램

始原의 message(안무/최은희), 그 바다(안무/주수광), MEETING(안무/Lyutov Vladimir), 바다의 전설(안무/오율자), 까마득히(안무/Jesús Hidalgo), 나와 가방(안무/박은화)

▶ 만남과 헤어짐의 장 : 4일(일) 오후 9:00

경성대학교 새빛뜰

행사참여자들과 시민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

- 문 의 경성대학교(663-4964)

2010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부산시립무용단 마당춤판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7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전통설화 '별주부전'을 현대적으로 각색, 해학과 신명, 감동이 있는 마당춤판으로 풀어낸 부산시립무용단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 안무, 구성/홍기태
- 각색, 대본, 연출/황해순

- 관람료 무료(선착순 입장)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정신혜 무용단 찰나. 소나기를 품다... The Ephemeral moment

7월 13일 화요일 오후 8:00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이수자로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정신혜 안무로 선보이는 창작춤 '찰나(刹那) 소나기를 품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춤과 영상이 어우러지는 춤언어로 표현했다.

- 안무/정신혜 · 연출, 대본/조주현
- 특별출연 /정혁준
- 출연/구성심, 하현정, 박혜경, 김호정, 김예리, 허종규, 김수경, 박미향, 박윤희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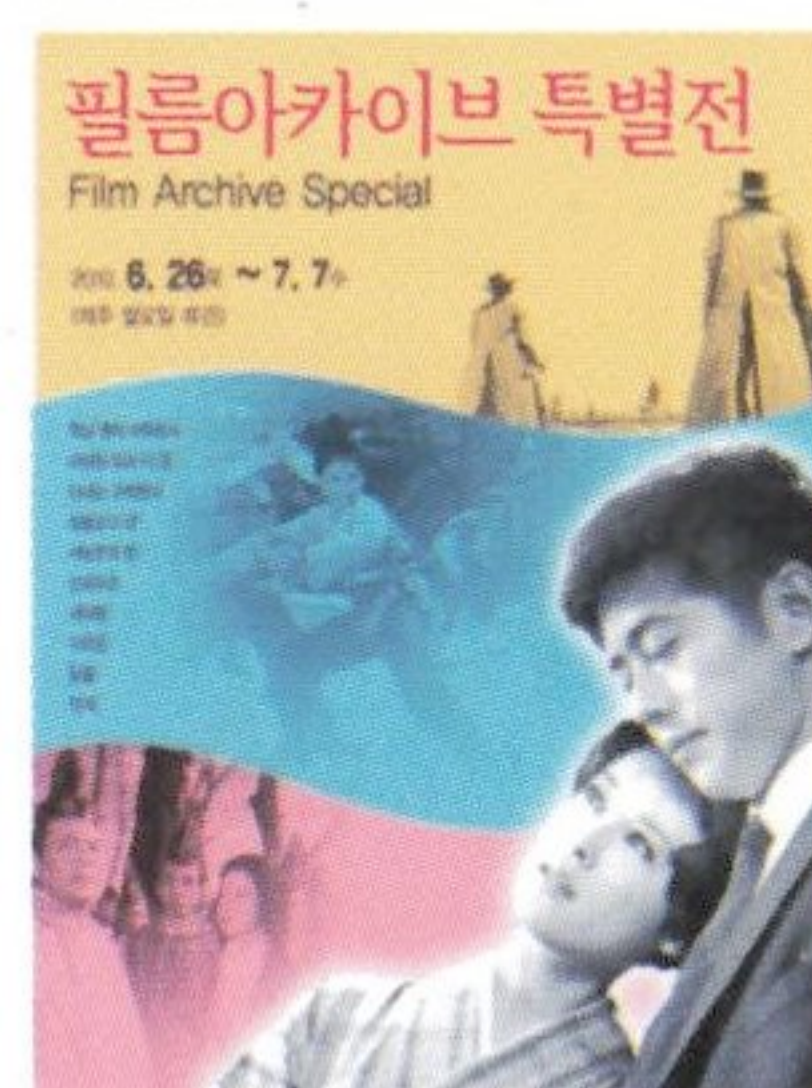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 의 정신혜무용단(999-5301, 999-6286)

MOVIE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6월 26일(토)~7월 7일(수) 시네마테크 부산



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필름라이브러리, 서울시네마테크필름포럼에서 소장중인 해외 고전명작 10편을 소개하는 특별전.

아시아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일본감독 기누가사 데이노스케의 '지옥문'을 비롯 찰스 로튼의 저주받은 걸작 '사냥꾼의 밤', 무르나우의 탁월한 미학적 성취가 빛나는 '선라이즈', 서부극의 대가 존 포드의 가장 개인적인 영화 '라이징 오브 더 문' 등이 상영된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
(742-5377, cinema.piff.org)

CONCERT

이은미 20주년 콘서트 소리 위를 걷다II

7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8:00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VIP석 88,000원 · R석 77,000원
S석 66,000원 · 석 55,000원
- 문 의 (주)배너피아(1644-9751)

뜨거운감자 전국투어 콘서트

7월 31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균일 55,000원
- 문 의 (주)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02-541-7110)

EVENT

2010 우주과학대탐험전

7월 2일(금)~8월 29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일반 11,000원 · 어린이 13,000원
- 문 의 (주)이에스케이(740-8331)

제 95회 시울림 시낭송회

7월 7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명화, 서규정, 서화성, 신정민, 이봉희, 이진희(연극배우), 정희경, 조해훈, 진명주, 한미숙
- 사회/한창옥 · 음악/김찬식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예강(019-516-1867)

한반도의 공룡탐험전

7월 9일(금)~8월 22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균일 13,000원
- 문 의 (주)하늘이엔티(1688-3693)

코코몽 녹색놀이터

7월 16일(금)~8월 30일(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2009년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수상한 '냉장고 나라 코코몽' 캐릭터와 함께하는 친환경 놀이전.

- 관람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13,000원
- 문 의 (주)벨루션(1544-5799)

신기한 곤충놀이 체험전

7월 18일(일)~8월 22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대륙파트너스(740-4030)

GALLEEY

중국과 일본의 현대미술

5월 1일(토)~7월 1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하정웅 컬렉션: 손아유 작품전

5월 1일(토)~7월 1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2010 지역작가 초청 전시회

6월 5일(토)~7월 20일(화) 강서예술촌

- 문 의 강서예술촌(972-3912)

2010 한-아세안 현대사진전 EMERGING WAVE

6월 18일(금)~8월 8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갤러리 현 개관기념 남궁원 초대전

6월 24일(목)~7월 10일(토) 갤러리 현

- 문 의 갤러리 현(746-4203)

창의적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장애

6월 24일(목)~7월 24일(토)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문 의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749-9531)

한국, 일본 작가 25인 초대 썸머 T셔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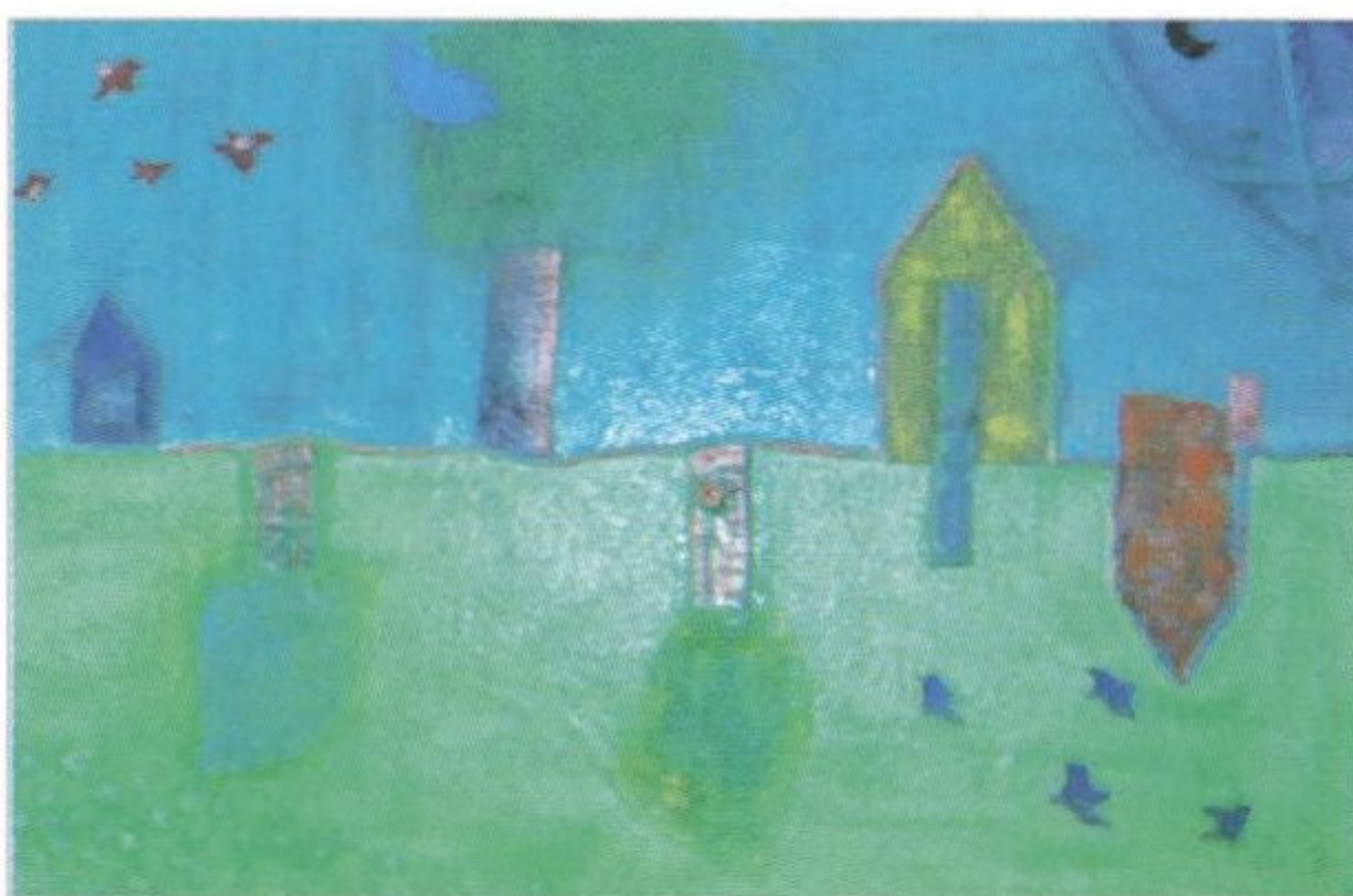
6월 25(금)~7월 8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정지윤 개인전

7월 1일(목)~7월 30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추기경 김수환 추모사진전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7월 2일(금)~7월 18일(일) 시민회관 한슬갤러리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를 맞아 '시대의 지도자'였던 김수환 추기경의 살아생전 모습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전.

- 문 의 시민회관(630-5200)

제 5회 한국화 학생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7월 6일(화)~7월 11일(일) 부미아트홀

- 문 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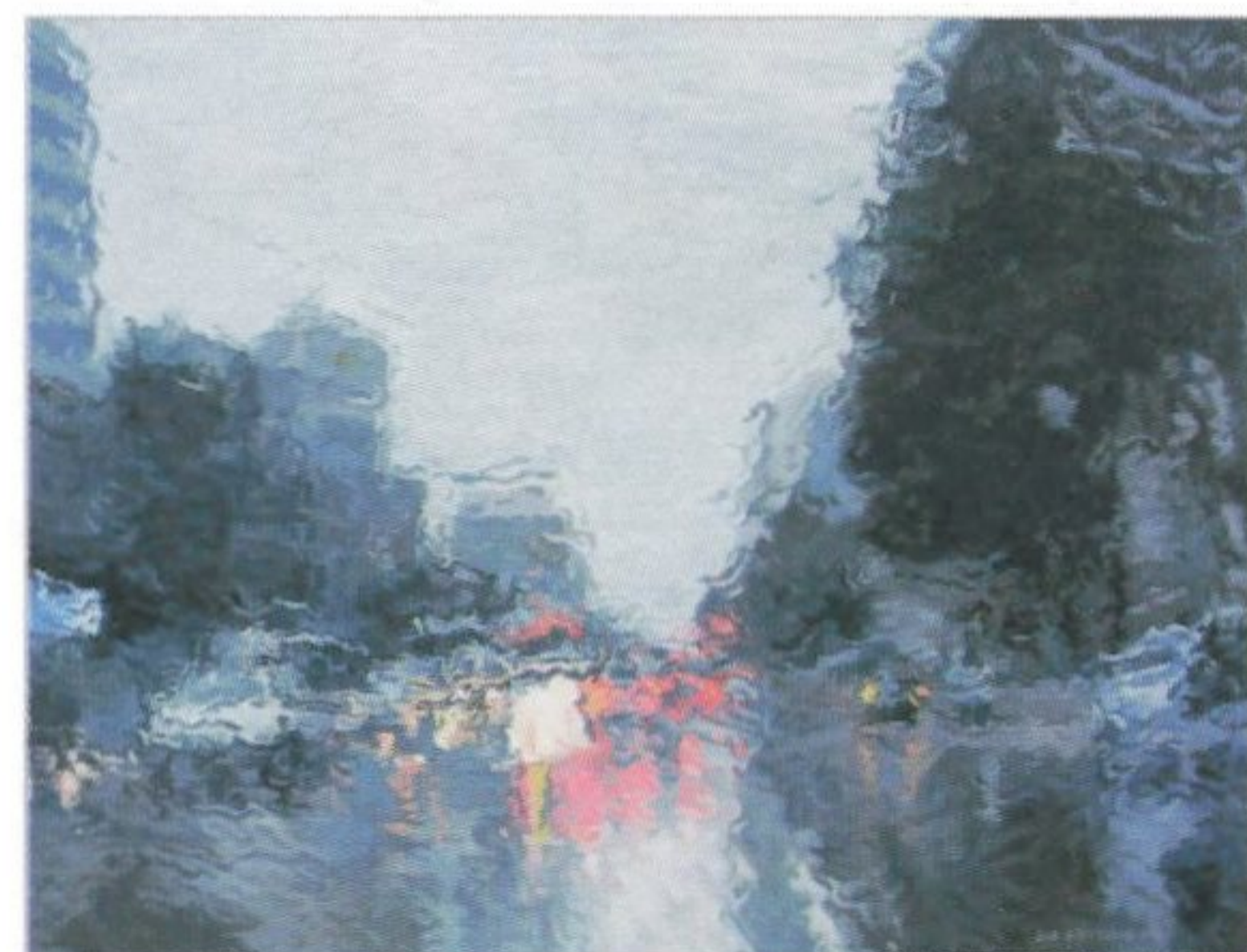
변대용 설치전

7월 9(금)~7월 22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김성규 서양화전

7월 23(금)~7월 29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박미영 서양화전

7월 30(금)~8월 5일(목) 롯데갤러리

- 문 의 롯데갤러리(810-2328)



슈베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2집

연주/율리아 피셔(바이올린, 피아노), 마르틴 헬름첸(피아노)

▶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듀오> D.574,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C장조 D.934, 피아노 듀엣을 위한 환상곡 D.940

율리아 피셔가 연주하는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을 마무리하는 두 번째 음반으로, 참으로 어여쁜 그녀의 바이올린 음색으로 사로잡는 A장조 소나타 <듀오>와 섬세함으로 가득한 환상곡 C장조를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 이음반의 핵심은 율리아 피셔의 피아노 연주에 있다. 그녀가 피아노 공부를 먼저 시작했고, 피아니스트로도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 마침내 이 음반을 통해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마르틴 헬름첸과의 듀엣 연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 파르티타

연주/이자벨 파우스트(바이올린)

▶ 소나타 BWV 1005, 파르티타 BWV 1004, BWV 1006

최근 유럽의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바이올린 연주자 이사벨 파우스트. 현대의 뛰어난 다른 여성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달리 이사벨 파우스트는 열정과 투지, 정교함과 서정성, 달콤함을 갖추고 있다. 그녀는 드보르작, 베토벤 바이올린의 협주곡, 슈베르트,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드보르작의 실내악 등 각각의 레퍼토리에서 각기 다른 최고 아름다움을 정확히 꼬집어 내고 있다. 바이올린 학문의 최고봉인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 파르티타에 대한 그녀의 이번 도전장은 역시나 우리에게 최고의 감동을 전해 주고 있다.



르벨 '레 엘레망' & 비발디 '사계'

연주/미도리 자일러(바이올린),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바이올린 연주자 미도리 자일러와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는 이미 이 음반과 같은 레퍼토리의 DVD를 발매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스페인 무용수 후안 크루즈 디아즈 데 가라이오 에스나올라와 함께 독특하면서도 기존의 클래식에 대한 고정 개념을 벗어난 시험적인 이 공연은 많은 관객의 찬사를 받아 화제가 되었다. 르벨에서의 새소리를 연상시키는 효과음, 비발디에서의 보다 서정적이며 사실적인 묘사의 선율은 한편의 아름다운 소설책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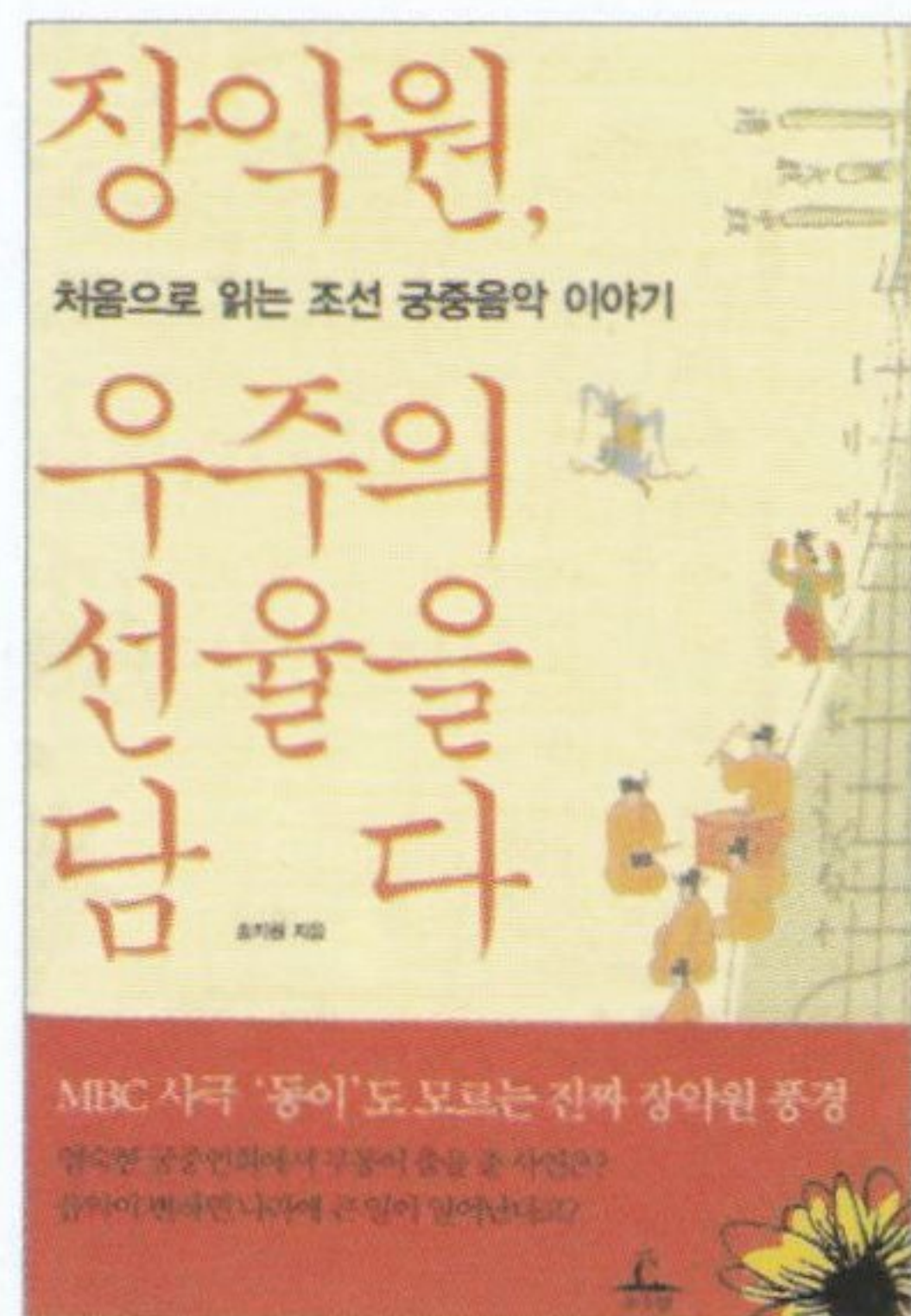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40번

연주/프라이부르크 바로크오케스트라(지휘/르네 야콥스)

모차르트 교향곡 38번, 41번에 이어서 르네 야콥스의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 2번째 음반이다. 모차르트 말기에 작곡되어진 다른 작품들은 어둡고, 무거운 경향이 있는 반면, 유독 39번은 다른 작품에 비해 화려했고 밝고 명랑하며 경쾌하다. 3악장 미뉴엣의 클라리넷 선율은 신선하고 목가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40번은 G단조로 정열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어두운 서정미를 갖고 있다. 르네 야콥스는 특유의 격정적이며 빠른 템포의 연주로 모차르트가 의도했던 극적 표현을 최대한 살려내고 있다. 특별히 4악장은 굉장히 긴 시간 속에 보다 드라마틱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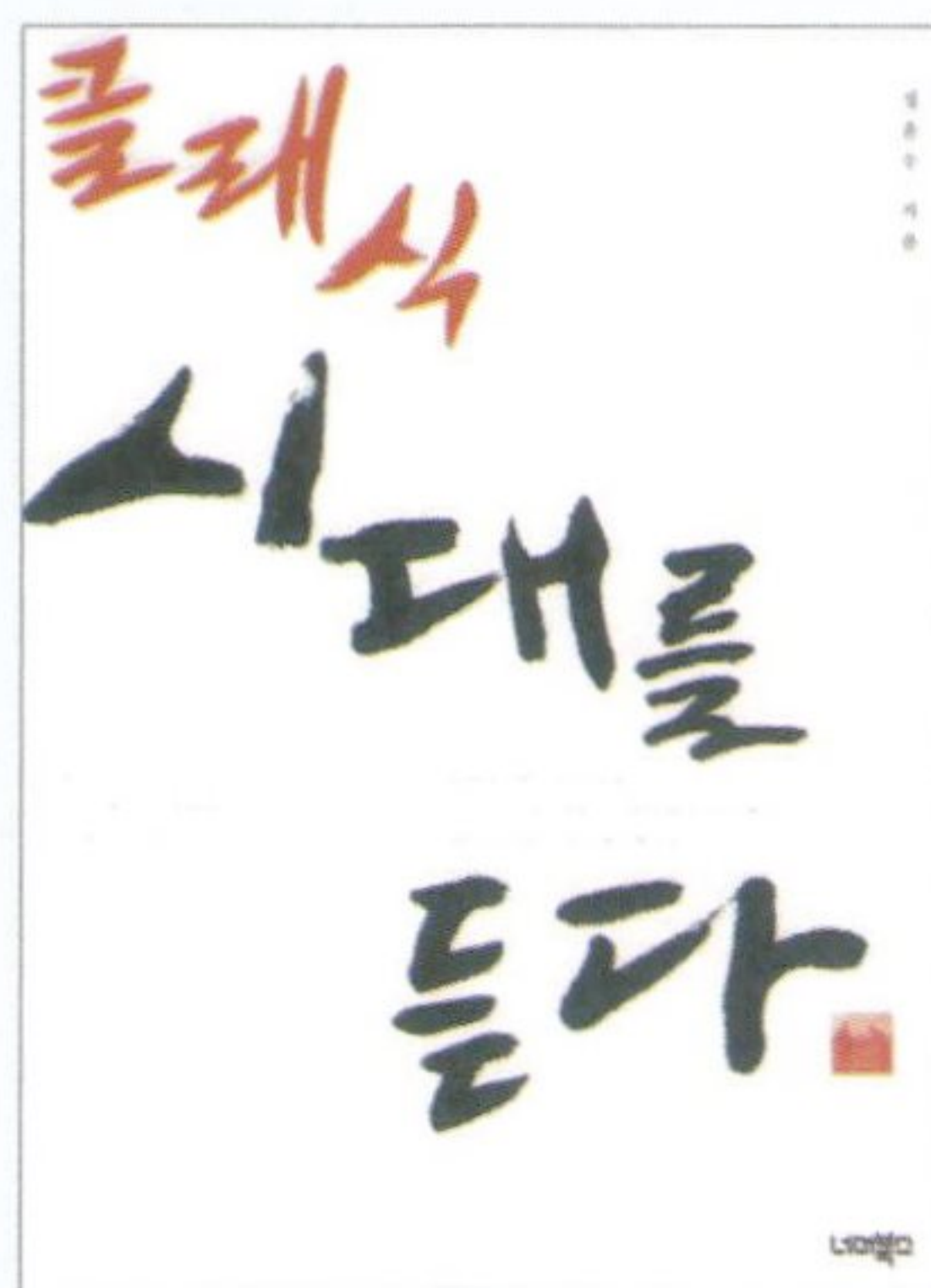
박현주 _ 동보서적 <웹진 책소식> 편집장



장악원, 우주의 선율을 담다

송지원 지음
추수밭 / 285p / 13,500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사극 '동이'에는 조선시대 궁중 음악기관이었던 장악원이 주요무대로 등장한다. 드라마를 통해 그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장악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송지원 교수의 안내로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들여보자. 유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음악은 단지 듣고 즐기는 수단이 아니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운항하는 우주의 섭리를 담아낸 것이었다. 왕실과 조정은 엄격한 예법에 따라 음악 의식을 관리했고, 이 때문에 궁중음악하면 흥보다는 격식, 화려함보다는 절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책의 1장은 장악원 풍경을 중심으로 조선의 음악이 만들어져 연주되는 과정에서 그 주체들이 흘린 땀과 쏟아 부은 열정, 그리고 회한을 생생하게 그렸다. 2장에서는 예(禮)와 악(樂)의 조화를 추구한 궁중음악이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그것을 완성해 나갔는지를 보여준다. 3장은 조선 음악의 기틀을 세운 맹사성과 박연부터, 실질적 완성자인 성현 등 조선의 대표 음악가 10인의 고군분투기가 펼쳐진다. 장악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악공과 악생들의 정원조차 채우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클래식 시대를 듣다

장윤수 지음
너머북스 / 500p / 26,000원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음악가였지만, 윤이상은 권력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비극의 인물이기도 하다. 음악가들이 고상하게 음악에만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에 클래식을 포함한 여러 비평가 칼럼을 기고해온 저자 정윤수 씨가 당대의 역사와 사상과 문화가 어우러진 본격 클래식 문화사를 펴냈다. 저자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바그너, 브람스 같은 음악가들은 당대의 삶을 살며, 정치행위에 참여하거나 사상 논쟁에 가담하거나 그도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와 방황과 갈등을 음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고 말한다. 음악이든 문학, 미술이든 훌륭한 예술은 그 시대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그것을 넘어선다. 그러기에 시공간을 떠나 사랑받으며 영혼들 개개인에게 다른 울림을 주는 것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존의 난해한 음악적 해석이나 시대 배경 지식, 문화적 분위기, 에피소드 중심의 클래식 해설서와 달리 음악이 탄생한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당대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음악가의 삶과 작품을 해명하고 있다. 300여 년 전의 비발디에서 시작하여 현대음악(윤이상과 21세기 음악)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파리가 영화를 말하다

김량 지음
시공아트274p / 14,000원

초등학생 때부터 <주말의 영화>와 <일요극장>을 즐겨 보았던 영화광 김량은 자신이 바라던 꿈대로 프랑스에서 영상예술가가 되었다. 영화를 좋아하고 파리를 사랑하는 저자는 영화와 파리를 동시에 즐길 때 얻는 재미를 담아 이 책을 펴냈다. 파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영화 <400번의 구타>, <아멜리에>, <퐁네프의 연인들> 등 프랑스 작품에서부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다빈치 코드> 등 할리우드 작품까지, 스무 편 이상의 영화에서 그려지는 파리의 모습을 만난다. 연인들을 탄생시키는 도시에서 일탈을 부추기는 도시로, 또 친구같이 다정한 도시에서 어두운 비밀을 감춘 도시로 끊임없이 얼굴을 바꾸는 파리의 야누스적인 모습이 화려하게 소개된다. 최근에 파리에서 불고 있는 한국 영화의 붐 현상도 다루어진다. 파리지앵들이 주목하는 한국 영화들을 살펴보고, 파리 영화인들과 함께 한국 영화의 붐 현상과 그 전망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또한, 영화광의 추억이 서린 영화관과 영화기관, 카페, 영화 전문 서점과 도서관 그리고 파리의 영화 교육 프로그램까지, 파리의 영화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속의 파리, 파리 속의 영화 이야기를 만나보자.

- 우리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제 34기 시민무용교실

- **강습기간** : 7월 26일(월) ~ 7월 30일(금) 13:00~17:00(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 : 태평무(13:00~15:00)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며 추
었던 춤으로 정중동의 미적 형식을 가진 완벽한 춤
합죽선산조춤(15:00~17:00)
가야금 산조 가락에 맞춰 합죽선부채를 들고 추는 춤
- **강 사** : 태평무 - 홍기태(수석안무자), 강미향
합죽선산조춤 - 서정숙(총무), 이성원
- **강습대상** : 일반 시민 및 교사(각 반 30명)
- **준 비 물** : 합죽선부채(각자 준비)
- **수 강 료** : 20,000원
- **강습결과 발표회** : 7월 30일(금) 13:00~14:00 국제회의장

제 23기 어린이한국춤교실

- **강습기간** : 7월 26일(월) ~ 7월 30일(금) 10:00~12:00(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 : 꼭두각시춤(10:00~11:00)
꼭두각시의 한국적이고 사랑스러운 인상을 표현
한 작품
어린이탈춤(11:00~12:00)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각색한 탈춤
- **강 사** : 꼭두각시춤 - 홍기태(수석안무자), 강미향
어린이탈춤 - 서정숙(총무), 이성원
- **강습대상** : 초등학교 어린이(각 반 30명)
- **준 비 물** : 탈(각자 준비)
- **수 강 료** : 10,000원
- **강습결과 발표회** : 7월 30일(금) 13:00~14:00 국제회의장

▪ **접수기간** : 7월 12일(월) ~ 7월 15일(목) (4일간 ※평일 10:00~18:00)

▪ **전화접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선착순 마감 (마감 후 5일 이내 환불 가능, 수수료 공제)



제 17기 시민국악강습

■ 국악강습 개요

- 강습대상: 부산시내 학생(초등 5년 이상), 교사, 일반인
- 강습기간: 7월 26일(월) ~ 8월 6일(금)
(10일간 ※토, 일요일은 휴강)
- 강습시간: 10:00 ~ 12:00(1일 2시간)
- 강습과목: 2개반(단소반, 장구반)
- 강습인원: 각반 30명



■ 과목안내

- 단소반 (1일 2시간) : 10:00 ~ 12:00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강사/김수일)
- 장구반 (1일 2시간) : 10:00 ~ 12:00 국악관현악단 연습실(강사/최오성)

■ 모집안내

- 수 강 료 : 20,000원(교재비 포함)
- 접수기간 : 7월 1일(목) ~ 7월 14일(수) 18:00(토,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접수장소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 개 강 식 : 7월 26일(월) 1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 수료식 및 공연 : 8월 6일(금) 19:00 국제회의장(문화회관 소극장 2층)

-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1~2)

부산문화회관 7월 1일부터 '가족요금제' 시행

부산문화회관에서는 7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가족의 건강 증진과 가족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여가문화시설 '가족요금제'를 시행한다.

'가족요금제'는 성인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가족이 부산시내 문화시설을 이용하면 입장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부산문화회관은 '가족요금제' 시행으로 3인 이상 가족에게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의 10%를 할인해준다. 기획공연 및 일반대관공연은 공연자(대관신청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정기회원 할인 등 타 할인요금제와 중복될 경우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약 및 매표 시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족을 확인한 후 할인율이 적용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607-6051~6)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년 부산연주인시리즈 출연자 모집

- **모집부문** : 2011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특별공연에 출연할 객원 지휘자 및 협연자
 - 지휘, 성악, 피아노, 관현악, 타악, 작곡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 격** :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서 음악활동 및 창작활동을 하고있는 음악인 또는 부산 출신의 음악인(나이제한 없음)
 - **심사방법** : 1차-서류 및 자격심사 ▷ 2차-자료심사(1차 합격자에 한함)
 - 지휘자 및 협연자 : 서류 및 자료 심사
 - 작곡가 : 창작곡 심사
 - 창작곡은 공고일 현재 필히 미발표작일 것
 - 10분 내외의 관현악곡(3관 편성 이내)
 - 최종합격자는 연주 3개월 전까지 악보(지휘총보 및 파트보) 제출
 - 선정된 작품 연주 시, 소정의 작품 사용료 지급
 - **제출서류** : ◆ 공통
 - 이력서 또는 프로필 1부(사진부착)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 1부
 - 콩쿠르 입상 증명 서류 사본 ▷ 해당자◆ **지휘자 및 협연자** : 연주실황 CD 또는 DVD 1매 ▷ 프로그램 첨부 要
 - ◆ **작곡가** : 창작곡(지휘자용 총보) 1부 ▷ 데모 CD(음원) 첨부 要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간** : ◆ **지휘자 및 협연자** - 7월 20일(화) ~ 7월 30일(금) 17:00까지 도착분
- ◆ **작 곡 가(창작곡)** - 9월 24일(금) ~ 9월 30일(목) 17:00까지 도착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장소**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
- **발 표** : 심사 후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6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 모집 개요

- 연주일시 : 9월 16일(목) 19:30
- 응시자격 : 원서접수시 부산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인제대 포함)에 재학중인 자
※ 단, 2007년 4월 (제 6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이후 협연한 자는 응시 불가
- 모집부문 : 피아노, 현·관·타악기(협주 가능한 악기)
- 모집인원 : 부문에 관계없이 6~8명(초·중고생 1~4명/고등·대학생 1~4명)

■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7월 14일(수) ~ 7월 21일(수) 10:00 ~ 17:00
- 장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사무실(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사진 2매(3×4cm 동일사진, 원서부착용)
※ 응시원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전형 개요

- 전형일시 : 7월 23일(금) 10:00 ~ 18:00(초·중고생 10:00~/고등·대학생 13:00~)
- 장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 전형과목 : 협주곡 단악장(자유곡/단, 교향악단과 협연이 가능한 곡목) ※ 전 파트 반주자 대동

■ 기 타

- 합격자 발표 : 7월 27일(화) 10: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 ※ 전형 과정에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함

찾아가는 예술단 7월 공연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민을 직접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7월 공연 일정이 확정되었다. 방학을 앞둔 청소년들을 위한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내 사랑 부산공연, 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소외계층을 위한 활력공연 등이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7.05(월) 11:00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부산해남학교와 함께' 부산해남학교 강당	(출연/무용단)
7.06(화) 15:00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달북초등학교와 함께' 달북초등학교 도서관	(출연/국악관현악단)
7.07(수) 12:30	내 사랑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 시청로비	(출연/교향악단)
7.07(수) 15:00	소외계층을 위한 활력공연 '장애인과 함께하는 무용단' 장애인축진공단 대강당	(출연/무용단)
7.07(수) 19:00	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아인텔레서비스직원과 함께' LG텔레콤 빌딩	(출연/교향악단)
7.13(화) 18:30	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부일정보링크(주)직원과 함께' 아이즈비전 건물	(출연/교향악단)
7.13(화) 19:30	내 사랑 부산공연 '북구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북구문화빙상센터	(출연/합창단)
7.17(토) 17:00	내 사랑 부산공연 '부산역 분수음악 한마당' 부산역광장	(출연/합창단)
7.23(금) 14:30	내 사랑 부산공연 '스승을 위한 작은 콘서트' 교육연수원	(출연/교향악단, 합창단)

선덕여왕의 숨결을 찾아 떠난 6월 경주 여행

2010년 정기회원 테마여행에서 두 번째로 경주 여행을 떠나는 6월 11일, 경주나들이에 들뜬 정기회원 가족들이 이른 아침 부산문화회관에 모였다.

이번 경주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정선희와 피리주자 박영은, 정주아, 김현주가 동행했다.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해 43명 정기회원 가족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분황사. 문화해설사 이홍렬 씨와 천 사백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여행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의 숨결이 살아 있는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634)에 건립된 사찰로 고승 원효와 자장이 거쳐간 절이다. 원효는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소' '금광명경소'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원효가 죽은 뒤 그의 아들 설총은 원효의 유해로 소상을 만들어 분황사에 모셔두고 죽을 때까지 공경했다고 전해진다. 분황사에 있었던 유물들은 몽고의 침략과 임진왜란 등으로 모두 유실되었고, 지금은 국보 제 30호로 지정된 모전석탑과 화쟁국사비편, 삼룡변어정이라는 우물,

석정, 석조, 석등이 남아있다. 그 시절 분황사의 규모는 기록으로 짐작만 할 뿐 옛날 번성했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분황사 답사 후 방문한 곳은 황룡사지. 황룡사는 신라 553년(진흥왕 14)부터 짓기 시작하여 645년(선덕여왕 14), 9층 목탑을 마지막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흥왕이 이곳에 새 궁궐을 지으려고 하는데 황룡이 나타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어 절을 지었다고 한다. 황룡사 금당에는 술거가 그린 벽화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목탑지에서 발견된 당나라 백자항아리는 당시의 문물교류를 잘 알려 준다.



“황룡사의 9층 목탑은 지금의 건축 기술로는 도저히 복원할 수 없는 정도로 위대한 작품입니다. 고려를 침략한 몽고가 고려에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이유가 여기 황룡사의 기운 때문이라고 여겼는지, 1238년 이 곳 경주까지 내려와 불태웠습니다.”

흔적만 남은 안타까운 황룡사지에서 정기회원 가족들은 신라의 뛰어난 건축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다. 신라 최고의 사찰 황룡사의 좋은 기운을 담아 월드컵 첫 승을 기원하며 정기회원 가족들은 황룡사지에서 일제히 대한민국~을 외쳤다. 황룡사의 기운은 다음날 그리스전 승리로 모두 확인했다.

황룡사지에 이어 오늘 여행의 주인공인 선덕여왕릉으로 이동했다. 선덕여왕릉은 신라 왕의 무덤 중 주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두곳 중 한곳이다. 드라마 선덕여왕의 영향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왕의 위엄에 맞게 왕릉 주변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때 이른 초여름 더위로 선덕여왕을 만나는 길이 쉽지 않았다. 땀에 범벅이 되어 여왕이 묻힌 도리천에 이르렀다.

“선덕여왕은 재임 중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공주로 왕위에 올랐던 만큼 주위의 많은 적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고민하면서 백제의 계속되는 침략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해설사와 함께 삼국통일의 기반을 만든 선덕여왕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점심 식사 후 교동에서 계림으로 이어진 숲길을 따라 침성대로 향했다. 비록 더운 날씨지만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다른 지난 여행과 달리 걸어서 경주를 돌아본 뜻 깊은 시간, 덤으로 계림과 반월성을 거쳐 침성대에 이르는 숲길에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여유로움을 누렸다. 침성대에서는 다시 버스를 타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한 김유신과 태종 무열왕의 릉을 둘러보았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경주를 지키고 있는 위엄이 지금도 느껴진다.

태종 무열왕릉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피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영은, 정주아, 김현주 단원이 피리의 멋을 살린 정악곡, 서용석류 피리 산조, 민요연주가 이어졌고 정선희 씨는 사철가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경주 여행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현장 학습을 나온 초등학생들까지 흥겨운 박수로 답했다.

돌아오는 길에 건천에서 경주 특산물 체리를 따면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글/백경옥, 사진/정복엽)



2010년 8월에는 **의령**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고,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7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7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김광열(부산진구 양정1동)
도영주(강서구 명지동)
류부자(중구 보수동1가)
류혜리(금정구 구서1동)
박종길(해운대구 좌1동)
서영숙(남구 용호동)
임서현(서구 아미동2가)
조영자(해운대구 좌2동)
하진욱(수영구 남천동)
한순정(북구 화명동)

신규가입자

김미경(사하구 장림동)
김현숙(남구 감만동)
김현정(해운대구 좌2동)
박현규(서구 암남동)
서영란(남구 용호동)
이 엽(중구 중앙동4가)
이해열(사상구 괘법동)
정수선(남구 용호1동)
조찬희(금정구 청룡동)
주지영(부산진구 당감2동)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댄스 인 클래식'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수 없는 청중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평소 아는 지인이랑 문화회관에 갔다. 낮에 하는 웰빙 음악회, 해설해주는 김문경 씨가 넘 멋있었다. 이해하기도 좋고 다양한 자막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남국의 관능과 정열이 넘치는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댄스들로 즐거운 무대였다.

- 박정희(동래구 안락동)

한낮의 유U;콘서트 '뮤지컬 갈라콘서트'

대형뮤지컬 16작품을 한자리에서, 그것도 하이라이트만 쏙쏙 뽑아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였다. 뮤지컬팀 뮤즈 멤버들의 실력있는 가창력과 화려한 춤 솜씨도 콘서트의 재미를 더했다. 연극 '이'의 '공길'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김호영 씨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공연의 보~너스!!.

- 임강현(강서구 신호동)

하연화의 춤 '해설이 있는 우리춤'

소리꾼의 구성진 목청으로 듣는 우리춤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 해설자와 관객과의 무대 넘나들기도 좋았고, 익숙치 않은 우리 전통춤사위가 눈을 고정시켜주는 묘한 매력이 있는 해설이 있는 우리 전통춤 공연이었다.

- 김은미(사하구 괴정동)

창작뮤지컬 '이순신'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이후 민영기라는 뮤지컬 배우에 끌려 그가 출연한 작품에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3년 전 통영에서 가진 첫 공연을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에 전국연극제 개막공연으로 '이순신'을 보게 되어 너무 기뻐다. 민영기는 민정조가 아닌 영웅 이순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영웅이 아닌 인간적인 이순신이 아름다운 노랫말에 녹아났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노량해전 장면이 생각보다 강렬하지 못했던 점. 아직도 '나를 태워라'를 열창하던 민 배우의 노래가 귀전에 맴돈다.

- 이미옥(사하구 하단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향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남캐처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부산시립극단 제 38회 정기공연

조선형사 홍운식

극본·연출 성기웅

2010. 7. 29(목)~31(토)
평일 19:30, 토요일 16:00
부산문화회관소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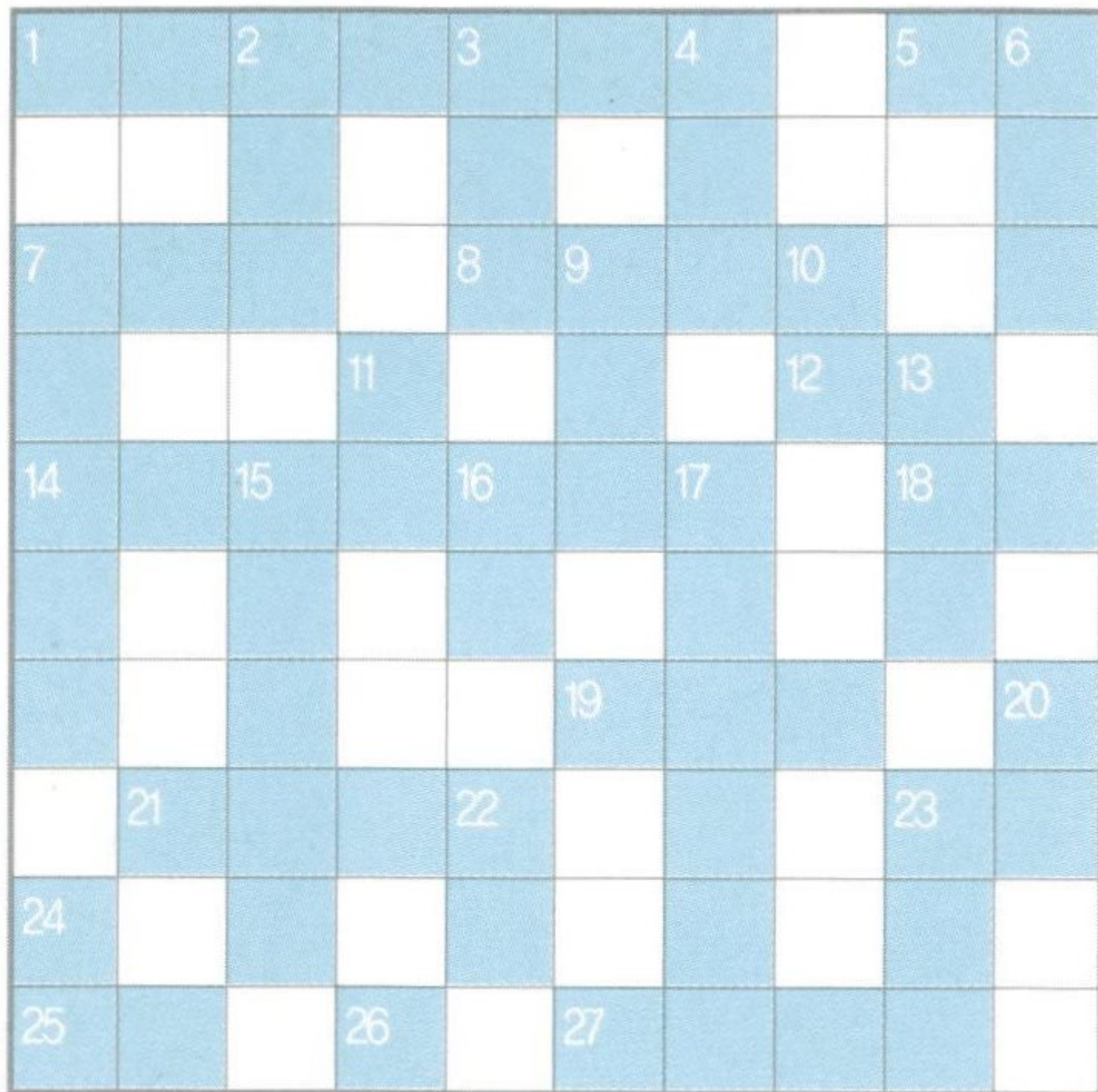
입장권 **균일 20,000원**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가로열쇠

- 1_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프로그램.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클래식연주와 악기체험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 5_우리나라 전통관악기의 하나. 둥근 박통에 17개의 죽관(竹管)을 꽂고 박통 옆에 튀어나온 취구(吹口)에 입을 대고 부는데, 우리나라 악기 중 유일하게 2개 이상의 음정을 동시에 낼 수 있는 화음악기로 알려져 있다.
- 7_1934년 발표된 이상의 연작시. 현실의 부조리, 모순 등을 표현한 시로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8_모터보트에 맨 로프를 쥐고 보트에 이끌려 스키로 수면을 활주하는 스포츠.
- 12_지구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 중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평행하게 그은 선.

- 14_1763년~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으며, 세계 3대 미항(美港) 중 하나. 사순절(四旬節) 4일 전에 열리는 카니발이 유명하다.
- 18_도로의 폭이 갑자기 좁아진 곳에서 일어나는 교통 정체 현상.
- 19_집시여인과 순진한 돈 호세 하사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오페라.
- 21_차(茶)와 말을 교역하던 중국의 높고 험준한 옛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로, 이 길을 따라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이 오갔다.
- 23_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네 간지(干支).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점.
- 25_하루의 일과를 끝낸 한 농부 부부가 황혼이 지기 시작한 전원을 배경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프랑스 화가 밀레의 대표작.
- 26_영화 '닌자어썬'으로 '2010 MTV 무비 어워즈' 액션스타상을 수상한 가수 겸 영화배우.
- 27_친러 세력에 의하여 고종과 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 이 사건으로 각종 경제적 이권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세로열쇠

- 2_부산에서 가장 큰 섬으로, 문화재로 천성진성, 척화비, 연대 봉수대 등이 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의 7월 테마여행지.
- 3_탁월한 상상력과 빼어난 언어연금술로 마술적 리얼리즘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소설가. 대표작으로 꿈꾸는 식물, 들개, 벽오금학도, 황금비늘 등이 있다.
- 4_영국 〇〇〇 맥주회사에서 발행하는, 진기한 세계기록을 모은 책. 〇〇〇북.

- 6_신라 호국신앙의 중심지였던 사찰. 고려 13세기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없어져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다.
- 7_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된 미국 영화배우.
- 9_중국 양쯔강 하구에 있는 중국 최대 도시. 국제화와 현대화가 이루어진 대도시이자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로, 주요 수출입 국경출입구이다.
- 10_뉴질랜드의 국조(國鳥). 날개와 꼬리는 퇴화하여 날지 못한다.
- 11_가슴 찡한 모녀의 사랑 이야기로 사랑받았던 정기훈 감독의 2009년 영화. 최근 연극으로도 제작되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 13_KBS라디오 팝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30년 경력의 팝 전문PD. 7월 10월 부산시립합창단 '이아가 있는 POP 합창' 해설자로 출연한다.
- 15_종이 위에 그림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반으로 접거나 다른 종이를 덮어 찍어서 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회화 기법.
- 16_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의 남쪽 반을 차지하는 내륙 국가. 수도는 카트만두.
- 17_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소장된 미술품의 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 20_언니의 남자를 사랑한 소녀, 그 금지된 관계 속에 숨겨진 비밀과 사랑을 그린 박찬욱 감독의 영화. 한국 영화 최초로 제 39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22_일본의 수도.
- 23_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사기'의 저자.
- 24_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독일의 작곡가. 19세기 낭만파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지난호 정답



퍼즐당첨자 명단

■ 부산은행 조은극장

- 권유진(금정구 서2동)
김정미(연제구 연산5동)
배은숙(수영구 망미동)
윤신영(연제구 거제3동)
하정희(동래구 사직동)

■ 공간 소극장

- 김아름(서구 부민동3가)
신미경(사상구 괘법동)
이미숙(북구 화명3동)
이재혁(수영구 광안2동)
장은숙(북구 구포3동)

■ 나랏소

- 김용출(부산진구 양정1동)
윤지현(서구 초장동)
이정환(부산진구 당감3동)
이재선(동래구 사직2동)
이혜원(부산진구 전포1동)

■ 큰집

- 김태연(연제구 연산1동)
박소영(영도구 봉래동4가)
최성숙(금정구 부곡4동)
한경혜(연제구 연산5동)
홍주현(부산진구 연지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반주와 공연을 위한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음악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7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십시오)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7월 10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 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들려주는 금관 5중주 연주회. 트럼펫, 혼, 트럼본, 튜바 등 금관악기 특유의 다이내믹하고 화려한 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조르주 비제/카르멘 모음곡

막스 슈타이너/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모음곡

멕시코 음악 메들리/한 걸음 더 가까이

미국 민요/성자의 행진

자크 오펜바흐/천국과 지옥 중 '캉캉'

· 연주/Trumpet I 박경렬, Trumpet II 김충석, Horn 김가영,
Trombone 이용우, Tuba 장미진, SetDrum 김자연



7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무일무용단 공연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부산 무용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한국 전통무용 공연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결성된 무일무용단의 무대.

프로그램

검무(출연/성정현, 안숙화, 신복자, 전경희, 김명주, 박무연, 이성혜, 이근미)

살풀이(출연/노금선)

원앙산조춤(출연/이수옥, 김동봉, 윤여준, 김은미, 이윤미, 김윤희)

태평무(출연/차경주, 성정현, 안숙화)

교방굿거리(출연/황지인)

한량무(출연/전선자, 신복자, 김명주, 이오심, 이성혜)

명월연가(특별출연/배혜경)

7월 24일 토요일 오후 4:00

한국전통예술진흥회 공연

한국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국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전통예술진흥회는 국악의 보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국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승무(춤/설숙희 · 북/김향옥), 흥보가 중박타는 대목(소리/신지영 · 북/김향옥)

합주(가야금/양아실, 배정임 · 철현금/이푸른 · 아쟁/하성진, 강지현 · 해금/이하늘), 국악가요(노래/신지선)

산조춤(춤/김민선, 설숙희, 심복희 · 아쟁/신재현, 채민성, 정형석 · 철현금/김지희, 이푸른 · 장구/김향옥)

민요 '신땃노래' '신사철가' '신평년가'(소리/심지예, 신지선, 신지영), 지전놀이(춤/설숙희 김민선, 심복희)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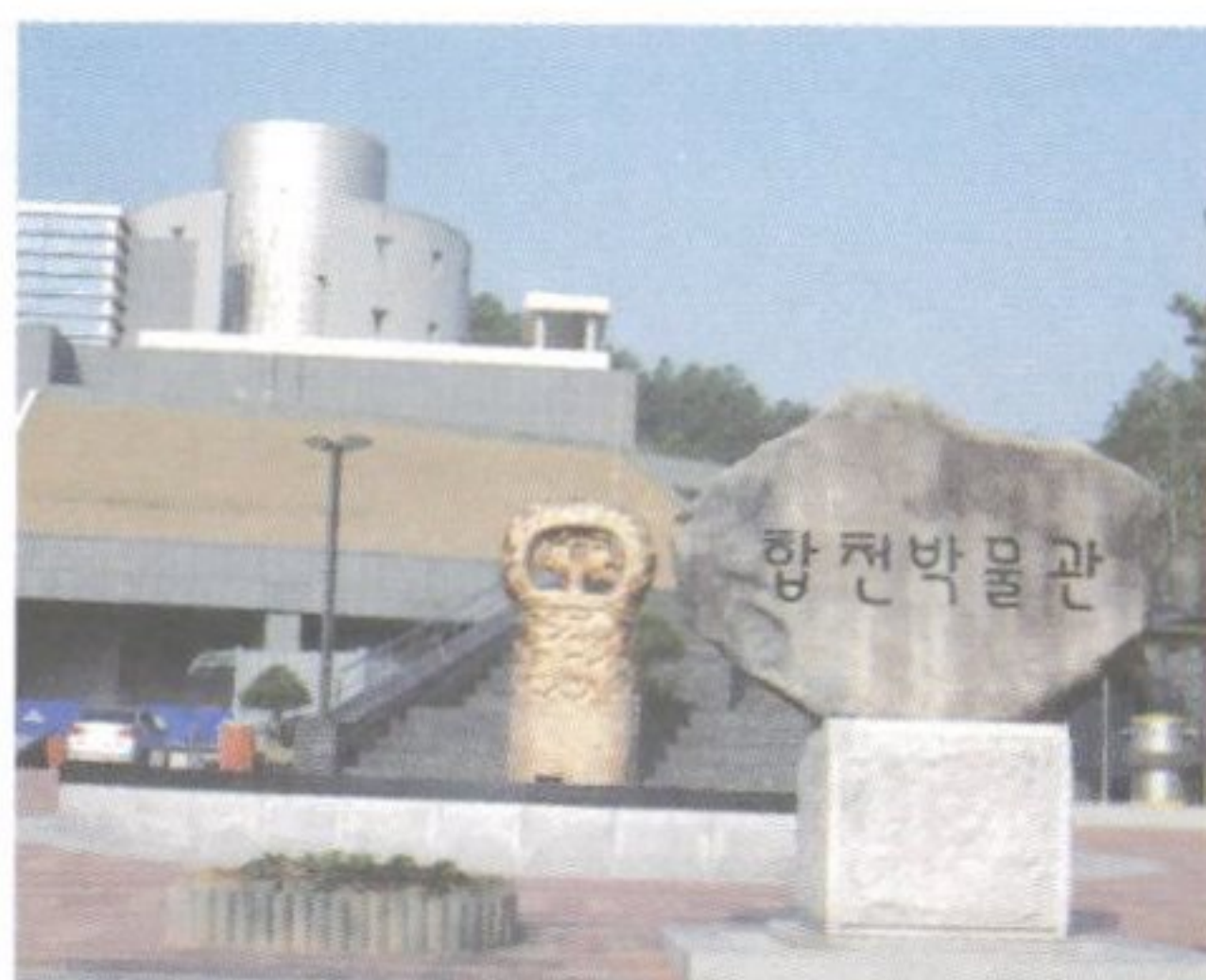


의령 충익사

▶ 8월 13일 (금) 의병의 고장 의령

한가로운 농촌의 소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의령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망우당 객재우 홍의장군과 17장령의 위패를 모신 충익사를 시작으로 객재우 생가, 현고수 등에서 의병 정신을 배운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09:40 의령도착, 충익사-정암진-구름다리-객재우생가-현고수
- ▷ 12:00 의령 산천렵마을 도착, 중식
- ▷ 13:00 미꾸라지 잡기, 망개떡 만들기 체험
-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00 의령예술촌 방문
- ▷ 17:00 부산으로 출발



합천박물관

▶ 9월 10일 (금) 역사의 고장 합천, 고대역사기행

가야산을 중심으로 화려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역사의 고장 합천으로 떠나는 여행.
가야시대 다라국 터에 세워진 합천박물관을 시작으로 합천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른 가을 여행을 떠난다.

-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합천박물관(옥전고분군), 합천읍 대야성, 죽죽비 등 합천 문화유적 탐방
- ▷ 12:00 중식
- ▷ 13:00 합천 영상테마파크
- ▷ 15:00 바람흔적미술관 방문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3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오디션' 20% 할인



2010. 5. 21(금)~7. 25(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4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10. 1. 1(금)~12. 31(금)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810-7000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 · 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 (만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예매 및 문의
051)804-2252

THEATER
서면 구.은아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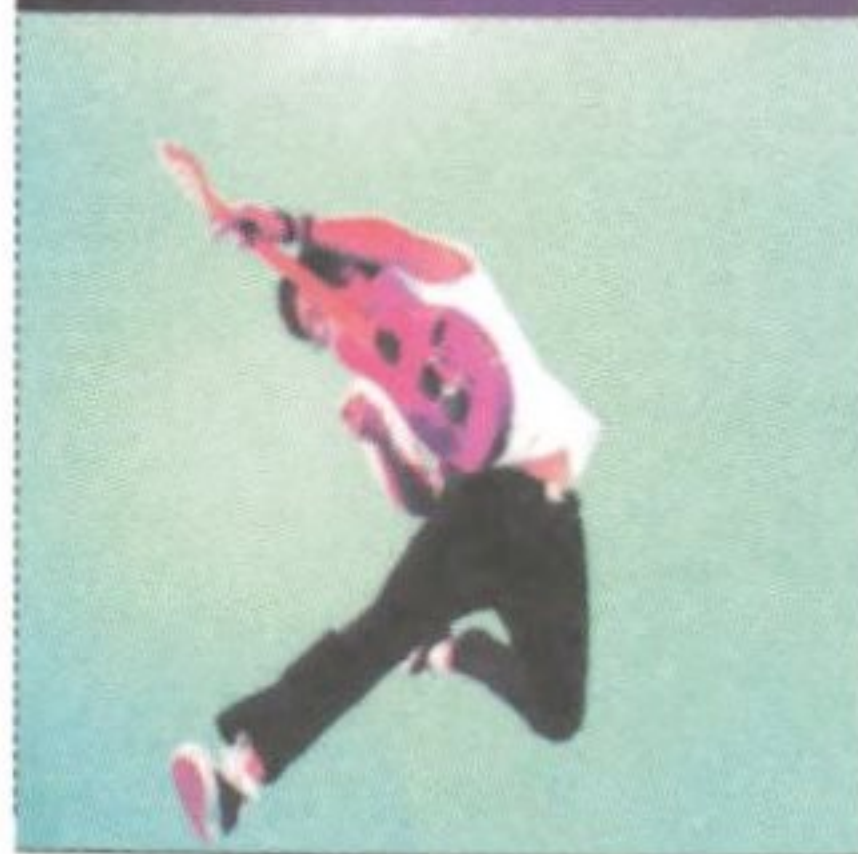
사랑한
비보이를 발레리나

20% 할인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화~금 20시 / 토 16,20시 / 일 및 공휴일 15,18시(월 휴관)

* 쿠폰제시 시 1인 4매까지 할인/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타 할인과 중복 불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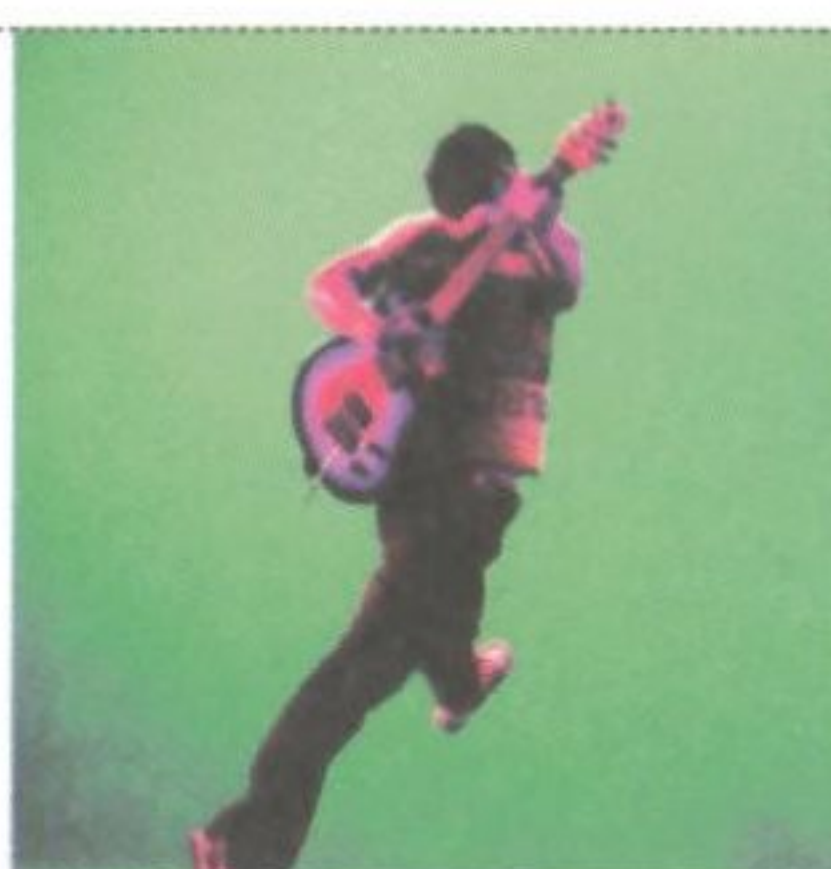
하늘아래 크로스 국가스텐

Vol. 11

2010. 7. 16(목)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 607-6058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USAN CULTURAL CENTER Membership
<http://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에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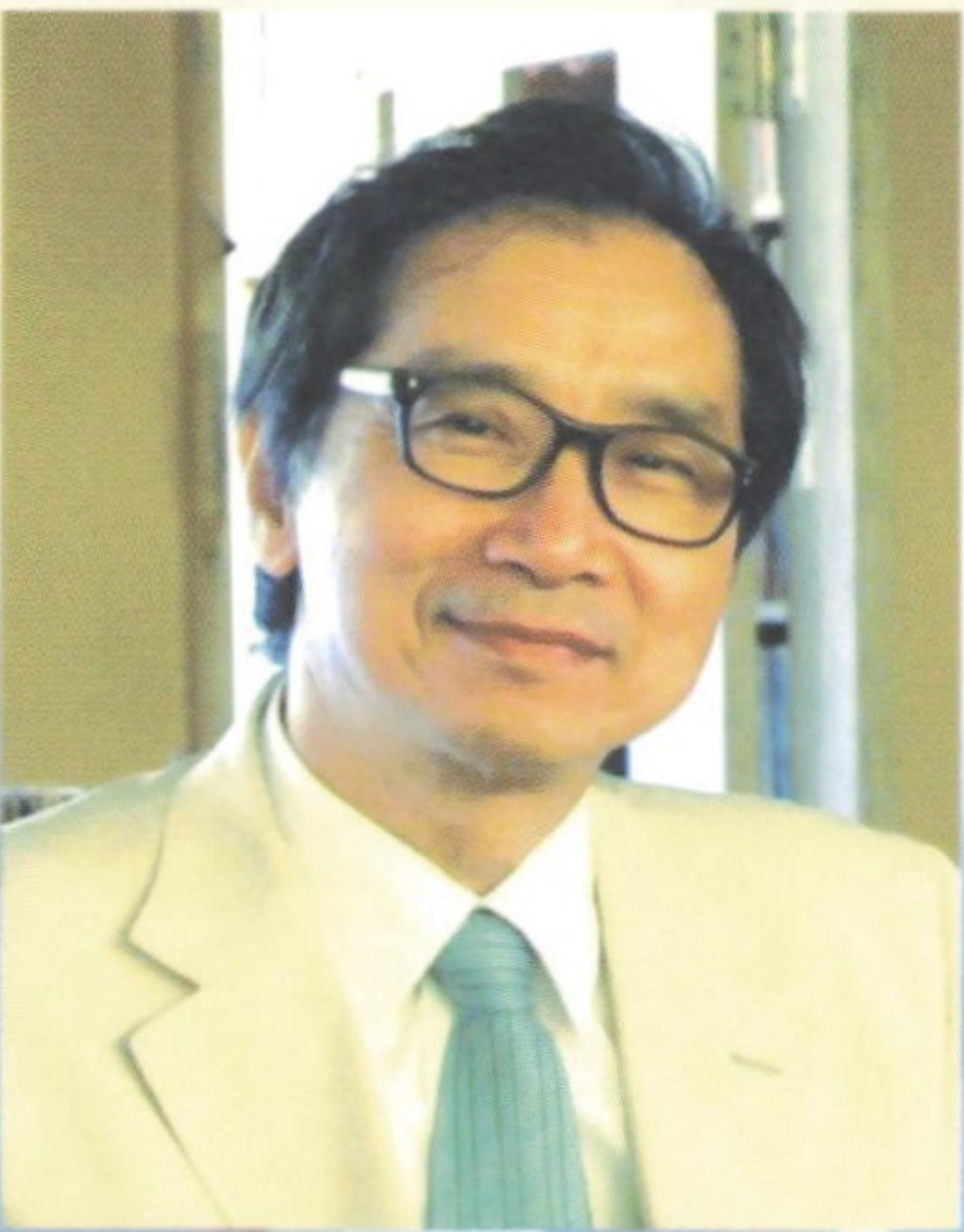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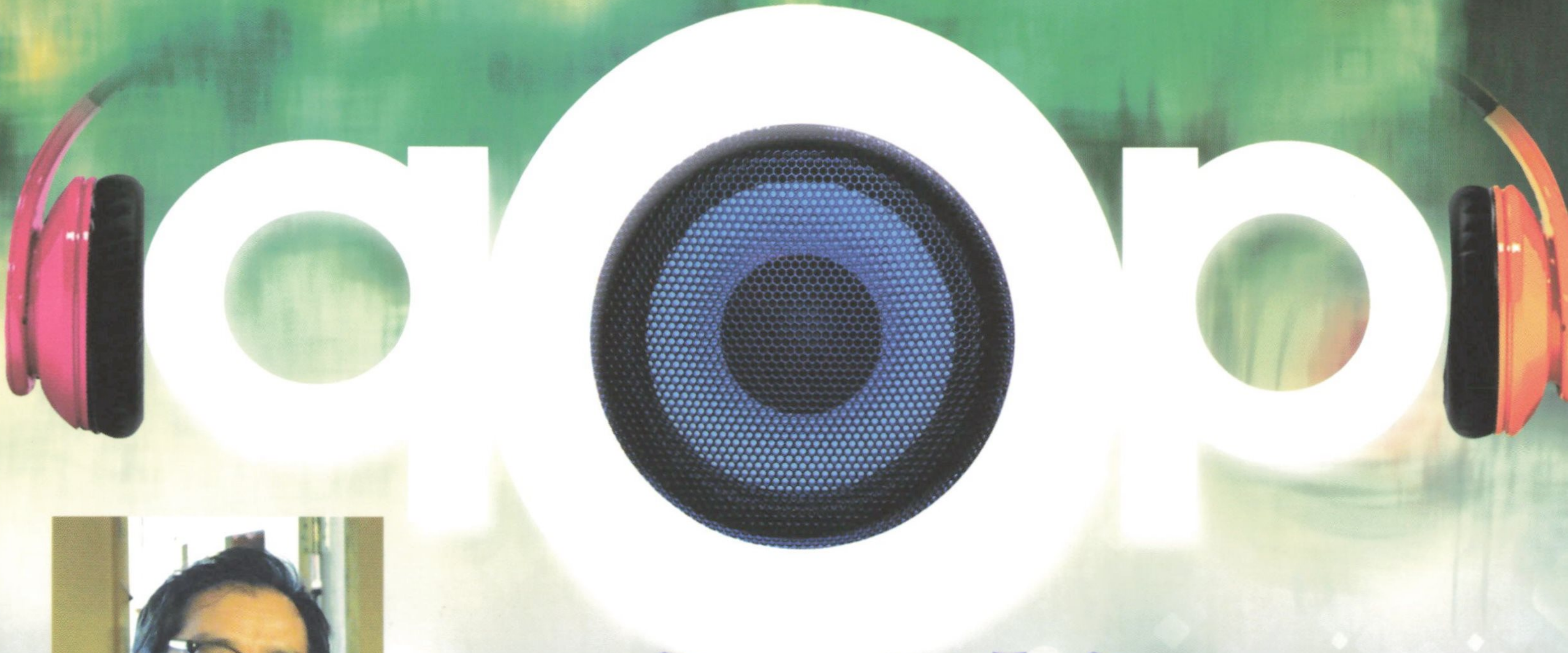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 할인	

- 회원기간 _ 가입일로부터 1년
- 할 인 율 _ 기획공연 5~30%, 시립예술단공연 5~30%
- 좌석선택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할인횟수 _ 제한없음
- 가입신청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 가입비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탈 퇴 _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_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혜 택
 -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무료우송, 조기에매 기회제공, 문화강좌할인, 테마여행
 - 부산시내주요 공연장 및 관람시설, 할인쿠폰제공 등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7월가입 이벤트

7월 한달동안 가입자를 추천, 점프전용극장 점프초대권 2매(2명), 비비씨어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초대권 2매(2명), 제 5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초대권 2매(20명)을 드립니다.

영원한 DJ 도병찬과 함께하는



해설 도병찬

파랑새 반반반

협연 어쿠스틱 기타 홍광현

Opening Sing(Carpenters)

여름휴가 Summer Holiday, Beyond the Sea (La Mer), Theme from Summer Place

카펜터스를 추억하며 Super Star, Close to You, Top of The World

지중해의 노래 Me T Aspro Mou Mantili(하안손수건), a Novia, Eres tu(스페인)

기타로 듣는 Pop Over the Rainbow 외 2곡

여름밤의 추억 One Summer Night, Summer Time, Summer Nights (뮤지컬 그리스)

아카데미주제가상 수상곡 모음 The Way We Were, You light up my life, What a feeling!

Ending Stairway to heaven

2010.7.10(토)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균일 10,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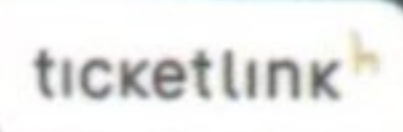
주관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www.bschorus.or.kr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